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10 Vol·226

10월 재개관하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Dynamic BUSAN

2010 2nd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지휘 | 오충근

연주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협연 및 악장 | 데이비드 김





David Kim, Violin

PROGRAM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J.Brahms** Academic Festival Overture, Op.80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77 **J.Brahms**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브람스 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 68 **J.Brahms**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2010. 11. 8 Mon.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부산시민과 함께 지휘자 협연자 오케스트라가 하나되는 역사적인 2009년 가을...



Choong-Keun Oh, Conductor

미래의 세계 음악 중심도시를 향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난해 사상 초유로 시도되었던 시립교향악단과 민간교향악단들의 대형 연합오케스트라 페스티발!!
부산 교향악의 역사와 주인공들이 함께하여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였다.
이제, 부산을 연고로 한 음악가들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의 자랑스런 아티스트들이 함께 부산 무대를 찾는다.
부산 음악가들의 저력과 자긍심을 더 높여 문화주권을 주창함과 아울러 장차 세계음악의 주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 할 것이다.

|주최|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주관| BWPO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진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문의| BWPO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KNN 1577-7600 www.knn.co.kr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 국립오페라단 초청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10월 15일(금)-16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사랑의 법칙, 사랑에도 묘약이 있다?
'한국 여성 오페라 연출가 1호' 이소영의 야심작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아디나와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네모리노,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으로 알고 마신 네모리노가 2010년 가을, 진정한 사랑의 비법을 전한다.



■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친원의 행복'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장윤성(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협연/김혜진(피아노)

정상급의 연주력과 뛰어난 기획력이 동반된 고품격의 엔터테인먼트로 한국을 대표하는 특급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대전시립교향악단 부산연주회.

Program

드보르작/카니발 서곡 작품 92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피아노_김혜진)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11번 사단조 작품 103



■ 러시아 최고의 역사와 진통을 자랑하는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11월 5일(금)~6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원작/마리우스 프티파, 레프 이바노프(1895), 작곡/표트르 차이코프스키
예술감독/발레리 게르기예프

키로프 마린스키 발레단이 선사하는 명품 발레 '백조의 호수'
궁중 무도회에서 최고 기량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화려한 춤!

음울하고 신비로운 호수에서 스물네 마리의 백조들이 차이코프스키의 극적인 음악에 맞춰 추는 환상적인 춤은 단연 압권

Program

1막 : 성안 마을 / 왕자의 성인식날　　2막 : 숲속의 호수　　3막 : 궁전 무도회장　　4막 : 숲속 호숫가

· 주역/빅토리아 테레쉬키나, 안드리안 페데예프, 그리고리 포포브, 콘스탄틴 즈베레브(5일)
울리아나 로타트키나, 예프게니 이반첸코, 라펠 뮤신, 이반 시트니코프(6일)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1월 27일(토)-28일(일)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Hot Star! Hot Show! 2010 〈브로드웨이 42번가〉
유료 객석 점유율 95%, 일일 평균 매출 1억여 원을 연일 돌파하는 고공행진 기록,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로 다시 한번 그 인기를 입증한 화제작 〈브로드웨이 42번가〉 부산무대!

· 출연/김법래, 박상원, 박해미, 이정화, 최성희(바다), 방진의 외



재개관 기념 공연

공연문의 _ 부산문화회관(607-6057~8),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 영혼의 소리 장사익 소리판 '역'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영혼을 울리는 노래, 한국의 혼을 담은 노래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장사익
삶과 죽음을 통한 관조적 태도로 따뜻한 삶의 일상을 노래로 펼치며 소통과 교감을 이뤄내고 있는 장사익표 음악,
전석 매진의 신화를 다시 쓴다.

– 희로애락과 세상, 우주가 함축된 그의 콘서트는 곱씹을수록 은근한 맛이 계속 우러나온다.
– 삼라만상 자연과 호흡을 맞춘 가락은 부담이 없어 20~90대를 흡입한다.

Program

1부 여행, 역, 행복, 자동차
2부 기형도 시인의 엄마생각, 찔레꽃, 이게 아닌데, 허허바다 등 수곡



■ 소프라노 조수미 '독일 가곡 콘서트 Ich Liebe Dich'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8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들려주는 낭만적 정서의 극치,
독일 정통 예술 가곡의 향연!

살인적인 고음과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고난이도 아리아! 오페라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국내초연!
2010년 3월, 발매된 새 앨범, 독일 가곡집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첫 기회!
독일프로젝트 앙상블_ Deutsche Philharmonie Merck와의 감미로운 협연!

원작 시에 충실한 문화적 시정이 담백하고 이지적 선율이 드러나는 예술가곡의 최고봉 독일가곡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 등 독일의 대표적 낭만파이자 세기의 위대한 작곡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



■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한국인을 주축으로 하여 세계 8개국 출신의 젊은 최정상급 연주가들로 구성된 세종솔로이스츠
미국 〈CNN〉에서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극찬받은 세종 솔로이스츠 드디어 부산 상륙.

1995년 줄리어드 음악원 강효 교수의 지휘 아래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350회가 넘는 연주회를 가지며
전 세계 청중들을 매료
'보기 드문 응집력' 아름다운 음색, 신선한 연주를 보여주는 최고의 앙상블'
'놀랄 만큼 뛰어난 앙상블, 빛나는 명연주'로 전 세계 언론에서 찬사
2004년 '추수감사절' 특별공연은 CNN을 통해 미 전역에 방영
카네기 홀, 링컨 센터의 앨리스 털리 홀, 케네디 센터, 런던 카도간 홀, 파리 살 가보, 일본 산토리 홀, 중국 베이징 중앙
세기극원, 타이완 국립예술극장 그리고 라비니아의 '떠오르는 스타' 시리즈 등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



■ 2010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0년의 마지막을 수놓을 제야의 특별한 순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눌 감격적인 클래식의 감동!

다사다난했던 2010년의 기억들을 되돌아보며 밝아오는 2011년의 희망찬 시간들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부산문화회관이 선사하는 특별한 음악선물!
제야의 카운트 다운, 소망엽서적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2011년 희망찬 아침을 연다.



※이 공연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사랑의 묘약

G.Donize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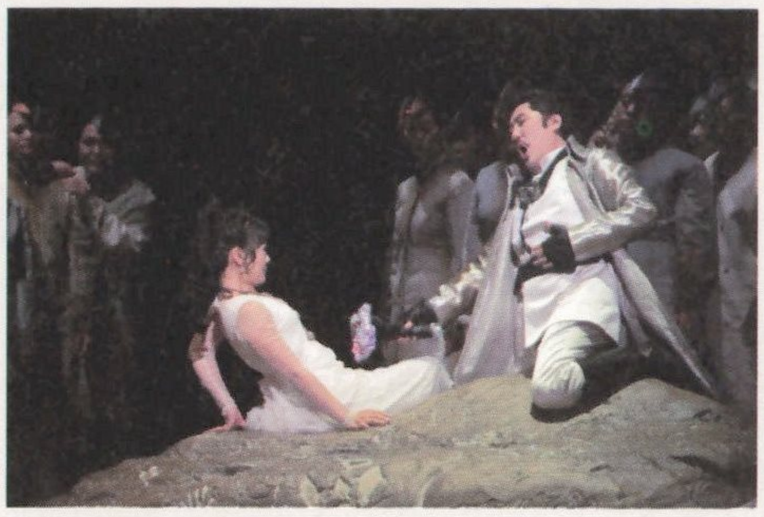
10.15(금) 오후 7:30 / **16**(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연출 이소영　출연 왕기헌 전병호 박대용 성승민 김나정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합창단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MBC 국제신문 KOOKJE SINMOON　주관 | 부산문화회관 국립오페라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8

Contents







10 **커버스토리**

새롭게 탄생한 부산문화의 본당 부산문화회관

14 **프리뷰**

20 **문화가 화제**

제 15회 부산국제영화제

22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24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⑩**

벼가 고개 숙이는 이유 | 정일근

2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in Chicago | 조향숙

30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⑩**

영화 '안나 카레니나' | 이동신

32 **불멸의 거장, 치바이스 ②**

가난한 목수에서 화가로 | 김남희

34 **나의 애청음반**

모차르트의 정수를 담아낸 비엔나필의 레퀴엠 | 김의호

35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

즐거운 부산의 쇼핑 | 다이앤 스틸멍크스

36 **그곳에 가면**

장영실 과학동산

38 **리뷰**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 신설령

라디오는 지역 문화 발전의 원동력 | 남인용

40 **우리는 문화가족**

목련합창단

42 **프로그램 가이드**

60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63 **100자 토크**

예술에의 초대 2010 + 10 Vol·226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9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10 October 201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국제회의장

▶ 부산문화회관 제 4기 문화대학
10월 6일(수)~10월 27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00
10/6일 김갑수(문화평론가)
인생이 의외로 아름다운 이유
10/13일 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자)
연주에서 지휘자의 역할
10/20일 최승욱(문화유산 해설가)
우리문화의 대동소이
10/27일 오동주(성악가)
내 맘의 가곡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46, 6057)

▶ 제3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 대회
10월 9일(토) 오전 9:00~ 오후 3:00
문의 : 국제교류지원단(888-6655)

전시실

▶ 2010 부산남구문화예술회 작품전
10월 7일(목)~10월 10일(일) - 대전시실
※개막식 7일 오후 2:00
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청(607-4064)

▶ (사)한국수석회 전국회원전
10월 16일(토)~10월 18일(월) - 대·중전시실
※개막식 16일 오후 12:00, 국제회의장
문의 : 한국수석회 중앙회장 이갑수
(010-3872-0466)

▶ (사)한국전승도예협회 회원전
10월 20일(수)~10월 28일(목) - 중전시실
문의 : (사)한국전승도예협회(031-632-7454, 011-327-2789)

▶ 제 27회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10월 21일(목)~10월 27일(수) - 대전시실
문의 : 경성대학교(663-4926)

▶ 제 27회 (사)부산광역시 수석연합회 회원전
10월 30일(토)~10월 31일(일) - 대전시실
문의 : 김종복
(516-5080, 010-6572-4679)

▶ 초암 이상백서전
10월 30일(토)~11월 6일(토) - 중전시실
※개막식 30일 오후 5:00
문의 : 이상백(010-2882-5604)

SUN	MON	TUE
10/31 중 오아시스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5주년 기념 연주회 19:00 무료/진두찬(010-5165-5363) 소 Happy Life 정기연주회 18:00 무료/정기정(010-9708-5000)		
3 중 제 4회 오퍼스앙상블 정기연주회-오퍼스앙상블과 함께 하는 최은주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균일 1만원/최은주(010-3592-5697) 소 제 7회 김희선 성악정기연주회-With Friend Concert 17:00 무료/김희선(019-391-7556)	**4** 중 황정미 피아노 독주회-슈만을 조명하다- 19:30 균일 1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소 권마리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마스트미디어(02-541-2512~3)	**5** 소 제 22회 향천회 작품 발표회 19:30 초대/백승태(010-4154-1403)
10 중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31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을 수놓는 깐초네와 아리아의 밤' 19:30 균일 1만원/김태형(010-2339-1973) 소 금잔디 피아노 아카데미 정기연주회 16:00 무료/권현영(010-5514-6586)	**11**	**12** 중 제 28회 부산무용콩쿠르 10:00 KBS부산방송총국 하인자(620-7326) 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연 15:00 초대/부산문화회관(607-6056)
17 중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9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장은정(017-842-6688) 소 부산통기타리스트 제 18회 정기연주회 16:00 무료/남상석(019-402-5880)	**18**	**19** 중 부산시립합창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노래, 그리고 작곡가 이흥렬의 노래를 추억하며…'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4 대 몰도바국립방송교향악단 초청공연 19:3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프로아트(02-585-2934~6) 중 퓨전국악그룹 '아비오! 두번째 중독' 19:30 균일 1만원/윤승환(010-2595-6700) 소 노경희 클래스 연주회 15:00 무료/노경희(011-574-0423)	**25** 대 부산시 구, 군 여성연합합창단 제 8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예금용(018-763-4798) 중 신라대학교 음악과 동문음악회 19:30 초대/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소 코리아색소폰앙상블 초청 김종환 색소폰 독주회 19:30 무료/이성환(011-9873-5404)	**26** 대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천원의 행복' 19:30 균일 1천원/부산문화회관(607-6057) 중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19:30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부산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WED	THU	FRI	SAT
		1 중 2010 이명진 첼로 독주회 19:30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소 마임이스트 김세진 마임 10주년 기념 극단 세진 지니마임페스티벌II 17:00, 20:00 1만5천원·1만원 김세진(623-0678, 010-5530-5041)	**2** 중 제 65회 UN의 날 기념 6·25전쟁 참전국 캐나다 군악대 초청 연주회 15:00 균일 1만원/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888-3536) 소 10월의 멜로디 19:30 초대/강혜인(010-9350-6076)
6 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7**	**8** 대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문화나눔 천원의 행복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3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부산시립극단 제 39회 정기공연 '페드르 Phèdre' 19:30 균일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4 - 10cm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9** 중 부산시립극단 제 39회 정기공연 '페드르 Phèdre' 19:30 균일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토요상설무대-정신혜무용단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13 중 제 28회 부산무용콩쿠르 10:00 KBS부산방송총국 하인자(620-7326) 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4** 중 2010 대학합창 페스티벌-신라대학교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부산 호치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문화공연 19:30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 정대영(888-3546)	**15** 대 부산문화회관 재개관기념 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19:30 6만원·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중 2010 대학합창 페스티벌-경성대학교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부산 호치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문화공연 19:30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 정대영(888-3546)	**16** 대 부산문화회관 재개관기념 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15:00 6만원·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중 2010 대학합창 페스티벌-고신대학교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토요상설무대-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0 중 2010 대학합창 페스티벌-인제대학교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1** 중 2010 대학합창 페스티벌-동아대학교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부산교육연구회 중등음악분과 연주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9:30 초대/이성환(010-7294-5088)	**22** 중 2010 대학합창 페스티벌-동의대학교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제 9회 한새오카리나 정기연주회 19:00 무료/황미경(010-5036-4787)	**23** 대 김정원의 춤 그 여섯 번째 이야기 - 길 19:00 2만원·1만원/김정원(017-567-8071) 중 유엔 평화문화특구 지정기념 부산시민과 다문화 가정 초청 '평화 음악회' 16:00 초대/예솔기획(0505-700-9798) 소 토요상설무대-남성성악앙상블 4+1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7 대 제 28회 부산무용콩쿠르 14:00 KBS부산방송총국 하인자(620-7326) 중 부산시문화상 시상식 16:00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김유진(888-3454) 소 남산놀이마당 타악퍼포먼스 LINE OUT 20:00 무료/김희진(016-378-0992)	**28** 대 2010 부산합창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솔리스트들과 함께하는 가을의 풍경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9** 대 2010 부산합창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중 부산원로음악가회 제 12회 원로음악회 19:00 무료/전이동(010-2705-0366) 소 왕정희무용단의 달오름 19:30 1만5천원·1만원/왕정희(010-7417-0506)	**30** 대 2010 부산청소년합창제 17: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중 뮤즈콘서트콰이어 제 4회 정기연주회 19:00 균일 1만원/추인수(019-503-9693) 소 토요상설무대-시립교향악단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새롭게 탄생한 부산문화의 본당

부산문화회관 새역사를 연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이 10월, 개관 22년 만에 변신을 마치고 부산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총사업비 115억원(설계비 3억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공사에 들어가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된 것. 1988년 개관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개관 이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 부산의 대표 공연장으로 각광받았지만 개관 2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현대적인 공연에 맞는 첨단 공연 시설이 부족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했다.

새롭게 개관하는 대극장은 10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 모습이 공개된다. 재개관이 다가오면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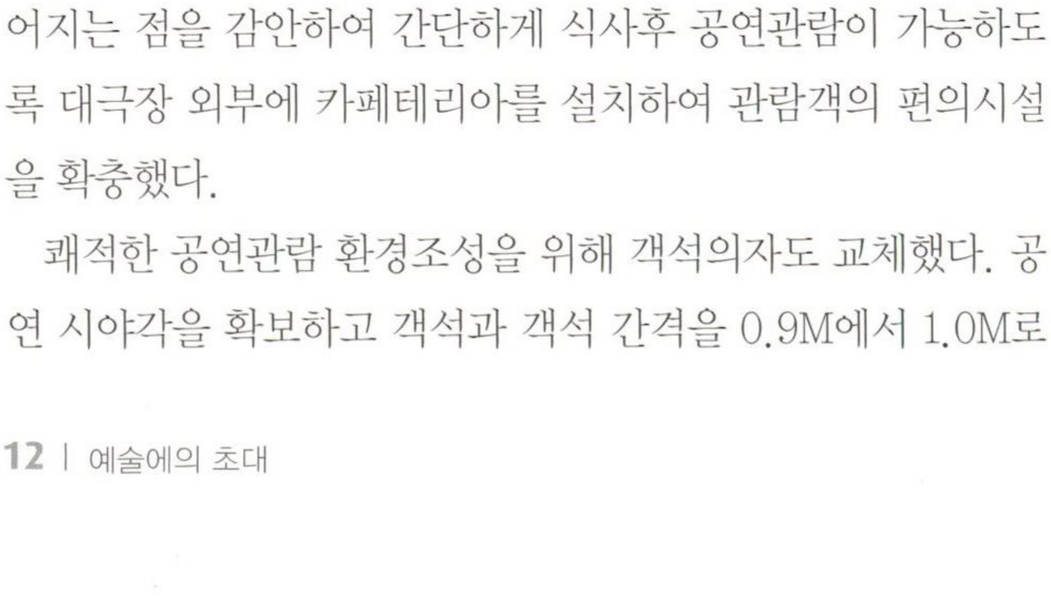
우선 외관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큰 변화는 로비확장으로 인한 전면 유리 벽면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둡고 다소 좁은 로비 공간이 전면과 좌·우측으로 확장(전체 3.5m)되고 전면에는 폭 18m, 높이 11m의 통유리를 설치하여 밝고 친근한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로비로 변신했다. 천장에는 새로운 인테리어 조명이 설치되고 바닥에는 밝은 대리석을 깔았다.

또 대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관객편의를 위해 공연장 시설에 맞는 내부인테리어를 개선하고 늘어나는 여성관객을 위한 여성전용 화장실, 티켓팅부스, 물품보관소, 정기회원 휴식공간, 어린이놀이방이 새롭게 설치된다. 공사 후 로비를 확장하게 되면서 밖에서 기다리며 매표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로비 양쪽에 티켓팅부스를 설치했다. 또 정기회원들은 회원들을 위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2층 로비 모습



1층 객석 배치가 3개 블럭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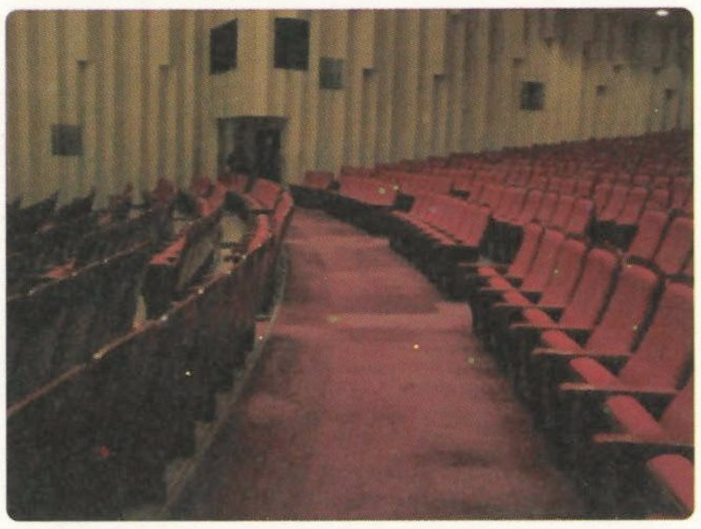
전용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공연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간단하게 식사후 공연관람이 가능하도록 대극장 외부에 카페테리아를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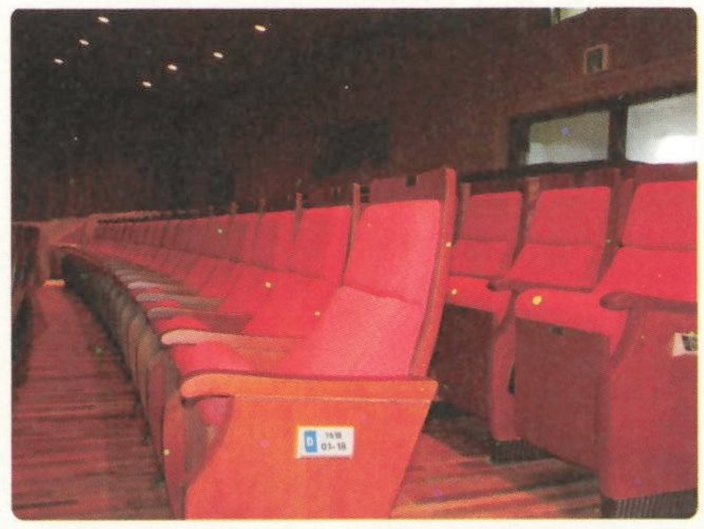
쾌적한 공연관람 환경조성을 위해 객석의자도 교체했다. 공연 시야각을 확보하고 객석과 객석 간격을 0.9M에서 1.0M로 조정하면서 전체 객석수가 1403석으로 변경된다. 1층은 좌석체계가 전체 5개 블록에서 3개 블록으로 달라지고 좌석 번호를 열로 표시하여 연결좌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예: B블럭 5열 14번) 극장 바닥자재는 카펫트에서 마루판으로 교체되었다. 또 공조시설 교체와 공조방식 변경으로 내부 온도 편차가 줄어들고 소음이 감소된다.

첨단 공연시설도 눈에 띈다. 대형공연유치를 위해 프로세니움을 8.5m 높이에서 9.5m 높이로 확장해 대형공연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세트 연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윈치방식의 장치걸이대를 교체했다. 기존 장치걸이대는 중량 300kg에 속도가 18m/분으로 다양한 세트 연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교체된 무대 기계는 1,000kg 중량을 견딜 수 있고 90m/분 속도로 무대 전환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그 외 22년 된 아날로그방식의 음향설비도 디지털로 전환되고 음향 전달을 위한 최신식 음향반사판도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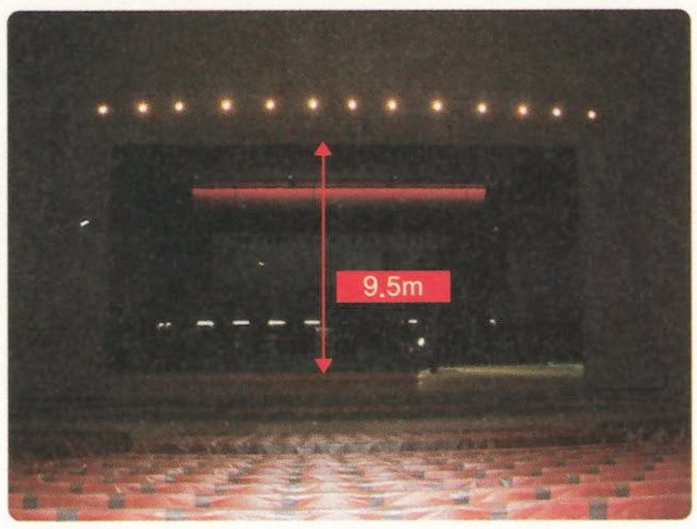
객석간 넓은 간격과 시야각 확보

– 앞뒤 객석 간격 : 1m
– 객석수 : 1,403석
– 통로·바닥 : 원목나무(멀바우)









프로세늄 높이 확장으로 대형 공연 유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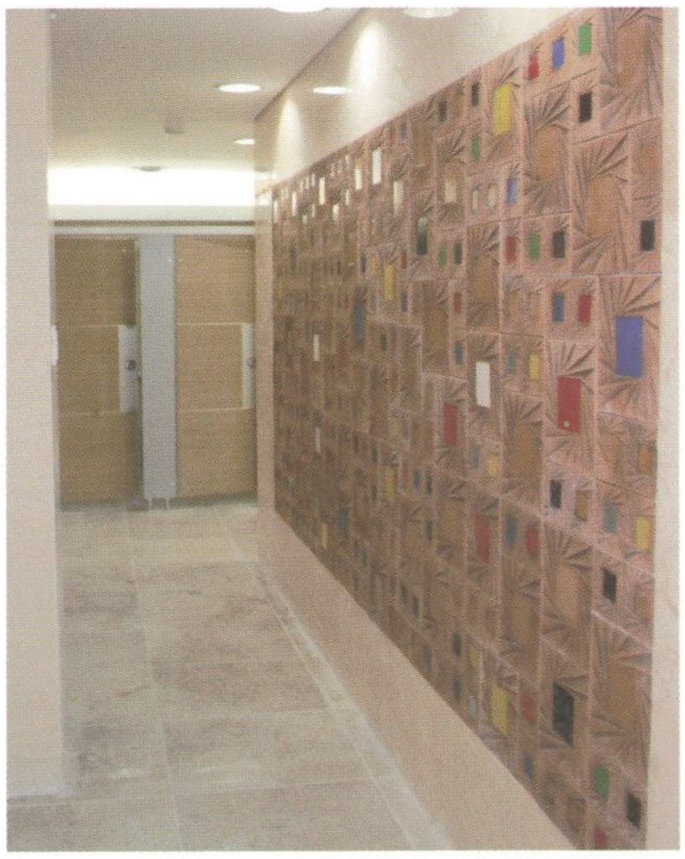
– 높이 9.5m(1m)확장

부산문화회관에서는 10월 대극장 재개관을 기념해 다양한 기획 공연을 개최한다.

10월 8일 재개관 첫 무대의 주인공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히 이번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4회 정기연주회는 '천원의 행복' 무대를 기획, 부산시민들을 특별 초청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세계 무대에서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애니 황이 부산문화회관의 재개관 첫 무대를 열어준다.

기획공연은 10월 15일과 16일 국립오페라단 초청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첫무대를 장식한다. 국립오페라단의 첫 여성연출가 이소영 예술감독이 새롭게 제작한 사랑의 묘약은 뮤지컬적인 요소를 가미한 재미있는 오페라로 지난해 초연공연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 외 10월 26일 장윤성이 지휘하는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11월 5일~6일 러시아 발레의 자존심 마린스키 발레단 초청 발레 '백조의 호수', 11월 27일~28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출연 김법래, 박상원, 박해미, 바다, 방진의 외)', 11월 30일 장사익 소리판 '역', 12월 7일 소프라노 조수미 독창회, 12월 21일 세종솔로이츠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12월 31일 2010 제야음악회 '가는해 오는해'가 펼쳐진다.



1, 2층에 설치된 여성전용화장실 입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3회 정기연주회
문화나눔 천원의 행복

10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피아니스트 애니 황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개관을 기념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3회 정기연주회가 10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무대는 10월 4일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순회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대구, 고양, 대전 순회 연주회를 마치고 돌아와 8일 같은 프로그램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순회연주회의 감동을 다시 전한다.

6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여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개관 첫 무대를 장식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슈베르트다운 쾌활함과 명랑함이 느껴지는 슈베르트 '로자문데' 서곡으로 재개관 첫 무대를 연다.

협연자로는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피아니스트 애니 황이 첫 무대에 선다. 3세부터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애니 황은 올해 20세의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연주자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07년 7월 자를란트 음대에 수석으로 입학, 파리와 베를린에서 Jacques Rouvier 교수를 사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피아노 전공(UdK 베를린)으로 수학중이다.

애니 황은 2003년 '서울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독일 국립음악콩쿠르 'Jugend Musiziert'에서 피아노 독주 및 실내악 부문에서 수차례 1위, 'Jugend Musiziert' 장관상(자를란트 정부 장관상) 1위 및 특별상과 더불어 전국 피아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Grotrian Steinweg 피아노 콩쿠르, 프리드리히스하펜, 린다우 콩쿠르 우승 등 국제적 수준의 저명한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쳐 '뮤직 라이프 독일 재단'의 'Carl-Heinz-Illies-Forderstipendium'의 대학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키예프의 우크라이나 국립심포니, 뷔르츠부르크 마인프란켄 필하모닉, 상하이 심포니, 대만 심포니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지기도 한 애니 황은 대만 심포니와 협연 후 '극동에서 온 아르헤리치'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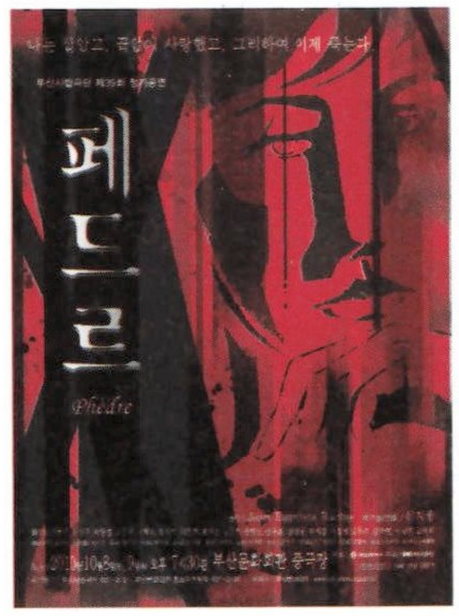
애니 황은 이번 무대에서 쇼팽의 첫 번째 협주곡인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을 들려준다. 1829년 빈에서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쇼팽은 당시 피아니스트가 직접 작곡한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곡을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쇼팽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곡의 라르게토를 쓰는데 그의 첫사랑 콘스탄치아 글라트코프스카(Konstancja Gladkowska)가 영감을 주었다고 밝혔듯이 이 곡에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있다.

2부 무대는 브람스 '교향곡 제 2번'으로 연다. 교향곡 2번은 교향곡 제 1번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롭고 목가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 니만(W.Niemann)은 '브람스 평전'에서 이 작품을 가리켜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이라고 말하고 있다. 색채나 선율에 있어서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으며, 경쾌한 속도감이 전곡을 지배한다. 초연은 작곡이 완성된 해인 1877년 12월 30일 빈에서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이루어졌다.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페드르 Phèdre

10월 8일-9일 금-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선형사 홍윤식으로 1930년대 경성을 재현한 부산시립극단이 10월 연출가 겸 극작가 김지용과 장 라신의 '페드르 Phèdre'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코르네유, 몰리에르와 더불어 프랑스 3대 고전극작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장 라신(Jean Baptiste Racine, 1639~1699)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페드르'는 금지된 사랑에 사로잡힌 페드르의 불꽃 같은 정념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히폴리투스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정념에 사로잡힌 페드르의 심리묘사에 초점을 맞춘 '페드르'는 이성과 정념의 틈바구니에서 몸부림치는 여성의 심리를 운명의 불가항력적 진행이라는 그리스적인 비극의 이념으로 완성시킨 라신 비극의 최고봉이다. 페드르는 프랑스의 공교육 교과서에서 다뤄질 정도로 중요한 작품으로 지금도 프랑스 전역에서 널리 공연되고 있다.

총 12편의 희곡을 발표한 장 라신은 '페드르' 를 비롯해 11편의 비극을 발표해 프랑스 고전주의 비극의 최고 작가로 꼽힌다. 장 라신의 희곡에는 외면적 행동이 거의 없다. 대부분 단일한 등장인물, 즉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에 저항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극심한 정념에 사로잡혀 내적 갈등을 드러내다가 정점에 이르러서는 단숨에 무너져 끝내 종말에 이르는 한 인물의 심리적 갈등에 집중한다. 절대적 왕정 시대인 17세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할 때, 숙명에 대한 인간의 저항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라신은 근대적 정신을 발현한 작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무대의 재구성과 연출을 맡은 연출가 김지용은 지난해 이오네스코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공연에서 부산시립극단의 '지금… 여기!'를 연출한데 이어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춘다. 김지용은 제 1회 부산대학연극제 대상과 연출상을 시작으로 제 23회 부산연극제 희곡상(PLAY_Oasis),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가출소녀 우주여행기), 제 24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희곡상, 연출상(PLAY5_Mankind history),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제 28회 부산연극제 연출상(The solar system) 등을 수상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페드르에 이현주, 페드르가 사랑하는 의붓아들 히폴리투스에는 유성주가 열연한다.

이번 무대는 고대 원형극장의 양식을 그대로 옮겨와 기존 객석을 사용하지 않고 무대 위에 설치한 200여석의 객석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 원작/장 라신
- 재구성, 연출/김지용(부산시립극단 객원연출)

- 관람료 균일 20,000원(관람연령 15세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국립오페라단 초청

사랑의 묘약

G.Donizetti

10월 15일-1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연출 이소영



지휘 리 신차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여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개관을 기념해 10월 15일과 16일 국립오페라단 초청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도니제티의 대표작 '사랑의 묘약'은 프랑스의 인기 극작가 오귀스탱 외젠스코리브의 소설 '미약(媚藥)'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벨칸토 오페라의 전성기 시대인 1832년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초연된 이래 세계 오페라 팬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작곡가 도니제티의 젊은 시절의 자유분방함이 음악에 녹아들어 그의 인간적이고 천진한 면이 특히 잘 나타난다.

이번에 선보이는 '사랑의 묘약'은 지난해 국립오페라단의 이소영 예술감독의 연출로 새롭게 제작된 작품으로 관객들의 기대가 크다.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최고의 성악가들과 국립오페라단 단원, 울산시립합창단이 함께 즐겁고 유쾌한 사랑의 묘약을 열어준다.

작품의 무대는 이탈리아 바스크 마을. 순진하고 성실한 시골 청년 네모리노는 짝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여인 아디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약장수에게 속아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으로 알고 마시게 된다. 오페라는 네모리노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에피소드들이 재미있게 전개된다. 특히 스피디한 희극의 전개속도와 재치 넘치는 등장인물들이 시종일관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한 편, 웃음 사이사이에 흐르는 우아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은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이들까지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사랑의 묘약' 제 2막에서 아디나가 네모리노를 잃어버렸다는 불안감에 눈물 흘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인공 네모리노가 부르는 사랑의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서정적이면서 슬픈 단조 멜로디로 특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소영 표 '사랑의 묘약'은 기존 작품과는 많이 다르다. 이탈리아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원작을 둥근 백자 형태의 행성, 시계와 야구공 모양의 위성, 달이 공존하는 동양적인 우주로 확장해 풀어냈다.

그 외 익숙한 설정을 뛰어넘어 온갖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오페라의 재미를 살려냈다. 수수하게 등장한 농부들의 차림새를 해학적으로 표현하였고, 총명한 아디나의 모습은 바위 위에서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네모리노의 라이벌 벨코레 장군은 마차대신 하늘에서 탱크를 타고 날아오고 사기꾼 약장수 둘카마라는 투명 우주선을 타고 등장한다. 자막역시 극의 새로운 배경 설정에 맞춰 시대감각에 맞는 유머러스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해학적인 오페라의 묘미를 살렸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왕기헌이 사랑스러운 여인 아니다로, 테너 전병호가 네모리노, 바리톤 박대용이 벨코레 장군, 베이스 성승민이 둘카마라로, 소프라노 김나정이 쟌네타로 열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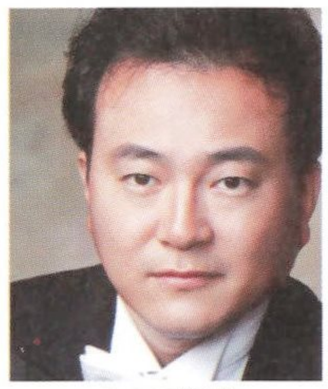
- 예술감독 겸 연출/이소영
- 오케스트라/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리 신차오)
- 합창/국립오페라단, 울산시립합창단

주요 아리아

- *Quanto bella!* 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 *Chiedi all'aura lusinghiera* 미풍을 잠재워주오
- *Udite, Udite, O rustici* 들어봐요, 들어봐요. 오! 농부여
- *Cantiamo, facciam' Brindisi* 자, 노래와 축배를!
- *Io son ricco, tu sei bella* 나는 부자이고, 당신은 아름다워요
- *Una furtiva lagrima* 남몰래 흐르는 눈물
- *Prendi, pre me sei libero* 당신은 이제 나로 인해 자유의 몸이예요
- *Eterno amor* 영원한 사랑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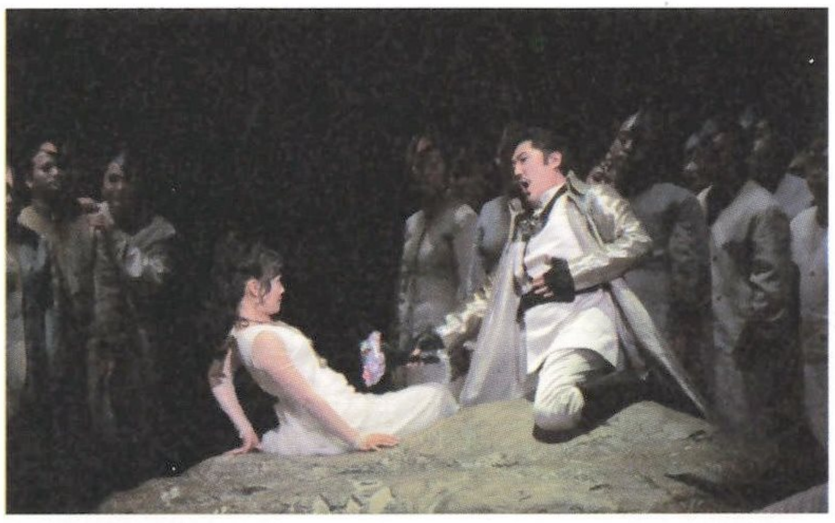

소프라노 왕기헌


소프라노 김나정


테너 전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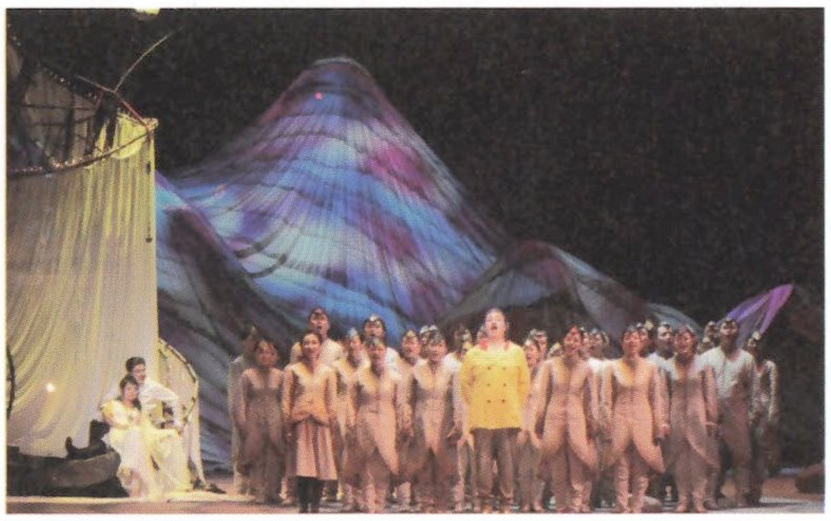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성승민









• 관람료 R석 60,000원·S석 50,000원·A석 40,000원·B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가을의 노래, 그리고 작곡가 이흥렬의 노래를 추억하며…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석지휘자 김강규

고즈넉한 가을서정을 담은 부산시립합창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노래, 그리고 작곡가 이흥렬의 노래를 추억하며…'가 10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무더운 여름으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우리 가곡으로 정화시켜줄 이번 무대는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노래한 우리 가곡과 작곡가 이흥렬의 노래를 추억하는 무대로 특별한 가을 무대를 연다.

전반부 무대는 가을을 노래한 우리 가곡들을 '가을의 기도' '가을 풍경' '풍성한 가을' 3개 스테이지로 소개한다. '가을의 기도' 스테이지에서는 '가을의 속삭임' '가을엽서(정일근 시, 최영섭 곡)'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풍경' 스테이지에서는 '배내골 단풍(오민필 시, 이수인 곡)' '아! 가을인가(김수경 시, 나운영 곡)', '풍성한 가을' 스테이지에서는 '강강수월래(이동주 시, 이화정 곡)' '풍년잔치(임긍수 시, 곡)'로 축복받은 계절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릴 수 있는 가을풍경을 노래에 담아낸다.

후반부 무대는 작곡가 이흥렬의 곡으로 꾸며진다. 이흥렬(1909~1980)은 '코스모스를 노래함' '섬집 아기' '자장가' '바우고개' 등 주옥같은 명곡으로 우리나라 가곡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주인공이다. 특히 이흥렬은 깨끗하고 담백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가곡들을 발표해 '한국의 슈베르트'로 불리기도 한다. 함경도 원산에서 태어난 이흥렬선생은 일본 동양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1931년 귀국한 후 1934년 처녀 작품집 '이흥렬작품집'을 출간하고 오랜 세월 우리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예술가곡, 국민가요, 동요 등 400여곡의 곡을 발표했다. 25세에 작곡한 '바위고개'는 일제의 탄압에 신음하던 조국산천을 바위고개로, 무궁화꽃을 진달래에 비유해 민족의 울분을 노래에 담아낸 명곡으로 애틋한 가사와 선율 때문에 지금도 널리 애창되고 있다.

이번무대에서는 고(故) 이흥렬선생의 아들인 영남대학교 이영수교수와 한국예술영재 교육원 이영조교수가 바위고개, 어머니의 마음, 고향 그리워, 옥잠화, 꽃구름 속에, 코스모스를 노래함, 섬집 아기 등 선생의 대표곡들을 편곡, 부산시립합창단과 특별한 무대를 열어준다.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관람료 R석 10,000원·S석 7,000원·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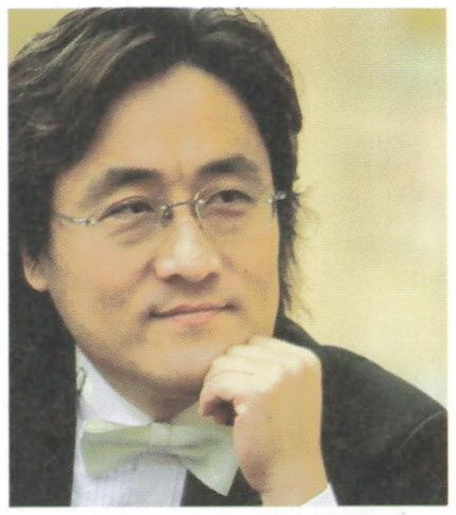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천원의 행복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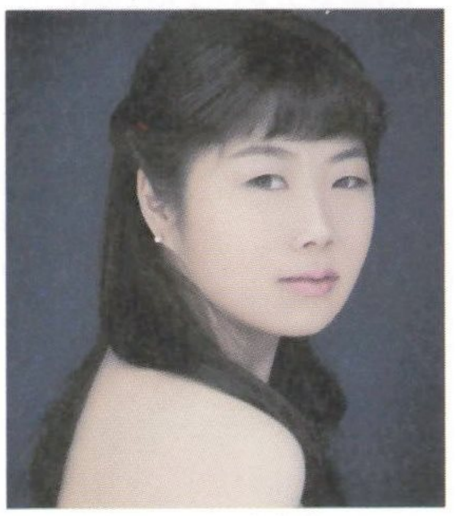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개관을 기념하는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가 10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5월 부산문화회관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체결한 문화예술교류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첫 교류공연으로, 10월 6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초청공연에 이어 26일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개관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첫 교류연주회를 기념해 '천원의 행복' 무대로 부산시민들에게 대전시립교향악단의 화려한 클래식 선율을 선사한다.



예술감독, 상임지휘자 장윤성



피아노 김혜진

아시아와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세계적인 지휘자 장윤성이 지휘하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은 정상급 연주력과 뛰어난 기획력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은 특히 2004년 카네기홀을 비롯한 최첨단 홀 등에서 가진 '미주순회연주', 2005년 일본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 공연을 통해 세계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클래식 초보 입문자를 위한 디스커버리 시리즈에서는 유쾌한 음악 탐험, 세계의 댄스음악,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악기들의 올림픽, 퀴즈로 푸는 음악회, 음악과 자연, 음악으로 풀어가는 동화, EQ-UP 콘서트 등 클래식 음악의 이해를 돕는 요소들을 과감히 도입하여 청중을 위한 오케스트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

2009년 8월부터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지휘자 장윤성은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열린 제 1회 프로코피에프 국제콩쿠르(1st Prokofiev International Competition), 도쿄 국제지휘콩쿠르(Tokyo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onducting) 등에서 수상하면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주회에서 대전시립교향악단은 드보르작 '카니발서곡 작품 92', 피아니스트 김혜진이 협연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11번 사단조 작품 103'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제 15회 부산국제영화제

10월 7일(목) ~ 10월 15일(금)

해운대 야외상영장, 해운대 메가박스 · CGV · 롯데시네마, 대영시네마



아시아최고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7일 영화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2010 부산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67개국 308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올해 상영작품 중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는 103편, 자국 외 최초상영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52편으로 역대 최다이다. 특히 경쟁부문인 '뉴커런츠'와 '플래시 포워드' 상영작 전편은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부산국제영화제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개막작은 세계적인 감독 장이모우의 신작 '산사나무 아래'. '산사나무 아래'는 그동안 대작 위주로 작품활동을 해왔던 장이모우 감독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소박한 작품으로, 문화혁명기를 배경으로 한 연인들의 절절한 사랑을 담고 있다. 폐막작으로 선정된 '카멜리아'는 위시트 사사나티엥, 유키사다 이사오, 장준환 등 태국, 일본, 한국의 주목 받는 감독 3인이 모여 만든 옴니버스 영화로, '사랑'을 주제로 한 세 감독의 이야기가 부산을 배경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역시 세계적 거장의 화제작을 상영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아시아의 젊고 유망한 감독들의 신작들을 소개하는 '뉴커런츠', 한국영화를 집중 조명하는 '한국영화의 오늘', 주목받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와이드 앵글' 등 다양한 섹션으로 관객들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거장과 영화스타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영화팬들을 더욱 설레게 한다. 프랑스 최고의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와 영국의 제인 마치, 중국의 탕웨이와 일본의 인기배우 미야자키 아오이와 아오이 유 등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또 이란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과 미국의 올리버 스톤, 중국의 장이모우, 스페인의 카를로스 사우라, 일본의 유키사다 아사오 등 세계적인 감독들도 자신의 작품과 함께 관객들과 만난다.

개, 폐막작 예매는 9월 27일부터, 일반 예매는 29일부터 영화제 홈페이지(www.piff.org)를 통해 시작되고, 영화제 기간 동안 임시매표소에서는 상영당일 해당 상영관 좌석수의 20%를 현장판매한다.

■ 갈라 프레젠테이션

세계적 거장의 신작이나 화제작, 월드프리미어 등을 소개하는 '갈라 프리젠테이션'은 올해 9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란)의 걸작 '증명서'를 비롯해 '가족'을 주제로 한 장초치 감독(대만)의 최고 수작 '사랑이 찾아올 때', 사랑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허안화 감독(홍콩)의 '사랑에 관한 모든 것', 동일한 작품을 타밀어와 힌디어 두 편으로 만든 마니 라트남 감독(인도)의 야심작 '라아바난'과 '라아반', 불경의 상징인 소를 통해 구도자의 길과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임순례 감독(한국)의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놓는 독특한 러브스토리 이서군 '된장', 불행한 현실 속에서의 사랑의 열정을 그린 김태용 감독(한국)의 '만추', '돈'을 향한 탐욕과 배신, 복수를 그린 올리버 스톤 감독(미국)의 최신작 '월 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 등이 관객과 만난다.

■ 아시아 영화의 창

올해 총 55편의 작품이 소개되는 '아시아 영화의 창'에서는 특히 아시아의 젊고 유망한 감독들의 신작들이 대거 초청됐다. 더불어 데뷔작을 통해 주목받았던 감독들이 더욱 진화된 두 번째 작품으로 관


미이케 다카시 '13인의 자객'

객들을 찾으며, 최근 들어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필리핀과 대만의 영화들도 다수 선보인다.

■ 뉴커런츠

재능 있는 아시아 신인 감독을 발굴하기 위한 경쟁부문으로, 총 13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올해 젊은 감독들은 빈곤과 전쟁으로 인한 폐해, 고령화와 개발로 인한 전통적 가치의 붕괴, 소외된 삶의 문제 등 동시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작품속에 담았다.

■ 한국영화의 오늘

올해 한국영화의 특징은 '폭력'에 대한 성찰. 영화 '돌이킬 수 없는' '개같은 인생' '아저씨' '이끼' '의형제' '시' '평범한 날들' '려수' '시선 너머'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폭력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 한국영화 회고전

한국 영화사상 가장 치명적인 팜므파탈을 연기한 여배우로,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 영화계의 여왕으로 자리한 영화배우 김지미를 새롭게 재조명한다. 영상자료원 발굴에 의해 복원된 신상옥 감독의 1955년 작 '꿈'과 올해 디지털로 복원된 1960년대 대표작 중 하나인 이형표 감독의 '서울의 지붕밑'을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월드시네마


마치에이 슬래시츠키 '3분'

전 세계 75편의 작품이 소개되는 '월드시네마'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하고 인간과 사회, 예술에 대한 고민과 영화적 환상을 펼쳐보인다. 특히 올해는 세계 영화계를 놀라게 한 중남미 영화의 저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러시아 영화의 선전도 올해의 주목할 만한 특징. 한-러시아 수교 20주년을 기념해서 다섯 편의 러시아 영화가 초대됐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영화의 강세가 돋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아프리카 우간다 프리미어로 날아온 작품도 5편이 선보인다.

■ 와이드 앵글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들로, 한국단편 경쟁, 아시아단편 경쟁, 단편 쇼케이스, 다큐멘터리 경쟁,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애니메이션 쇼케이스 등으로 나뉘어 상영된다.

■ 오픈시네마

우얼샨 감독(중국)의 재기발랄한 블랙 코미디 '푸주한, 요리사, 그리고 검객', 일본판 '로미오와 줄리엣'인 히로키 류이치 감독(일본)의 '번개나무', 2008년 데뷔작 '100'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크리스 마르티네즈(필리핀)의 좌충우돌 소동극 '내 신부 찾아줘요', 이탈리아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는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인 카를로 마자쿠라티 감독(이탈리아)의 '어느 감독의 수난' 등 7편이 관객을 찾는다.

■ 플래시 포워드


벨린다 차이코 '루'

비아시아권의 감독 발굴을 위한 경쟁부문인 '플래시 포워드'에서는 총 11편이 소개된다. 올해 플래시 포워드를 관류하는 키워드는 '성장'. 치매 할아버지와의 '위험한 교감'을 통해 한바탕 성장통을 치르는 손녀 루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 '루'와 영국산 판타지 성 코믹 드라마 '올리 케플러의 세계는 팽창 중', 유대인 박해와 신앙의 문제를 소년의 시점으로 제기하는 문제의식 강한 성장영화 '론도' 등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특별기획 프로그램

세계열강과 주변국의 탄압과 폭력속에서도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쿠르드족의 영화를 소개하는 '쿠르드 시네마, 지배당하지 않는 정신', 한국과 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스페인 영화 특별전 '전복의 상상, 상상의 전복:프랑코 정권기 스페인 걸작전', 우리의 굴곡진 근·현대사와 닮은 체코의 근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을 세심한 시선으로 관찰한 '체코 영화는 지금:자유주의의 영화', 지난 5월 생을 마감한 청춘 멜로의 대표적인 감독 故 곽지균 감독을 기리는 추모전 '청춘 멜로의 초상' 등 모두 4개의 기획 프로그램이 상영된다.

■ 미드나잇 패션

지루하지 않아야 한다는 '미드나잇 패션 정신'은 올해도 계속 된다. 스릴러, 액션, 그리고 미드나잇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슬래셔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 12편이 소개된다.

■ 관람료 : 개·폐막작, 미드나잇 패션 10,000원 · 일반상영작, 야외상영작 5,000원
■ 문　의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1688-3010, www.piff.org)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는 시민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철 형



가을의 문화계는 가을 들녘의 풍성함 못지 않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넘쳐난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세계불꽃축제, 부산비엔날레 등 문화행사가 집중되는 10월은 그래서 그 즐거움이 더 크다.

즐거운 문화세상을 꿈꾸는 부산광역시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는 여느 해와 다른 특별한 10월을 맞는다.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 영상, 체육, 관광 등 소관 업무가 넓어서 10월은 더욱 바쁘겠지만 많은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즐겁습니다."

이철형 국장은 하루하루를 쪼개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챙겨야 하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국 가족들의 땀과 열정으로 부산의 문화 예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는 직원들과 함께 10월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1983년 제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철형 국장은 부산시 기획관, 부산시 동래구 부구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행정개발본부장 등 부산시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무관 시절인 1990년대 초 2년 3개월간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했던 이철형 국장은 부산문화회관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그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소극장 건립 업무를 직접 진행했던 주인공이다. 또 부산문



화회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토요상설무대가 당시 그의 열정으로 탄생되었다.

"1991년 소극장을 개관하면서 운영방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산지역의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없어 소극장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토요상설무대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상설무대는 1992년부터 매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린 첫 상설공연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들에게 그윽한 문화의 향기를 전해왔다. 20년 만에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그의 애정과 열정, 추진력을 기억하는 문화 예술인들이 이철형 국장의 문화체육관광국 재입성에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의 추억도 많다. 후쿠오카시와의 행정협정 체결 2주년을 기념하여 1991년 5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후쿠오카 공연을 성사시켰던 일, 1996년 후쿠오카시 파견 근무시절에는 대마도 아리랑 마츠리 행사를 다녀오는 길에 후쿠오카 공연을 하고 싶다는 시립예술단의 제안을 받고 짧은 기간 안에 후쿠오카시의 협조를 끌어내고 일본의 민간기관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아크로스 홀 공연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철형 국장은 당시 열정적인 무대를 열어준 단원들과 즐거워하던 교민, 일본 청중들의 모습에서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10월 15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부산문화회관이 수준 높은 작품들이 끊이지 않는 부산 문화의 본당이 되기를 누구보다 소망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시설인 부산문화회관이 그동안 시설 미비로 미스 사이공과 같은 대형 뮤지컬 공연을 하지 못해 문화정책의 책임자로서 참으로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우리 부산문화회관이 부산 문화를 선도하는 중추 공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철형 국장은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을 계기로 앞으로 문화시설 개선과 새로운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두레라움'이 완공된다.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레라움은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 뮤지컬 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84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과 작품성 있는 영화를 상영하게 될 소극장, 사계절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과 작품을 상영하게 될 4,0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내년 초 문을 열게 되는 부산예술회관에도 240석 규모 소극장이 새롭게 들어선다. 또 4,000석 규모 Bexco 오디토리움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산진구 연지동 시민공원 내 대·중·소극장과 전시실, 야외 공연시설 등을 갖춘 국립극장 유치와 롯데그룹과 함께 북항 재개발 지역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사하구에는 제 2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정책의 초점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의 육성입니다."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참여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온 이철형 국장은 시민이 관객이나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아마추어 예술 동호인들이 각 장르별로 그간 쌓은 기량을 지역 문화회관 등에서 발표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문화예술교육과 문화 복지 사업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예술인들에게는 언제나 환영받는 그이지만 바쁜 업무를 핑계로 가정에는 소홀한 가장인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 비록 아마추어지만 무대에도 오를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갖춘 부인 한금숙 씨의 춤과 엄마의 예술적 재능을 이어받아 대학 동호회에서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는 둘째아들 돈휘의 후원이 크다. 몇 해 전 부터 이철형국장도 색소폰을 배워 틈틈이 불고 있다.

요즘은 모든 장르 예술이 다 새롭고 관심이 간다. 부산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의 열정이 단비가 되어 시민들과 함께 풍성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싶다.(글/백경옥)

벼가 고개 숙이는 이유

정일근 _ 시인, 경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진/정일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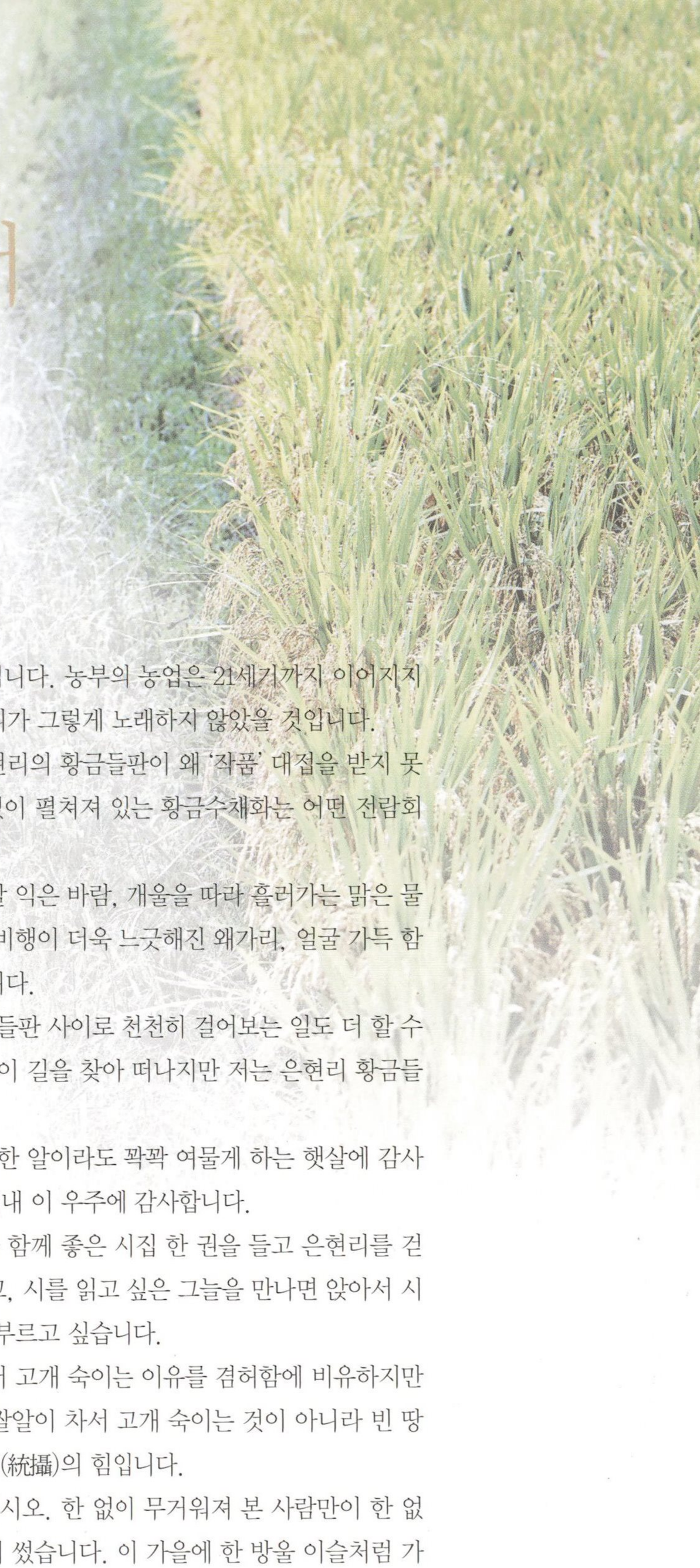
'통섭'(統攝)이란 말로 은현리의 시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통섭은 '전체를 도맡아 다스리는 것'이란 뜻입니다. 저는 은현리에서는 시월이 일 년 열두 달을 통섭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주까지 통섭(統攝)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시월에 당도해서야 한 해가, 은현리가 가장 풍성하고 겸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풍성함에 겸허함을 더한 것이 자연의 통섭(統攝)이 가르치는 순리며 순명일 것입니다.

시월은 벼가 익어 수확을 하는 계절입니다. 단지 벼가 익어 황금들판을 만드는 것만 보는 사람은 농부의 피 같은 땀의 노동을 알지 못합니다. 벼가 익어가는 황금들판, 그건 농부가 피로 쓴 '서사시'이며 땀으로 연주하는 '장엄교향곡'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할 줄 알아야 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논을 갈고 모를 찌는 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벼와 농부는 쉼 없이 대화를 나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누었습니다. 그 대화가 없었다면 벼는 익지 못했을 것입니다. 농부의 농업은 21세기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여름 내내 제 작은 창가에서 개구리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맑은 가을 햇살 속에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은현리의 황금들판이 왜 '작품'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화가 납니다. 은현리에서 고연리로 경계 없이 펼쳐져 있는 황금수채화는 어떤 전람회보다 감동적입니다.

황금들판만 작품이 아닙니다. 요즘의 하늘과 구름, 잘 익은 바람, 개울을 따라 흘러가는 맑은 물소리, 개울가에 무더기로 별 사탕처럼 피는 고마리 꽃, 비행이 더욱 느긋해진 왜가리, 얼굴 가득 함박꽃이 터지는 농부의 얼굴까지도 그 전람회의 작품입니다.

단풍을 보는 일도 가을의 즐거움이지만, 은현리 황금들판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일도 더 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올레길이니, 둘레길이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떠나지만 저는 은현리 황금들판길을 걷는 길만으로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걸으며 이 위대한 시월의 통섭(統攝)에 감사합니다. 한 알이라도 꽉꽉 여물게 하는 햇살에 감사합니다. 벼에게 감사합니다. 농부에게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 우주에 감사합니다.

시월에는 당신을 은현리로 초대할까 합니다. 당신과 함께 좋은 시집 한 권을 들고 은현리를 걷고 싶습니다. 맨발로 걷고 싶은 길을 만나면 맨발로 걷고, 시를 읽고 싶은 그늘을 만나면 앉아서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시간을 만나면 함께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벼가 익어 고개 숙이는 이유를 겸허함에 비유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벼는 시월의 철학자입니다. 쌀알이 차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빈 땅 빈 손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이 통섭(統攝)의 힘입니다.

당신도 이 가을 무거워지려면 저의 초대에 응해주십시오. 한 없이 무거워져 본 사람만이 한 없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은현리 시편에 썼습니다. 이 가을에 한 방울 이슬처럼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우주의 무게로 무거워져야 한다고.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립다는 마음을 내보이지도 않겠습니다. 기다렸다는 인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삶에서부터 가벼워져서 돌아가길 바랍니다.

사는 일이, 힘든 또 한 해를 견디는 것이 이 가을에 벼들의 사유처럼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욕심 없이 돌아갈 줄 아는 것들만이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은현리 들판처럼.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in Chicago

조향숙 _ 미국통신원, 부산·시카고 자매도시 위원



지난 8월 21일 토요일 아침 10시, '시카고 국제자매결연위원회(Chicago International Sister Cities)' 위원들 그리고 미 중서부 부산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시카고 오헤르 국제공항(Chicago O'Hare International Airport)에 나갔다.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시카고 자매도시 축제(Chicago International Sister Cities Festival)'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을 맞기 위해서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시카고 자매도시 축제'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 세계 28개 도시가 참가해 성대하게 펼쳐졌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시카고를 찾는 반가운 손님들. 한참을 기다리니 반가운 얼굴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온다. 홍기태 수석안무자를 비롯해 22명의 부산사람들을 시카고 공항에서 직접 보자 감격스러움이 밀려온다. 환영의 마음을 전하고자 홍기태 안무자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미리 대기해 놓은 버스에 부산에서 가져온 무용 소품을 싣고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한식당으로 향했다. 긴 비행시간에 지친 단원들에게는 무엇보다 국물이 있는 한국음식이 최고일 것이라는 귓띔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귀띔이 제대로 들어맞았다. 한국사람들은 '밥힘'으로 산다고 했던가. 밥과 국으로 시카고에서의 첫 식사를 하며 4박 5일간의 장정에 대비한 힘을 축적했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글렌뷰(Glenview)에 있는 윈덤(Wyndham)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솔직히 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공연에 대한 온갖 걱정으로 계속 긴장하다 보니 스스로도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 들었다. 첫째날 있을 시카고 한국 교민들을 위한 공연 티켓은 이미 매진되었지만 티켓을 예매하고도 오지 못할 만약의 분들을 고려해 입장권의 약 20%를 더 판매했다. 그러나 공연장측에서 470명 이상은 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혹시나 좌석수가 부족해 공연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도착 다음날인 8월 22일 일요일, 첫 공연이 열렸다. 아침 일찍 무대조명 구상을 위해 홍기태 안무자와 함께 공연이 열리는 장소인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학교 오디토리움(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 Auditorium)으로 갔다. 조명 기술자와 함께 세심하게 조명점검을 마친 홍기태 안무자는 23일 공연의 무대도 미리 점검하기 위해 다음 공연장소인 시카고 시내의 밀레니엄 파크(Millennium Park)로 발길을 옮겼다.

23일 열리는 '시카고 자매도시 축제'의 개막축하공연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의 시카고 방문이 성사되었다. 이번 부산시립무용단 초청에는 '시카고 국제자매결연위원회'의 노력이 매우 컸다. 밀레니엄 파크에는 아직 무대설치가 끝나지 않아 간단히 무대 스케치만 하고 다시 첫 공연장소인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학교 오디토리움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그 때부터 내가 해야만 할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공연을 알리는 배너광고를 공연장 주변 잘 보이는 곳에 부쳐두고, 두 곳에 리셉션 장소를 마련했다. 또, 테이블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부산시보'를 펼쳐놓았다. 부산시보를 발행하는 부산미디어센터에서 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이 곳으로 부쳐주고 있어 부산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전해주고 있다. 특히 영어판도 있어서 부모님의 고향이 부산인 2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날 테이블에 비치된 부산시보는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한 부도 남아있지 않아 다시한번 그 인기를 실감했다.

공연시간이 가까워져 오면서 티켓을 손에 쥔 사람들이 한 두명씩 모여들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연장자 아파트에 함께 모여 사는 부모님들은 미리 준비된 버스를 타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장에 도착해 입장을 시작했다. 공연장은 금방 사람들로 꽉 찼고, 다행히도 학교측의 배려로 서서도 관람을 할 수 있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환영사, 축사, 인사말이 끝나고 드디어 공연 시작. 무대에 안개가 쏴악 뿜어져 나오면서 첫 장면부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사실 이 장면의 안개는 미리 준비되지 못해 추가로 예산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안개가 무대에 쫙 깔리자 내 옆에 앉았던 백남흥 위원장님과 함께 "170불 더 투자하길 정말 잘 했다"며 킥킥 웃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공연시간 120분 동안 7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천하태평지무, 춘접무, 설장고춤, 흥부VS 놀부, 부채춤, 동래학춤, 천지현황…. 한 작품, 한 작품 모두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한국인의 희, 노, 애, 락을 만끽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멋있는 한국무용을 보니 모든 관객들이 감동해 공연 중간중간에도 박수가 끊이질 않았다. 나도 얼마나 박수를 많이 쳤는지 모른다. 팔뚝에 소름이 돋는가 하면 눈물이 나오기까지 했다. 한국무용

의 그 아름다운 선과 장단을 어느 민족의 춤과 비교할 수 있으랴!! 부산이 고향인 것이 그 날만큼 흐뭇했을까!!

지난 2007년 처음 부산과 시카고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을 때, 시카고문화센터(Chicago Cultural Center)에서 열렸던 자매결연식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날 허남식 시장님을 만났을 때는 마치 부용동에 살고 계시는 우리 외삼촌을 뵌 듯 너무 기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그 때 '부산향우회'를 결성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에 숨도 안쉬고 바로 '뭐 하까예?'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이 날을 계기로 지금까지 부산향우회와 시카코, 부산 자매결연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에는 41명의 시카고예술대학(The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졸업생과 대학원생들의 작품 72점으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SAIC+DCB'라는 타이틀의 전시회를 열었다. 1985년 고향 부산을 떠난 후 처음으로 가져 보는 전시였다. 그리고 이제는 시카고에서 펼쳐지는 부산의 문화예술 공연을 보며 내 고향 해운대 바다가 한층 더 가까이 느껴졌다.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를 황… 천지현황을 휘날레로 무대의 막은 내려 지고 공연내내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한 관객들은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냈다. 감사인사를 하러 무대에 올라간 나는 관중들에게 물어보았다. "즐거우셨습니까?" 모두들 크게 대답한다. "네에……" 하고.

그 한마디에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까마득히 지워지고 공연을 준비하고 무사히 마친데 대한 보람이 용두산공원 탑보다 더 높게 떠오른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공연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게 해 주어서 고맙다", "시카고에서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처음 보았다"는 등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 감사의 인사말에 대답하느라 바쁘기만 했다. "고맙슴미더" "감동이지예?" 즐겁게 인사하는 내 옆에서 홍기태 안무자도 TV방송과 인터뷰하느라 바빴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피곤함도 잊었다. 다음날 밀레니엄 파크에서 있을 공연 역시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시카고는 모두 2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시카고가 1960년 폴란드 바르샤바와 처음으로 국제자매결연을 맺기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시카고 자매도시 축제'가 열렸던 댈리 플라자(Daley Plaza)에서 밀레니엄 파크로 공연장소를 옮겨 열리는 듯 했다. 밀레니엄 파크는 조각가 아니시 카푸어(Anish Kapoor)의 유명한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라는 작품이 있으며 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시카고



▲ 시카고 자매도시축제 개막공연을 장식한 부산시립무용단. 무대가 좁아 반 이상의 단원들이 바닥에서 공연했다.



▲ 부산시립무용단이 부산의 다이나믹한 예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 시카고 자매도시 축제를 빛낸 부산시립무용단의 모습

시내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밀레니엄파크는 시카고의 여러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어 곳곳에 그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다음날 드디어 두 번째 공연이 밀레니엄 파크에서 열렸다. 시카고 미국 촌분들이 언제 이런 작품을 보겠냐는 생각에 우리의 도시 '부산'을 확실히 부각시키기 위해 사회를 맡았던 윤예서 씨에게 계속 '부산'을 되뇌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말끝마다 '부산 부산'한다. 홍기태 안무자는 좁은 무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대 바깥의 평지를 무대로 연결시키는 듯 바닥에도 무용단 단원들을 배치시켜 작품의 크기를 확대해 버렸다. 전문가로서의 순간적인 대처 순발력! 감탄 그 자체이다.

공연이 끝나고 나자 예정에도 없던 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시카고 Daley 시장님이 다음날 행사에 참석하니 다시한번 공연을 해달라는 부탁이다. 다음날, Daley 시장님 앞에서 또다시 '천지현황'을 무대에 올렸다. 멀리서 Daley 시장님이 어떻게 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으니 발로 장단을 맞추며 흥겨워 한다. 공연이 끝나자 역시나 예상대로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온다. 훌륭한 공연에 고맙다는 인사말이 계속 되자 이 행사를 위해 애썼던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흐뭇해 했다.

사실 예정에 없던 시카고시의 요청에 관광일정을 포기하고 흔쾌히 응해준 부산시립무용단에게 이 지면을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이 날 공연 후에는 허철 시카고 총영사님 초청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부산향우회 이애련 이사의 도움으로 110층을 자랑하는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Willis Tower)를 방문했다. 시카고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계에서 유명하다. 그 건축물 중 하나인 윌리스 타워는 예전에 '시어스 타워(Sears Tower)'라 불렀는데, 가장 윗층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특히 밤에 보면 마치 금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만찬을 위해 우리 집으로 온 나는 단원들과 일리노이 끝에 있는 퀸시(Quincy)의 농장에서 주문해온 포도주로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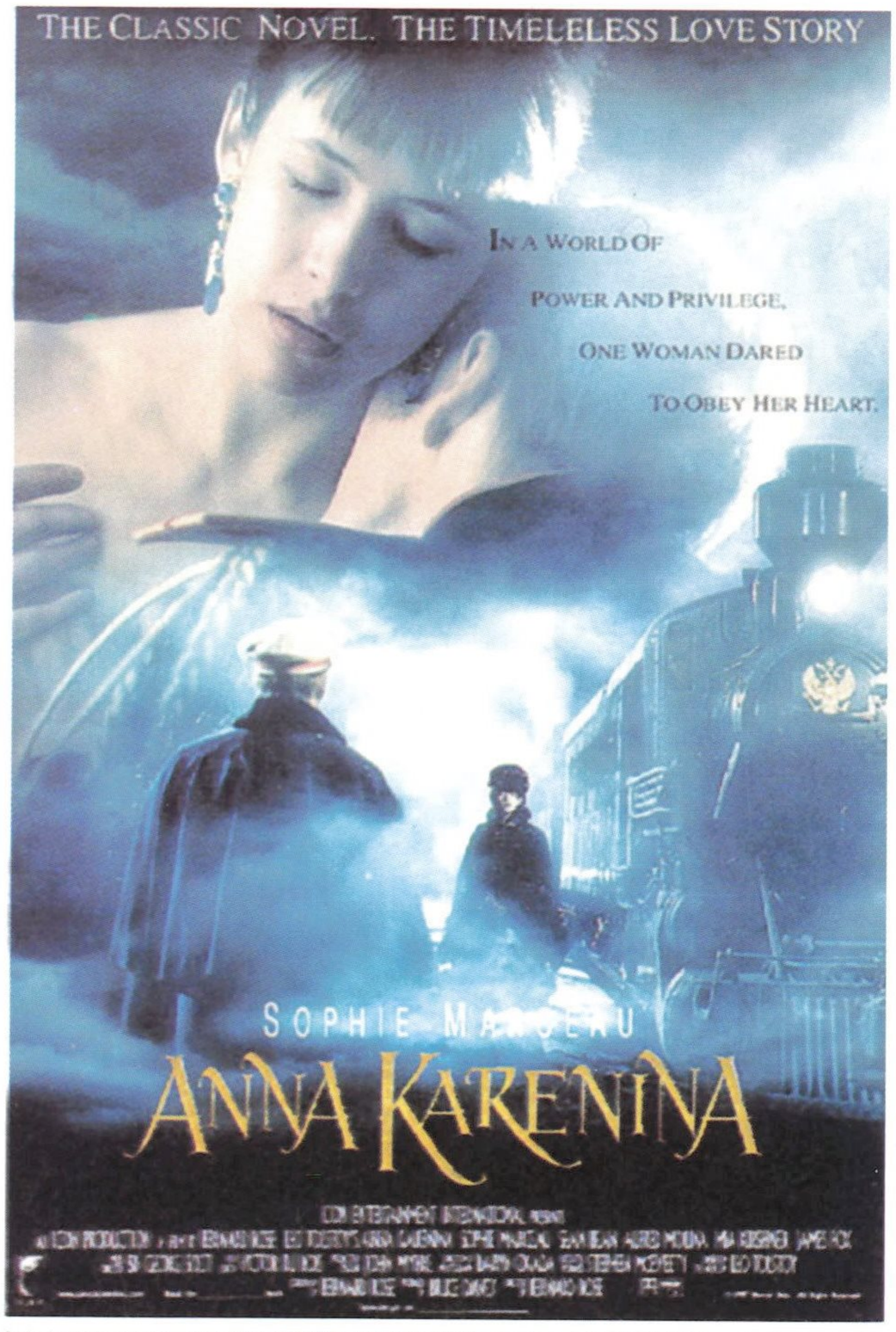
집에서 가진 만찬이라 긴장도 풀려 마음 넉넉히 이야기도 하고 그날 생일을 맞은 단원 이은주 씨의 생일축하 노래도 불렀다. 또,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단원 이현주 씨에게 노래를 요청해 모두가 손을 잡고 '만남'을 함께 불렀다.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라 눈물도 아깝지 않았다.

내 고향 부산, 그곳에서 짠 바다 내음을 옷에 듬뿍 묻혀온 사람들, 여기 시카고에서 같은 고향을 가진 공통분모 하나로 정겨움은 바다 물결만큼 출렁거릴 수 있다. 지금까지 내 아이들은 부산이 대한민국 전부인 줄 안다. 서울에 도착해도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곳에서만 지냈기 때문이다. 부산사투리도 곧잘 해 누구나 부산사람으로 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내 고향인 부산을 엄마만큼 사랑해주길 바란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에 아쉬움을 남기며 다시 오헤르 국제공항을 떠나는 고향사람들, 부산의 다이나믹(Dynamic)한 예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가는 고마운 사람들. 그래, 왜 '다이나믹'이라 했는지 알겠다. 화끈한 부산!!! 이 뜻이겠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발전해 가고있는 내 고향 부산을 오늘도 더 없이 사랑하며 부산시립무용단의 시카고 공연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다음에는 우리 함께 미주 순회 공연도 계획해 봄직하다.

영화 안나 카레니나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안나 카레니나'는 '불멸의 연인'을 연출한 버나드 로즈 감독이 연출하고 소피 마르소와 숀 빈이 주연을 맡은 1997년 작품이다.

러시아의 귀부인과 청년 장교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인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는 이미 수차례 영화화 되었던 작품이다. 하지만 이제 소개하는 영화는 〈불멸의 연인〉을 연출한 버나드 로즈 감독이 연출하고 소피 마르소와 숀 빈이 주연을 맡은 1997년 작품이다. 끝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나 카레니나의 비극적인 운명을 처절하게 그려낸 이 영화는 특히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불후의 명곡인 〈비창 교향곡〉으로 더욱 빛을 발한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흐르는 1악장 도입부의 음산한 선율은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며 관객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1800년대 후반 왕정시대의 러시아. 안나 카레니나(소피 마르소 분)는 대지주의 정숙한 아내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호화 저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풍족한 생활이지만 관료적이며 보수적인 남편에게 염증을 느껴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던 그녀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 잠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난다. 모스크바 역에 도착한 안나는 우연히 오빠의 친구인 브론스키 백작(숀 빈 분)을 만나 운명적인 사랑을 느낀다. 귀족 생활의 관습과 규율이 젖어 있었고 여덟 살짜리 아들까지 두고 있었던 안나에게 브론스키와의 만남은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인생의 한줄기 빛이었다. 브론스키 백작도 아름다운 왕녀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안나로 인해 멀어지게 되고 결국 안나가 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따라간다. 안나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과 갈등은 무도회에서 브론스키와 추는 왈츠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 장면의 음악은 차이코프스키의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왈츠'이다. 나긋나긋한 비엔나 왈츠와는 달리 화려하고 역동적인 차이코프스키의 왈츠는 두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안나 카레니나'는 하얀 설경과 장엄한 백야의 아름다움에 거장 게오르그 솔티 경이 지휘하는 러시아 작곡가들의 유려한 선율이 흘러넘쳐 이 영화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탄 안나는 잠시 멈춘 정거장에서 뜻밖에 브론스키를 만난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가운데 마주보고 선 두 사람을 배경으로 흐르는 〈비창 교향곡〉 1악장의 주제선율은 아름다우면서도 비장하다. 우수와 비애가 가득한 이 선율은 숙명적인 사랑의 슬픔을 장대한 울림으로 표현하여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브론스키와 안나는 부적절한 동거생활을 한다. 이 사건은 고지식한 마을을 뒤집어 놓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안나의 남편은 그녀에게서 아들을 빼앗는다. 심지어 사교계에서도 그녀를 따돌린다. 소외감과 함께 브론스키의 애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한 안나는 브론스키의 아이마저 유산하게 되고 아편으로 우울함을 달랜다.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며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안나의 모습이 오페라의 한 장면과 번갈아 비춰진다.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의 유명한 '편지장면'이다. 오네긴에게 사랑을 느낀 타티아나가 밤중에 갈등을 겪으며 편지를 쓰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안나의 불안한 심리와 조화를 이룬다.

브론스키는 괴로워하는 안나를 데리고 이탈리아로 떠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여기에는 〈비창 교향곡〉 2악장의 밝은 선율이 나오지만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비창 교향곡〉은 대체로 어둡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탈리아에서 둘은 정식 부부가 되었건만 안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여전히 차갑다.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도 않으며 아들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안나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거대한 사회적 편견 앞에서 결국 무너진다. 브론스키와 안나는 심하게 다투게 되고 마지막 희망인 브론스키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다. 안나는 아편에 취해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그 위로 라흐마니노프의 〈엘레지〉가 가슴을 파고든다. 피아노 독주곡인 〈엘레지 작품 3-1〉과 피아노 삼중주 〈엘레지 작품 36-2〉는 차이코프스키의 장중한 비장함과는 달리 로맨틱한 슬픔을 담고 있다. 〈비가〉라고도 불리는 〈엘레지〉는 이 영화에서 〈비창 교향곡〉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악이며 곳곳에 배치되어 안나의 번민과 갈등을 묘사한다.

기차역에서 넋을 잃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비창 교향곡〉의 4악장이 흐른다. 그리고 그 음악의 절정에서 안나는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진다. 압도적인 슬픔의 4악장은 러시아의 우수와 비애를 노래한 차이코프스키의 마지막 작품이며 그의 음악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이 음악위로 안나의 슬픈 운명과 차이코프스키 최후의 노래가 중첩된다.

안나의 삶에서 극적인 순간들은 증기기관차가 하얀 김을 뿜는 기차역에서 이뤄진다. 처음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았을 때나,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이탈리아로 기차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안나가 기관차에서 뿜어나오는 하얀 증기를 통하여 사랑하는 남자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다 철로 위로 몸을 던지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장엄하고 화려한 로마노프 왕조시대 궁궐들과 극장들, 그리고 하얀 설경과 장엄한 백야의 아름다움에 거장 게오르그 솔티 경이 지휘하는 러시아 작곡가들의 유려한 선율이 흘러넘쳐 이 영화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가난한 목수에서 화가로

김남희 _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목동과 종이연



석양에 돌아가는 소

외할아버지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바이스는 1년도 못 채우고 공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서당에 가는 대신, 집에 남아 일을 거들어야 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들에 가서 소를 치고, 풀을 말리고 퇴비도 만들었다. 그래도 때로는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해 풀을 뜯어먹기도 했었다. 〈芋魁〉라는 토란 그림에 이렇게 화제를 쓰고 있다.

산 하나 가득한 토란 향기에 가을 깊어지면,
가난한 집에도 곡창이 가득 찬다네.
나이 들어 맛이 없다 탓하지 마오,
쇠똥 화로 불 지피면 향내 절로 나는 것인데.

애석하게도 그 그림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말린 쇠똥 땔감에 토란을 구워 허기를 채우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참고로 중국 토란은 크기가 우리나라 큰 고구마만 하고, 익으면 밤고구마처럼 부드럽다. 다만 단 맛이 전혀 없는 게 흠이랄까. 아무튼 주린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동치 10년부터 2~3년간(9살에서 12살까지) 그는 물 긷고, 채소 심고, 청소하고, 두 동생 돌보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때고 남은 나무는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태었다. 그 어린나이에 그는 이미 한 사람의 몫을 톡톡히 해냈다. 그의 그림 가운데 소 그림이 많다. 그 그림 속에 목동은 바로 어린 날의 화가 자신이다.

그러던 그가 12살 나이에 장가를 들게 된다. 신부는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살 위의 소녀 천춘쥔. 그 당시 농촌에서는 일손을 늘이기 위해 어린 신랑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신부에게 장가드는 일이 허다했다. 즉 민며느리들이기. 초례는 나이가 차면 좋은 날을 택일하여 치르게 되지만, 초례를 아직 치르지 않은 민며느리들은 그야말로 집안의 정식 일꾼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나라에도 '꼬마신랑'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던가! 바이스의 신부도 가난한 집안 태생이라 집안일과 부모님 시봉과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거침없이 해내는 야무진 살림꾼이었다. 그는 그런 그녀가 좋았으나, 내색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이스는 몸도 약한데다 농사일에는 전혀 요령이 없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온 집안의 걱정꺼리였다. 고심 끝에 그는 먼 친척뻘 되는 치셴유와 치창링한테 목수 일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집을 짓는 대목장이 되려고 마음을 굳혔으나, 워낙에 약한 몸이라 나무 기둥을 들어 옮기거나 해야 하는 대목장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생활소품 같은 것을 만드는 소목장 일을 배우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이도 손재주는 뛰어나서 당시 유명한 목공예가 저우즈메이의 문하에 들게 되었다. 19세에 3년간의 도제기간을 마치고 스승을 따라 일을 하러 다녔다. 그는 여러 가지 도안과 인물조각에 능하게 되었고, 정교한 혼수용 침대, 꽃가마 조각 등을 잘 만들기로 이름이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로부터



조각침대 1호(머리부분)



조각침대 1호(옆부분)



산수



리씨 부인 초상

내려오는 천편일률적인 문양에 식상한 바이스는 나름대로 변화를 주어보고자 노력했다.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화초와 열매들을 새겨 넣어 보고, 역사인물조각에 새나 짐승, 물고기, 곤충 등을 새겨 새로운 배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의 새로운 시도는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 그는 신이 나서 더욱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감행했다. 그 결과는 호평으로 이어졌다.

졸업과 동시에 목수일로 돈을 조금이나마 벌게 된 그는 비로소 신방을 차렸다. 그는 열아홉, 춘쥔은 스무 살이었다.

그는 조각공구가 든 나무상자를 메고 열심히 일을 하러 다니던 어느 날, 어느 단골집에서 우연히 채색 본 〈개자원화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일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틈틈이 베꼈다. 그 후 그의 조각은 개자원화전을 근거로 더욱 더 새로운 문양을 선보였고, 그림도 균형과 격이 잘 어울려 한층 높은 단계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던 그는 26세 때 초상화가 샤오샹가이의 제자가 되고, 27세부터는 목수 일을 그만 두고 초상화로 업종을 바꾸었다. 그림이 목공보다 훨씬 편하고 실용적이었다. 부자들은 초상을 그려 후손들에게 남기거나 죽었을 때의 모습인 유용(遺容)도 남기려 했다. 초상화를 그리고 소매의 문양과 신발의 수본을 그렸다. 그리고 그가 창안한 초상화의 검정 망사 옷 속에 투시되는 꽃무늬 세필화로 은자 네 개를 받기도 했다. 그림이 조각보다 훨씬 벌이가 좋고 시간도 덜 걸린다는 생각에 그는 톱과 망치가 든 연장통을 버리고 그림 그리는 길로 완전하게 들어섰다.

그 때 비로소 치바이스는 그림을 솥에 넣고 끓여 먹는 재주를 부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 옛날 할머니가 늘 붓을 놓지 않는 바이스를 보면, "어디 솥에 글씨를 끓여 먹는 다더냐!"며 걱정하시던 기억이 머릿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모차르트의 정수를 담아낸 비엔나필의 *레퀴엠*

김의호 _ 삼성여고 교사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 레퀴엠. 죽음이란 단어는 모차르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다. 7남매 중 모차르트와 누이 하나만 남고 어릴 때 다 죽었다. 엄격한 아버지 아래 그가 유일하게 의지한 어머니마저도 일찍 세상을 뜬다. 모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서둘러 결혼하지만 6명의 자녀 중 넷을 잃는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 그의 작품에서는 단조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비감에 거리를 두려 애썼다.

첫아들이 일찍 죽자 그는 크게 낙심한다.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작곡에 집중하는 것뿐. 피아노 협주곡 제 20번은 절제된 아픔을 단조로 숭고하게 승화시킨 작품이다. 비통한 감성에 머무르지 않고, 부드럽고 찬란한 빛이 가득한 협주곡 21번은 감성의 균형을 이룬다. 더욱이 유희적 경향의 오페라에는 재기발랄한 웃음이 가득하다. 분명, 상황의 역설이다. 절제된 슬픔을 웃음으로 표현하는 그의 음악은 오히려 영혼을 울리는 눈물이 있다.

그는 천재다. 아버지의 체계적인 교육과 고향 잘츠부르크의 좋은 음악환경 그리고 6세 때부터 시작된 연주여행–여행은 젊은이에게는 그 자체가 배움이다–은 그를 비교할 대상이 없는 천재음악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무한한 창작의 샘은 여행을 통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음악을 만남으로 더욱 풍부해졌다. 화려하고 명랑한 그의 작품을 듣는 순간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전문가들만이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음악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자신도 모르게 감흥에 젖어들게 하는 음악이다. 이런 이유로 음악 감상 입문자에게 추천하기 좋은 작품이 모차르트요, 어린이가 피아노 기초교육을 끝낸 후 처음 대하는 소나타도 그의 작품이다. 모차르트 작품은 어린이에게는 쉬우나 어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

한편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여행의 열악한 환경은 그를 병약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주교의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 여러 나라 왕족과 귀족들로부터 찬사를 한 몸에 받았으나 음악 하인에 지나지 않는 신분 등이 그를 우울하게 했다. 결국 대주교에게 시달린 그는 잘츠부르크를 혐오하게 되고 그곳에서 더 이상 창작하지 않겠다고 선포한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최초의 프리랜스가 된 것이다. 음악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작곡가가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복종의 대가인 안정을 포기한 것이다.

현실은 냉혹한 법, 1787년 이후 죽기 전까지 4년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벼랑끝이다. 그러나 절망의 환경은 오히려 창작의 열망을 불타오르게 한다.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최고 걸작품들이 분출된다. 교향곡의 마지막 대작 세 작품 중 제 39번이 발표되고 3일 뒤에 딸의 죽음을 맞는다. 그 비통함은 한 달 후 가장 비극적인 사단조 교향곡(40번)에 나타난다. 1주제는 아픔이 끊임없이 끌어 오르려다 떨어져 내린다. 마치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불운을 딛고 벌떡 일어서려는 불굴의 의지가 다시 꿈틀거린다. 이내 환희에 넘쳐 41번 '쥬피터'가 하늘로 비상한다.

생의 끝자락, 병마와 싸우며 마지막 힘을 '마술피리'와 '티투스의 자비'에 쏟아 붓고 있을 때 '레퀴엠' 작곡 의뢰를 받는다. 그는 죽음을 떠올리는 레퀴엠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내 재능을 다 펼치기 전에 생을 마치게 되었다.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내 삶의 시작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누구도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모든 것은 신의 섭리다. 이제 생의 끝이 다가온다. 여기 미완으로 남겨서는 안 되는 레퀴엠이 있다." 그의 높은 차원의 질서정연한 선율은 이후 그 누구도 뛰어넘기 어려운 완벽한 표현력에 도달했다. 음악가를 하인 취급했던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자유였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음악이었다.

즐거운 부산의 쇼핑

다이앤 스틸멍크스 _ 국제부인회 회원, 미국인

부산에서는 쇼핑도 즐겁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처음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내게 다가와 나의 구매를 도우려 애쓰는 점원들에게 아주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경험은 오랫동안 해보지 못했습니다. 멕시코에 살 때에는 이와 정 반대였습니다. 가게 점원들은 우리 스페인어가 아주 서툴자 도와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어장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주려 합니다. 말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놀라곤 합니다. 대부분 판매원들은 나의 한국어 실력보다 영어를 훨씬 잘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하는 것을 바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주유할 때 미국에서는 어떠한 인간적 접촉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주유를 해줄 뿐만 아니라 종종 물이나 티슈 같은 선물도 주고 쓰레기까지도 버려 줍니다.

처음 동네 마트에 들렀을 때 상품들을 팔기 위해 큰소리로 외치는 판매원들이 지나치게 저돌적으로 보여 처음에는 솔직히 좀 겁이 났습니다. 며칠 전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매원들을 피해 아침 일찍 쇼핑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쇼핑카트를 올릴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고향 친구들에게 그 사진을 보냈더니 한 친구가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독일에도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층에 가기 위해서 계산대를 거칠 필요가 없이 쇼핑카트를 밀고 내려가거나 올라가서 쇼핑을 끝낼 수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한국의 일부 상품들은 미국의 유사한 상품과 비교해서 가격이 놀랄 만큼 비쌉니다. 나는 '굳윌'이나 '구세군' 상점 같은 중고가게나 중고세일에서 종종 구매 하기 때문에 제값을 다 주고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약간의 가격 비교를 해보자면; 좀 더 저렴한 물건들로는 몸에 맞는 사이즈가 있다면 청바지나 티셔스 같은 의류(미국사람들은 몸이 좀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휴대전화, 케이블 티브이, 외식, 식료품가게에서 한국식품 그리고 중고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유명상표 옷, 외국음식식당, 식료품가게에서 외국식품, 가구, 커튼, 보통 천 종류, 아기 옷 그리고 아기용품 등은 좀 더 비쌉니다.

최근에 한 친구의 재봉틀을 같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쇼핑하면 자갈치 시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행을 좋아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를 여행했지만, 자갈치시장 같이 엄청난 물량과 수많은 종류의 해산물을 취급하는 어시장을 본적이 없습니다. 어시장이 하나도 없는 아이오와 주에서 온 나는 여기 모든 어시장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핫도그처럼 생긴 해산물을 먹거나 또는 그것이 내 눈에 물을 뿜어내는 경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굉장한 경험입니다.

부산으로 이사올 때, 한국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쇼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나는 꽤 순진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부터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고객지원을 받으며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쇼핑, 정말 새로운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부산의 과학자' 장영실의 과학정신을 기리는

장영실 과학동산



장영실 흉상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과학기술문화를 꽃피웠던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 서양보다도 200년 앞서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했던 천재 과학자이지만, 정작 그가 부산사람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부산 동래에서 태어나고 자란 장영실은 그 뛰어난 과학적 재능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측우기를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 천문기기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등 수많은 발명품을 제작해 우리나라 과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부산의 과학자' 장영실의 업적과 과학정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장영실 과학동산'이다. 지난해 11월 4일 문을 연 '장영실 과학동산'은 그가 남긴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장영실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동래읍성 북문 광장에 조성된 야외박물관이다. 이곳에는 그의 대표적인 과학발명품과 함께 각종 옛 천문기기 19점이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천문기기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곳은 '장영실 과학동산'이 처음인데다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 제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영실 과학동산'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장영실이 발명한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한 독특한 모양새로,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별의 위치를 관측해서 시각을 측정하던 천문기계이다. '일성정시의'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천문도로, 1,467개의 별을 그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새겨넣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와 북극을 향한 영침(影針)의 그림자에 따라 시간과 계절, 일출과 일몰 시간을 측정했던 반구형 오목 해시계인 '앙부일구',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 방향과 일치하도록 추를 달아 그 줄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눈금으로 하루의 시간을 측정했던 또다른 해시계인 '현주일구(懸珠日晷)' 등이 자리하고 있다.

장영실 흉상 주위로는 4개의 해시계가 나란히 들어서 있다. 1700년대 초기에 제작된 '신법지평일구(新法地坪日晷)'는 영침의 그림자로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는 해시계이다. 보물 제 840호를 본떠 제작했으나 해 그림자를 받는

시반면은 현재의 설치장소 위치인 북위 35도 12분에 맞도록 수정해 설치되어 있다. 또, 영침의 그림자로 시간과 태양의 방향을 측정한 '세종대왕기념관 일구대'와 해그림자를 받는 시반면을 하늘의 적도면에 맞춘 '적도식해시계', 덕수궁 소장의 평면해시계와 크기만 다를 뿐 구조와 형태가 동일한 서양식 '평면해시계' 등 다양한 해시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밖에 천구의(天球儀)인 '혼상'과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해 천문시계의 구실을 했던 '혼천의', 청계천의 물 높이를 측정했던 '수표', 측우기를 올려놓던 측우대 등 다양한 천문기기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살아있는 과학교육 체험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문기기인 '간의'와 '간의대'도 추가로 설치된다. 해시계, 물시계, 혼천의와 함께 조선의 천문대에 설치한 가장 중요한 관측기기였던 '간의'는 혼천의를 간소화한 것으로, 오늘날 각도기(角度器)와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한다.

'장영실 과학동산'에서는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문에 앞서 부산과학기술협의회(www.fobst.org)로 참가신청을 하면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춘 과학문화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지난 한해만 하더라도 4만7천여명이 이 곳을 다녀갔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7월에는 '장영실 천체과학축제'가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 '장영실의 천문과학'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충북대학교 이용삼 교수의 특강과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소속 전문강사들이 진행한 '재미있는 별자리 이야기', 천체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주과학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다. 특히 굴절천체망원경, 반사천체망원경, 문스코프, 선스코프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통한 천체관측은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오는 10월 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동래읍성 역사축제' 기간동안 '장영실 과학동산'에서는 '장영실 과학체험존'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앙부일구의 원리를 이용한 해시계를 직접 제작해보는 '앙부일구의 비밀'과 고리모양의 날개를 제작해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날려보는 '고리비행기를 날려봐',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천문관측을 직접 체험해보는 '천체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밖에 행사기간동안 동래읍성 북문광장에서는 동래성전투 재현, 읍성민 씨름대회, 동래읍성 성곽밟기 등 다양한 체험, 참여행사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글, 사진/정복엽)

▪ 문의/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550-4681~3)
부산과학기술협의회(501-3126, www.fobs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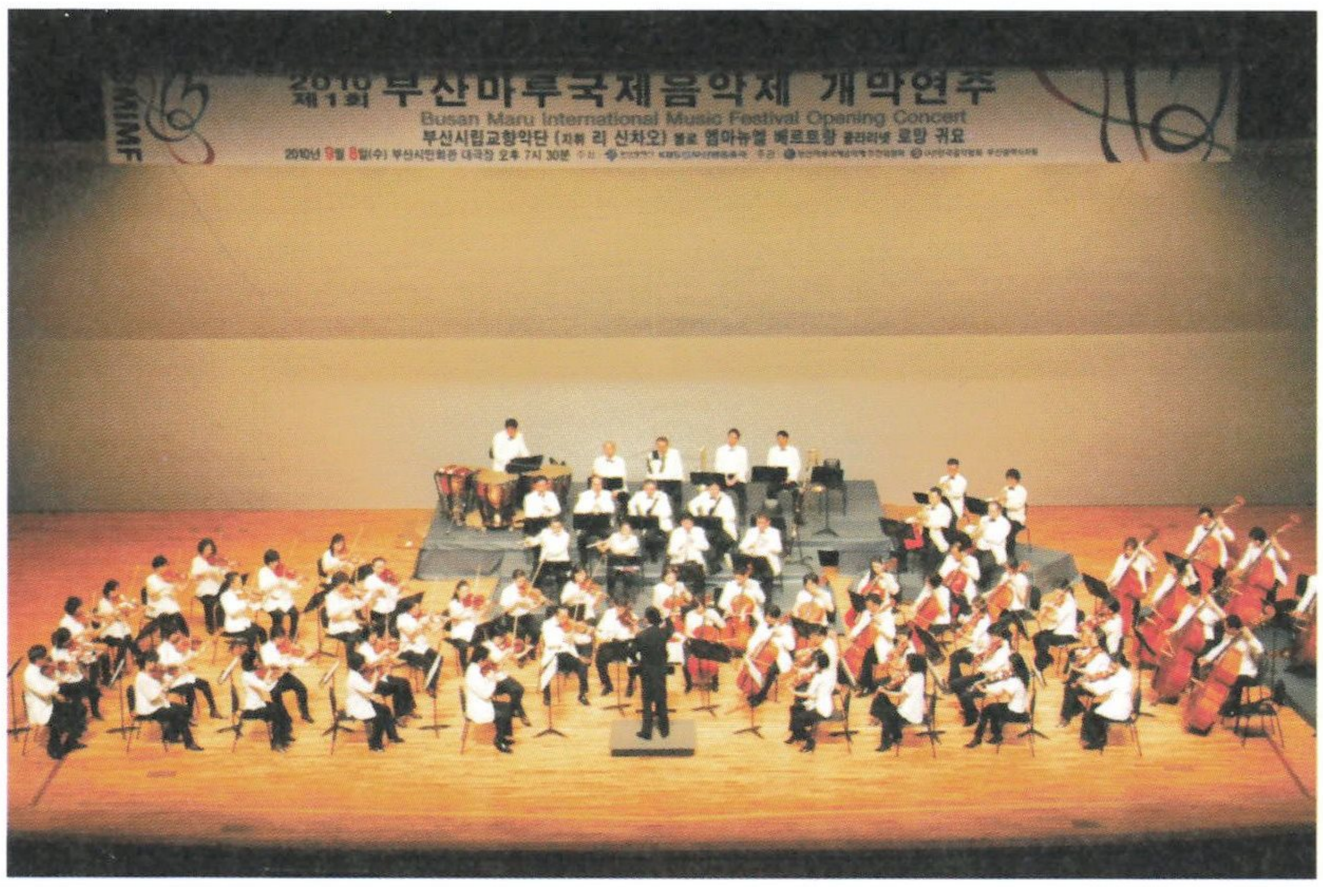


'장영실 과학동산'에는 천재과학자 장영실의 대표적인 과학발명품과 옛 천문기기 19종이 복원, 전시 되고 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 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 주었던 '장영실 천체과학 축제'.

제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신설령 _ 음악평론가



긴 더위 끝에 모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어 기분 좋은 저녁 내 고장 부산에서 국제음악제가 열렸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라는 타이틀로 그 탄생을 알리는 개막연주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렸던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대관령 국제음악제도, 통영국제음악제도 다녀올 수 있건만 어디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리가 없는 일. 유명 연주자들이 대구나 울산, 창원에서는 연주를 해도 부산은 가끔 연주를 건너뛰어 속상했던 적이 많았는데 좋은 연주가 풍성할 국제음악제가 열렸으니 프로그램 살펴가며 열심히 다녀볼 참이다.

개막연주회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 〈피델리오〉 서곡에 이어 슈만 〈첼로 협주곡 가단조〉를 엠마뉴엘 베르트랑의 협연으로 시작되었다. 엠마뉴엘 베르트랑의 연주는 슈만의 서정적인 음악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그는 격정적인 몸짓도, 과도한 감정표현도 배제한 채 절제된 표현으로 슈만의 깊은 서정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그녀의 첼로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다워 빠른 패시지에서도, 포르테로 소리 낼 때도 거칠지 않고 유려하며 아름다운 음을 나타내어 첼로 음색의 매력에 한껏 빠지게 하였다. 그녀의 연주를 도운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첼로 소리가 관현악의 음향에 묻히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도록 배려하며, 때로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루며 호흡을 맞추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에 이은 로망 귀요의 클라리넷 연주는 청중의 눈과 귀를 잠시도 무대에서 떼지 못하게 하였다. 로시니의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 주제와 변주〉를 연주한 로망 귀요는 특유의 긴 호흡으로 인한 프레이즈 처리가 특히 뛰어났다. 그는 빠른 패시지에서도 다양한 표현으로 음악을 만들어 나갔으며 서정적이고 긴 프레이즈에서도 음악이 끊어짐이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탁월한 연주를 보여주었다. 로시니의 곡이 현란하게 펼쳐지자 오케스트라도 솔리스트 못지않게 음악을 함께 즐기듯 연주하여 음악적 흥미를 배가하였다.

개막연주회 마지막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제1번이었다. 리 신차오의 디테일한 지휘는 악보 위의 모든 프레이즈들이 한 소절도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고 노래되도록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는 단원들의 음악적 역량을 배가시키고, 청중을 집중케 하여 음악적 감동을 끌어낼 줄 아는 리더였다. 부산국제음악제를 통해 부산의 음악애호가들이 외부 음악인들의 연주를 접할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의 음악인들이 외부에 좋은 소문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름 끝자락에 좋은 음악회를 목말라 하던 차 시작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이제 그 탄생을 알리고 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해 꿈도 많고 기대도 많을 것이나 우선은 그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고 싶고, 보다 큰 사랑과 관심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라디오는 지역 문화 발전의 원동력

남인용 _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라디오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볼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청취자들에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한다. 최화정씨가 비키니를 입고 방송하는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보여주었던 '보이는 라디오'가 그 예이다. 달리 보자면 라디오는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분위기 있는 음성의 그 분이 실제로 보면 별 분위기 없다는 점을 감추기에 라디오는 너무나 좋은 미디어가 아닌가? 라디오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실제 보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라디오의 또 다른 장점은 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텔레비전에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있지만 라디오만큼 청취자 참여가 많은 미디어는 아니다. 국민들의 행복과 애환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내 목소리가 나오는 라디오'를 다른 미디어가 흉내 내기는 어렵다. 청취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방송에 내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방송인과 청취자의 거리는 가깝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디오는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지역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청취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은 여론과 일상사의 탐색에 매우 중요하다. KBS 1 라디오의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서는 청취자를 전화로 연결하여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MBC 라디오의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의 여러 코너 중에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는 청취자가 경험한 웃기는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는 코너로 인기가 높아서 이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에 차 안에서 웃는 사람은 이 코너를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신성원의 문화읽기'(KBS1 라디오, 매일 밤 10시 10분–11시)는 라디오에서 인기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매일 정리할 문화정보가 뭐 그리 많을까 싶은데도 매일 밤이면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을 초대하여 문화갈증을 해소해 준다. 화요일의 '용감한 그들 당돌한 예술'은 주로 미술 전시를 소재로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 토요일에는 문화를 심리학적인 면에서 살펴보는 '문화는 심리학으로 통한다'가 방송되고, 일요일에는 '행복한 책읽기, 명작을 만나다'가 나온다. 뿐만아니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명사들이 즐겨 읽는 책을 소개받고 명사의 독서생활을 둘러보는 '내 인생의 서재'를 방송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모든 문화 장르가 골고루 다루어진다.

부산 지역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즐겨듣던 '정두환의 문화플러스'(KBS1 라디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12시)는 지난 6월말에 종방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뿐이라 감질나기는 했지만 공연, 전시 등 지역의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전해주던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은 무척 아쉬운 점이다. 부산, 울산지역의 생생한 문화정보를 한 주의 문화현장, 문화포커스, 이야기가 있는 마당, 주제가 있는 클래식, 주간 부산 문화 등의 코너에서 소개했다.

부산시의 민선 5기 슬로건은 '크고 강한 도시 부산'이다. 하지만, 문화만큼은 '크고 강한' 것 보다는 '작고 부드러운' 것이 더욱 의미 있다. 문화를 마케팅 측면에서만 보면 크고 강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시민들이 생활 속의 행복을 누리려면 작고 부드러운 여러 문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지역 사회의 문화 활동 활성화에 지역 미디어가 기여하는 바가 더욱 커져야 한다.

목련처럼 청순한 노래로 세월을 잊는다

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목련합창단



"부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때문에 매주 토요일 합창단을 찾게 됩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목련합창단은 노래하는 즐거움에 빠진 30명의 여성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아마추어합창단이다.

9월 18일, 목련합창단 연습이 한창이던 경성대학교를 찾았다. 한 오락 프로그램의 인기로 합창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요즘은 연습 시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창단 30주년을 맞는 올해, 성악가 오동주 씨가 목련합창단의 제 10대 지휘자로 취임해 단원들과 목련만의 넬라 판타지아를 꿈꾸며 연습에 한창이다.

목련합창단은 1980년 3월 29일 '부산산업대학 부설 주부대학 목련합창단'으로 창단되었다. 그동안 열 네 번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서 전국합창경연대회, 부산합창제, KBS 신춘음악회, PSB 개국기념공연과 각 시·도 합창단 교류음악회, 4회의 한·일 교류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합창단 창단을 이끈 김창배 선생부터 박근기, 공정배, 배정행, 하순봉, 강학윤 등 그동안 합창단을 지휘한 지휘자가 9명, 목련합창단을 거쳐 간 단원들이 400여명이 넘는다.

목련합창단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동주 씨는 강학윤 지휘자 시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목련합창단을 몇 차례 지휘하며 인연을 맺었다. 오동주 씨는 지휘자 이전에 음악 전공자의 한사람으로 30년을 이어온 합창단 단원들의 변함없는 열정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목련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30년간 꾸준한 연습으로 목련만의 깊은 소리를 다듬어 왔다.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합창단 단원들의 남편들이 중창팀을 결성, 함께 연주하기도 했다. (사진 목련합창단 제공)

"합창단 단원들은 이제 여가 선용의 차원보다는 진정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들은 또 다른 하나의 프로패셔널이라고 확신합니다."

30년 세월의 깊이만큼 합창단에는 화제가 많다. 1980년 창단 멤버로 입단한 큰언니 이태자 씨(69)를 비롯해 1984년 입단한 이명화(59) 씨, 1987년 입단한 나건옥(60) 씨, 1991년 입단한 김옥교(62) 씨 등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단원들이 많아 다른 합창단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다.

현재 단원들은 30명. "목련합창단에서 청춘을 보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목련합창단을 꿋꿋하게 지키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평균 연령은 높지만 마음은 언제나 젊은 언니들의 열정을 자랑한다. 올해 새롭게 합창단 가족이 된 김정아, 최효선, 이은화 씨가 42세로 가장 막내다.

목련합창단은 연습에 빠지지 않고 참가한 단원들에게 자체적으로 개근상을 만들어 시상하고 있다. 1987년 신문에 난 목련합창단의 기사를 보고 입단한 나건옥 씨. 그는 1년 개근상을 열 차례나 수상하고 합창단 단원 중 유일하게 10년 개근상을 수상한 열성단원이다. 가족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해 합창단 단원 남편들로 중창단을 결성했을 때 나건옥 씨의 남편도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정을 합창단 연습시간에 맞추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다 보니 세월이 비껴가는 게 아닐까요."

입단한지 만 1년이 된 박혜정(51) 씨는 젊은 시절 못 이룬 음악의 꿈을 목련에서 이루었다. 처음 연습에 참가해 김옥교 단원의 노래를 들으며 하모니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이처럼 목련 가족들을 매주 만나다 보니 이제 친자매처럼 우의를 쌓아가면서 노래 외에 값진 '정'도 쌓아 왔다.

어머니의 노래를 듣고 성장한 자녀들 중에는 음악전공자도 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SBS 아나운서 유경미 씨가 단원 고혜미 씨의 딸이다. 그는 목련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두 차례 사회를 보며 어머니의 합창단 활동을 후원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장인수 단원의 딸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귀국 독창회에 목련 가족들이 참가해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부산에 목련합창단과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합창활동이 있었기에 부산에서 아름다운 합창의 울림이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목련합창단을 이끌어온 단원들에게 연습시간의 즐거움이든, 연주에서의 성취감이든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음악적으로 보답 해주고 싶습니다."

목련합창단은 음악을 좋아하는 여성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 내 평생교육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20주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단원들의 마음이 바빠졌다. 10월 중순에 열리는 전국여성합창축제에 참가 한 뒤 11월 6일에는 창단 3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그동안 목련합창단을 후원해 준 고마운 이들을 위해 국화꽃 옆에서, 도라지, 산유화, 장미, 눈꽃송이 등 아름다운 꽃노래로 한 아름 고운 합창의 꽃을 선사할 계획이다. (글, 사진/백경옥)

마임이스트 김세진 마임 10주년 기념
지니 마임페스티벌 II
New & Joy

9월 30일-10월 1일 목-금요일 오후 5:00, 8:00 소극장



부산의 대표적인 마임이스트 김세진의 마임 10년을 기념하는 지니마임페스티벌.

지난해 세계 델픽대회 즉흥마임부문 동메달을 수상한 김세진이 TV 동영상, 강아지, 버스정류장, 새, 그 남자 그 여자 등 창작마임을 선보인다.

· 연출/김세진
· 출연/김세진, 이현남, 이은주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5시 공연은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세진(623-0678)

2010 이명진 첼로 독주회
2B+S 두 번째 시리즈

10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9년 베토벤, 브람스, 슈만(Beethoven, Brahms & Schumann) 작품으로 마련한 2B+S 무대에 이어 2010년 2B+S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하는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의 첼로 독주회.

이명진 교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나탈리아 구트만이 극찬한 우리나라 최고 첼리스트 중 한명으로, 독일 Folkwang 콩쿠르에서 16년 만에 첼로 부문의 대상 수상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베토벤과 브람스 연주에 독보적인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이 함께 연주한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4번
브람스/소나타 1번
슈만/환타지
· 피아노/올리버 케른(함부르크 국립음대 교수)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제 65회 UN의 날 기념
6·25전쟁 참전국 캐나다 군악대 초청 연주회

10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한국전쟁에 참전해 세계평화의 유엔정신을 실천한 캐나다 군악대 초청연주회.

캐나다 육군부대와 공군부대 등 군 최고의 가수와 연주가로 구성된 캐나다 군악대는 전통적인 파이프와 우수한 드럼 연주로 국제 음악제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프로그램
Sweet Home Alabama, You Belong to Me, Pround Mary, 아리랑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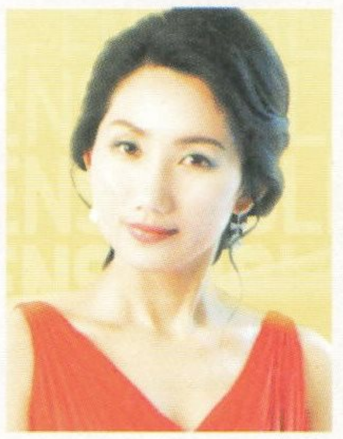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888-3536)

제 4회 오퍼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오퍼스앙상블과 함께 하는
최은주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3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자신만의 유연한 감각이 묻어나는 무대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은주와 오피스앙상블 회원들이 함께하는 최은주 피아노 리사이틀.



최은주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 고등음악원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피아노 최고 과정을 졸업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27 제 1번
슈만/노벨레테 올림바단조 작품 21 제 8번
피아졸라/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 바이올린/김준영(앙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리더, 진주시립교향악단 악장)
· 피아노/김은희(경성대, 고신대 출강)
· 첼로/정준수(동의대학교 겸임교수, 비르투오조 쿼텟 멤버)
· 플룻/김선영(GEM 플루트 앙상블 음악감독)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최은주(010-3592-5697)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
슈만을 조명하다
황정미 피아노 독주회

10월 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경성대학교 교수,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고문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황정미 독주회.

한 작곡가의 곡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특색 있는 독주회를 열어 온 황정미 교수는 1991년 쇼팽의 24개의 전주곡 전곡 연주, 1994년 베토벤 소나타의 밤, 1998년 슈베르트의 밤, 2003년 드뷔시의 밤으로 꾸민 독주회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는 슈만(1810~1856)의 아름다운 선율들을 새롭게 조명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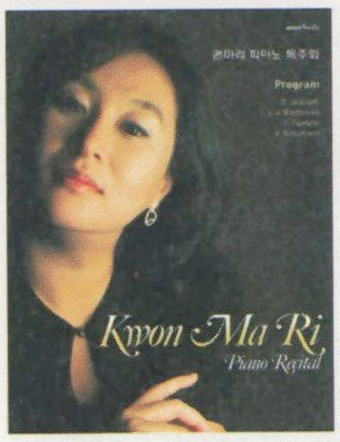
프로그램

슈만/아라베스크 작품 18
슈만/어린이 정경 작품 15
슈만-리스트/헌정
슈만/빈 사육제의 어릿광대 작품 26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권마리 피아노 독주회

10월 4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청중과 만나고 있는 피아니스트 권마리 독주회.

미국 커티스 음악원,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귀국한 권마리는 솔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앙상블 연주자로 실내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모차르테움 트리오(Mozarteum Trio)와 트리오 파라디아(Trio Paradia) 등의 창단멤버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피아노 소나타 라단조 L. 422, 피아노소나타 사장조 L. 487
뿔랑/피아노 소품집
슈만/피아노 소나타 사단조 작품 22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마스트미디어(02-541-2512~3)

제 22회 향천회 작품발표회

10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을 중심으로 한 중견작곡가들의 모임인 작곡 모임 향천회가 들려주는 제 22회 작품발표회.

1982년 창단된 향천회는 우리문화와 양악의 접목을 통해 한국적 음악을 재창조해왔다.

프로그램

노보라/4 'Pieces' for Flute
진소영/피아노 독주를 위한 불꽃 회상
이화연/첼로와 관악 5중주를 위한 '거울나라' 중 4악장 '그리움'
백승태/피아노를 위한 홍난파 동심나들이
하종태/바이엘 제 1번-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욕심'
김영식/바이올린첼로를 위한 '가락'
송필석/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최석태/플룻 솔로를 위한 3개의 단편
김종덕/첼로를 위한 소나타
조희주/피아노 독주를 위한 불꽃
정원상/바이올린과 피아노 '고향'

· 연주/이상창(플룻), 홍기정(바이올린), 장여정, 한학수(바이올린첼로), 정혜영(바이올린), 최민경, 서숙지, 서양지, 이미라(피아노)

■ 관람료 초대
■ 문 의 백승태(010-4154-140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10월 6일, 13일, 20일 수요일 오전 11:00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 춤판으로 인기를 모았던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를 새롭게 각색, 미취학 아동들에게 친숙한 춤사위로 동화 속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품구성

에피소드 1 스펀지밥과 친구들 등장
에피소드 2 용왕이 쓰러지다
에피소드 3 토끼를 데려오라
에피소드 4 토끼와 함께 용궁으로~
에피소드 5 다시 육지로 그리고 대결
에피소드 6 용왕의 부활 & 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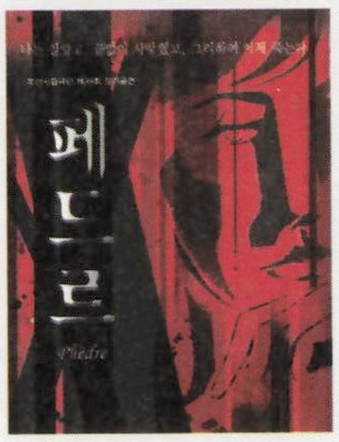
· 예술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 해설/이현숙

■ 관람료 균일 1,000원(36개월 이상 관람 가능)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www.koreanfolkdance.com)

부산시립극단 제 39회 정기공연

페드르 Phèdre

10월 8일-9일 금-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극단이 연출가 겸 극작가 김지용과 장 라신의 '페드르 Phèdre'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코르네유, 몰리에르와 더불어 프랑스 3대 고전극작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장 라신(Jean Baptiste Racine, 1639~ 1699)의 대표작 '페드르'는 라신의 희곡 세계를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오늘날 프랑스에서 널리 상연되고 있다.

이번 무대는 고대 원형극장의 양식을 그대로 옮겨와 기존 객석을 사용하지 않고 무대 위에 설치한 200여석의 객석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 원작/장 라신
· 재구성, 연출/김지용

■ 관람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문화나눔 천원의 행복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3회 정기연주회

10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새롭게 문을 여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개관을 기념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3회 정기연주회.

10월 4일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 이후 처



음으로 전국 순회 연주 길에 오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대구, 고양, 대전 순회 연주회를 마치고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 국제 청소년 피아노콩쿠르 1위, 2006년·2007년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의 Grotrian Steinweg 피아노 콩쿠르, 프리드리히스하펜, 린다우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며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애니 황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슈베르트/로자문데 서곡 작품 644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바단조 작품 21

브람스/교향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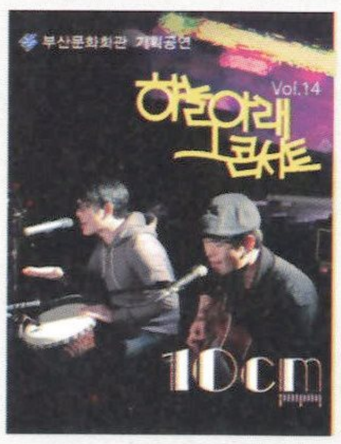
· 지휘/리 신차오 · 협연/애니 황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4 10cm

10월 8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청중과 한층 가까운 새로운 형식의 소극장 콘서트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 열 네번 째 무대.

'노래 좋더라', '라이브 잘 하더라', '인물 좋더라' 등 입소문과 함께 홍대 인디씬에서 가장 핫(HOT)한 밴드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10cm'의 첫 단독콘서트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권정열(보컬, 젬베)과 윤철종(기타, 코러스)로 구성된 '10cm'는 지적이고 스마트한 뉴욕 맨하탄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는 어쿠스틱 2인조 밴드로 앨범 한 장 없이, 입소문만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떠오르는 뮤지션이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31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을 수놓는 깐초네와 아리아의 밤

10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탈리아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이태리음악연구회의 제 31회 정기연주회.

1987년 창립된 이태리음악연구회는 이탈리아에서 음악수업을 한 부산출신 음악인들이 함께 교류, 연구하며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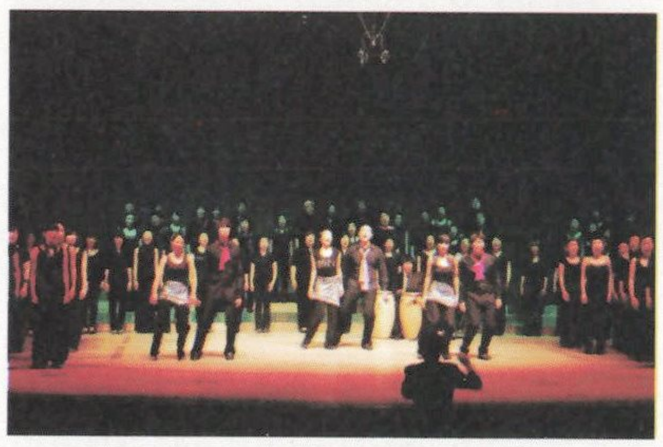
· 출연/전혜란, 박소년, 구민영, 이윤정, 성미진, 이은미, 구현진, 장원상, 김길수, 권영준, 김태형, 김철수, 김대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김태형(010-2339-1973)

2010 대학합창 페스티벌

10월 14일-16일 목-토요일 오후 7:30,
20일-22일 수-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신라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인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부산지역 6개 대학합창단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한국가곡 및 성가곡, 민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공연일정

10월 14일(목)

신라대학교 합창단(지휘/박광하 교수)

10월 15일(금)

경성대학교 합창단(지휘/김성규 교수)

10월 16일(토)

고신대학교 합창단(지휘/안민 교수)

10월 20일(수)

인제대학교 합창단(지휘/이영만 교수)

10월 21일(목)

동아대학교 합창단(지휘/김명규 교수)

10월 22일(금)

동의대학교 합창단(지휘/김성중 교수)

■ 관람료 무료

■ 문 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문화회관 재개관기념 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10월 15일-1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두 번째 무대 국립오페라단 초청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페라 부파(희가극)의 대표작품으로 세계 오페라팬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작곡가 도니제티의 젊은 시절의 자유분방함, 인간적이고 천진한 면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스피디한 희극의 전개속도와 재치 넘치는 등장인물들이 시종일관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한편, 웃음 사이사이에 흐르는 우아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은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이들까지도 매료시킨다.

· 예술감독, 연출/이소영

· 오케스트라/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리 신차오)

· 합창/국립오페라단, 울산시립합창단

· 주역/Adina 왕기헌(Sop), Nemorino 전병호(Ten), Belcore 박대용(Bar), Dulcamara 성승민(Bass), Gianetta 김나정(Sop)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9회 정기연주회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문화소외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오페라 연주 등 꾸준하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쥬피터'
그리그/피아노협주곡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생상/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등 수곡

· 지휘/김용문(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동아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장은정(017-842-6688)

부산통기타리스트 제 18회 정기연주회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오프라인 통기타 강습을 통해서 통기타 음악을 보급하고 있는 부산통기타리스트 제 18회 정기연주회.

2001년 8월 결성된 부산통기타리스트는 연 2회의 정기공연 및 자선 거리공연, '광주전남통키타리스트'와의 교류 공연 등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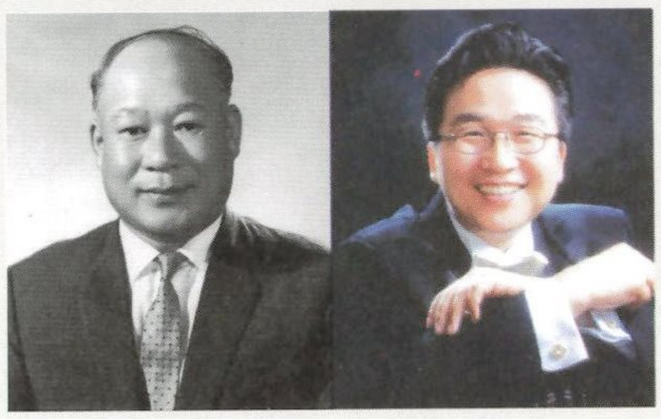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Gone the Rainbow, 그래 늦지 않았어, 컴백 마돈나 등 수곡

■ **관람료** 무료

■ **문 의** 남상석(019-402-5880)

부산시립합창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노래, 그리고 작곡가 이흥렬의 노래를 추억하며…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故 이흥렬 김강규

10월 고즈넉한 가을의 절정 속에 만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무더운 여름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우리 가곡으로 정화시켜줄 이번 무대는 '한국의 슈베르트'로 불리는 작곡가 이흥렬의 작품들로 무대를 꾸민다. '코스모스를 노래함' '섬집 아기' '자장가' '바우고개' 등 우리나라 가곡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이흥렬은 일본 동양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1931년 귀국한 후 예술가곡, 국민가요, 동요 등 400여곡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작곡가 고(故) 이흥렬의 아들인 영남대학교 이영수교수와 한국예술영재 교육원 이영조교수가 선친의 동요를 편곡한 합창곡으로 특별한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가을의 기도/가을의 속삭임, 가을엽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풍경/배내골 단풍, 아! 가을인가
이흥렬을 추억하며/꽃구름환상곡, 바위고개, 어머니의 마음, 고향 그리워, 옥잠화 등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교육연구회 중등음악분과 연주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 45명으로 구성된 부산교육연구회 중등음악분과 회원들이 들려주는 첫 연주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국창작가곡협회장 김성덕과 작곡가 안성주의 가곡 및 합창곡 발표, 피아노 독주와 듀오연주, 타악기합주와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출연/작곡 김성덕, 안성주, 피아노 양리라, 홍인혜, 정정화, 이경진, 성악 김영구, 김혜진, 오카리나 신영숙, 이현우, 타악기 김백향, 오영주, 한정화, 황영희 등 45명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성환(010-8963-8074)

제 9회 한새오카리나 정기연주회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일선 학교에서 오카리나를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오카리나 앙상블 한새오카리나 정기연주회.

매주 정기 모임을 통해 오카리나 사랑을 펼치고 있는 한새오카리나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매달 넷째 주 일요일 용두산공원 북카페에서 '흙피리' 오카리나 앙상블 팀과 합동 공연을 열어왔다.

2008년, 2010년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에 참

석한 한새오카리나는 2010년 우수공연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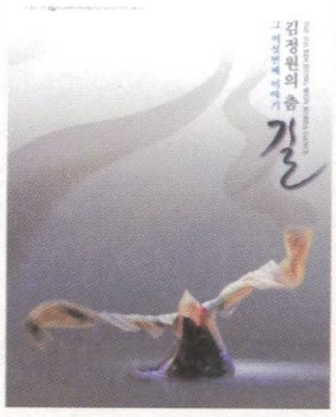
프로그램

독주/작은 새, 고구려벽화, 캐논, 애인 있어요
중주/바다가 보이는 마을, A whole new world
합주/플라이 미 투더 문,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

- **관람료** 무료
- **문 의** 황미경(010-5036-4787)

김정원의 춤 그 여섯번째 이야기-길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춤소리예술단 대표, 한얼정악창무극단 예술감독, 춤패 배김새 지도위원, 부산시무형문화재 동래학춤 전수장학생으로 우리 춤의 맥을 이어온 김정원의 춤 여섯 번째 무대 '길'.

김정원은 무용은 물론 연극, 뮤지컬, 무용극, 창극, 시조창무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우리 춤사위를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

1장 천(天)-승무, 동래학춤, 진도북춤
2장 지(地)-판소리, 지전춤, 살풀이
3장 인(人)-영남교방무, 교방검무, 진주교방굿거리, 소고춤
4장 천(天) 지(地) 인(人) 태평성대를 꿈꾸며-태평무

· 예술감독/김진홍 · 기획, 안무/김정원
· 연출/최재민 · 음악감독/이성준
· 반주/이성준(대금), 유인상(장구), 김영정(피리), 신현석(해금), 이관웅(아쟁), 김연수(북, 징), 고혜련(가야금), 유금선, 박종호, 강은미(구음)
· 특별출연/이광호(동래학춤 전수조교), 배철희, 윤현준, 정재욱, 강봉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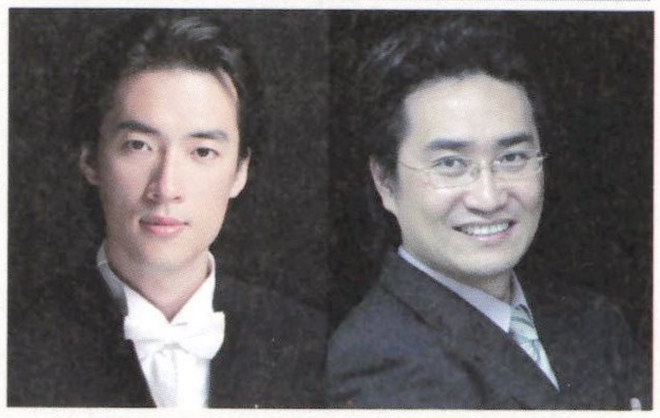
출연

김정원, 윤정미, 남선주, 문자영, 신영지, 김예린, 이남정, 김여운, 윤현정, 김지선, 김민경, 강은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김정원(636-8071, 017-567-8071)

유엔 평화문화특구 지정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초청 평화음악회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강신주 김지호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엔기념공원의 유엔평화문화특구 지정을 축하하는 평화음악회.

부산시민과 다문화가정을 초청, 평화가 숨쉬는 UN평화문화특구의 취지를 살리는 특별한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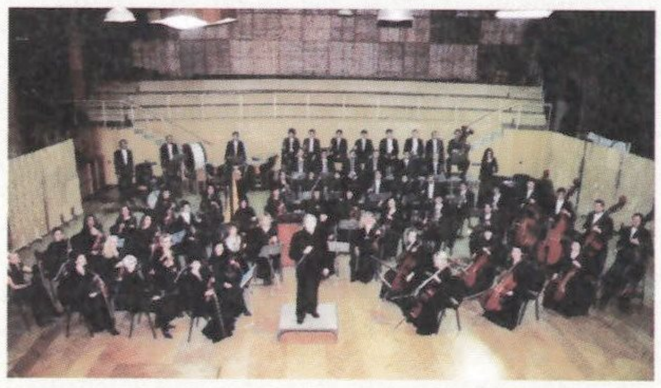
쥬페/경기병 서곡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구노/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 왈츠'
라라/그라나다 등 수곡

· 연주/부산YMCA오케스트라(지휘/홍성택)
· 협연/강신주(팝페라, 백석예술대학 교수), 김지호(테너,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 **관람료** 초대
- **문 의** 예솔기획(0505-700-9798)

몰도바국립방송교향악단 초청 공연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러시아의 유구한 음악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G. Musicescu, 러시아 모스크바의 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림스키-코르사코프 콘서바토리, 오데사와 르보프의 콘서바토리 출신들로 구성된 몰도바국립방송교향악단 부산연주회.

풍부한 음악 문화를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몰도바국립방송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공영 라디오 방송국 소속의 오케스트라답게 많은 음반을 출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바흐/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라단조 BWV 1060
오펜바흐/천국과 지옥 중 '캉캉'
하이든/교향곡 제 45번 '고별교향곡' 등 수곡

· 지휘/게오르게 무스테아(Gheorghe Mustea)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 **문 의** (주)프로아트(02-585-2934~6, www.pro-art.co.kr)

국악그룹 我아飛비娛오 아비오! 두번째 중독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7년 결성된 퓨전 국악그룹 아비오(我아飛비娛오)가 들려주는 두 번째 콘서트 '아비오! 두번째 중독'.

나 아(我), 날 비(飛), 즐거워할 오(娛)의 한자 이름으로 '음악을 자유로이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아비오는 국악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젊은 국악인들이 만든 퓨전국악그룹이다.

지난해 첫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획공연과 초청연주를 통해 한국적인 느낌과 전통의 색깔은 고수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비오만의 음악을 널리 알려왔다.

프로그램

김성겸/낭객
김성겸/느낌 극락같은
김성겸/바람이 그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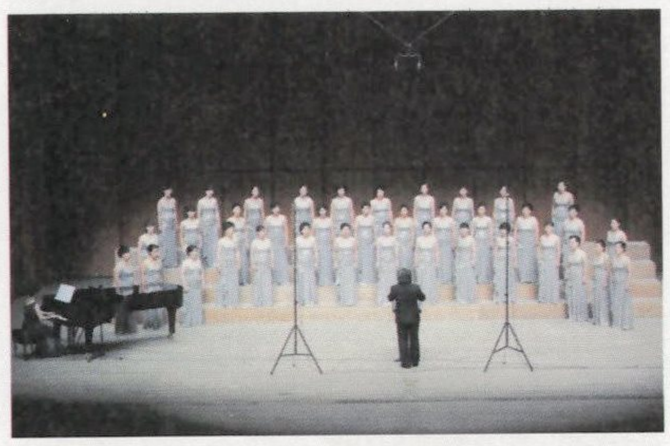
김성겸/지나가는 행인의 관찰일지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윤승환(010-2595-6700)

부산시 구, 군 여성연합합창단 제 8회 정기연주회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지역 각 구·군 여성합창단원 30명으로 구성된 구·군 연합합창단이 들려주는 제 8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돈 베이직/It's A Beautiful Day!

이주강(편곡)/Oh! Susanna

이수인/고향의 노래, 가시리

이현철/산유화

· 지휘/윤정윤 · 반주/이현주

■ 관람료 초대

■ 문 의 예금용(018-763-4798)

신라대학교 음악과 동문음악회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신라대학교 음악과 동문들이 학교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마련하는 동문한마음 음악축제.

피아니스트 김경출, 김해옥, 정안선, 김명선과 소프라노 신진범, 방미애, 박현정, 바이올리니스트 이라희 등 10명의 동문음악인과 금관 5중주, 동문 스트링 첼버오케스트라가 화합과 사랑의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김성태/동심초

이수인/내 맘의 강물

왕세광/장강의 노래(長江之歌)

이루마/Kiss the rain 등 수곡

출연

김경출, 김해옥, 정안선, 김명선, 박혜란(이상 피아노), 신진범, 방미애, 박현정(이상 소프라노), 이라희(바이올린)

· 교가연주/신라대동문 스트링 첼버오케스트라

· 금관5중주/김상효, 박종, 나용주, 윤종철, 송태진

■ 관람료 초대

■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코리아 색소폰앙상블 초청 김종환 색소폰 독주회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서울대학교 관악콩쿠르 중등부 1위, 연세대학교 관악콩쿠르 중등부 1위, 서울대학교 관악콩쿠르 고등부 1위를 차지한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김종환의 색소폰 독주회.

프로그램

이베르/Concertino Da Camera

고트코브스키/Brillance

즈넹/스페인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수곡

· 특별출연/문민영(피아니스트), 허민규(울산예고 2학년), 임한열(부산예고 3학년), 고다 료이치(선화예중 1학년)

■ 관람료 무료

■ 문 의 이성환(010-9873-5404)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천원의 행복'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장윤성 김혜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개관 기념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천원의 행복'.

지난 5월 부산문화회관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체결한 문화예술교류협약으로 10월 6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초청공연과 함께 추진된 이번 무대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개관기념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첫 교류연주회를 기념해 '천원의 행복' 무대로 부산시민들에게 화려한 클래식 선율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드보르작/카니발 서곡 작품 92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 2번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11번 사단조 작품 103

· 지휘/장윤성(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 피아노/김혜진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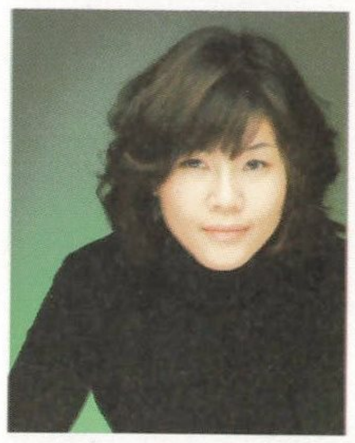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탄생 200주년을 맞은 '피아노의 시인' 쇼팽(1810-1849)의 삶을 재조명하며 쇼팽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련하는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26일과 11월 9일 이틀간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이틀간 쇼팽의 2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피아노 5중주로 편곡한 곡과 쇼팽의 주요 곡들을 들려준다.

첫째날인 10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안정된 테크닉, 열정적이며 강한 색채를 가진 피아니스트 이혜진이 협주곡 2번을, 둘째날인 11월 9일 금정문화회관에서는 중국의 피아니스트 제인 시가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프로그램

쇼팽/판타지 사단조 작품 49

쇼팽/피아노 5중주 Quintet Version 제 2번(피아노 협주곡 제 2번 편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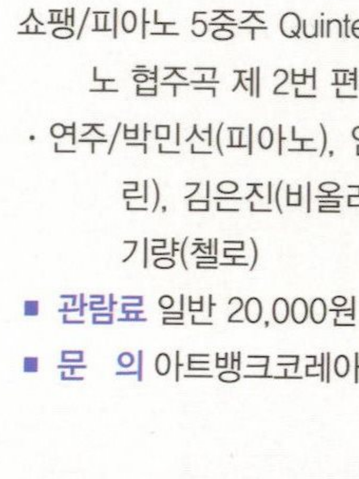
- 연주/박민선(피아노), 임가진, 박정선(바이올린), 김은진(비올라), 이혜진(피아노), 김기량(첼로)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남산놀이마당 타악 퍼포먼스 LINE OUT-일상을 연주하다, 일탈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8:00 소극장



두 달에 한번 마지막 주 수요일 부산 대연성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화장터 평화나눔 콘서트 10월 무대 '남산놀이마당 타악 퍼포먼스 무대'.

대북에서부터 서양의 다양한 퍼쿠션 악기들로 구성된 하이라이트 'LINE OUT'은 우리국악의 기본을 바탕에 두고 다양한 변화와 실험 끝에 이루어 낸 타악퍼포먼스로 일상의 모습(기쁨, 슬픔, 신남 등)을 표현한 퍼포먼스로 신명을 더해준다.

프로그램

대북의 울림, 기원(PRAY), 나른한 오후, Drum Line, Into the Busan, Dream of Busan, 특별게스트공연 X.T.C-팝핀준호, LINE OUT

- 출연/남산놀이마당 공연예술단 장재희, 임채련, 류재철, 박정회, 조대일, 한상훈 외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희진(016-378-099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솔로이스트들과 함께하는 가을의 풍경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혜경 장현석

가을의 서정을 담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솔로이스트들과 함께하는 가을의 풍경'.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을 지내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티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아름, 김민지, 정이아, 김수현과 플루티스트 이혜경, 비올리스트 장현석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바로크, 고전,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협주작품, 스페인 민족주의 대표작곡가 투리나의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비발디/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나단조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2번 라장조 작품 314

브루흐/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투리나/세비야 교향곡 작품 23

- 지휘/이동신
- 협연/한아름, 김민지, 정이아, 김수현(역대 청소년교향악단 악장), 이혜경(플루트, 단국대학교 교수), 장현석(비올라, 계명대학교 외래교수)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왕정희 무용단의 달오름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창작집단 '오름' 대표 왕정희의 '달' 시리즈 완결편 '달오름'.

2004년 솔로로 시작된 슬프도록 솔직했던 '달', 여성적 고백을 그린 '달의 제단'에 이어 선보이는 '달오름'은 자연과 인간, 만남과 나눔을 통한 성장을 담은 작품으로 달의 부드러운 곡선의 변화와 오름이 가진 봉긋한 능선의 아름다움을 맞물려 표현한다.

작품

프롤로그

1장 달과의 조우 2장 벗어남, 깨어짐

3장 오름, 웃음 4장 달오름 오르다

- 안무/왕정희 · 연출/강태욱
- 출연/이유리, 이정화, 김현정, 박정윤, 박유리, 왕정희

■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왕정희(010-7417-0506)

2010 부산합창제

10월 28일-29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의 합창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산 지역 15개 합창단들이 펼치는 2010 부산합창제.

참가단체

동구여성합창단(지휘/심정보)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센텀합창단(지휘/이칠성)
청솔합창단(지휘/강학윤)
CBS여성성가단(지휘/이외균)
대원불교대학 푸른합창단(지휘/이순희)
노래와 친구들(지휘/이순희)
빛나라합창단(지휘/이외균)
부산불교교육대학 합창단(지휘/이연화)
드림선교합창단(지휘/김정한)
미즈챔버콰이어(지휘/김정한)
부산사랑의 부부합창단(지휘/남화성)
단비올남성앙살블(지휘/강성철)
부산여성합창단(지휘/김명규)
노엘합창단(지휘/최성규)
부산시립합창단(지휘/김강규)

■ 관람료 무료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제 12회 원로음악회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최삼화 송용창

초창기 부산음악을 이끌어온 원로음악인들과 후배 음악인들이 함께 마련하는 원로음악회.

프로그램

최삼화/클라리넷을 위한 '독백'
부르흐/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사단조 작품 26
김국진/피아노를 위한 발라드 제 3번
박봉렬/클라리넷이 피아노를 만나다
홍난파/옛동산에 올라 등 수곡

· 연주/홍윤신(클라리넷), 김문희(소프라노), 박형태(테너), 송용창(아코디온), 제갈삼(피아노), 배종구(첼로), 백재진(바이올린), 유영욱(피아노), 오난숙(바이올린) 외
· 합창/단비올남성합창단(지휘/강성철)

■ 관람료 무료
■ 문 의 전이동(010-2705-0366)

제 23회 부산 청소년합창제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청소속 소년소녀합창단과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초등학교 합창단이 함께 펼치는 부산청소년합창제.

한국 전래 동요, 한국 민요, 이탈리아 민요 연곡 등을 들려준다.

참가단체

부산진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훈)
중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정호)
동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민수연)
용수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배현주)
명호초등학교 합창단(지휘/류지원)
용문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박지용)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 관람료 무료
■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

뮤즈콘서트콰이어 제 4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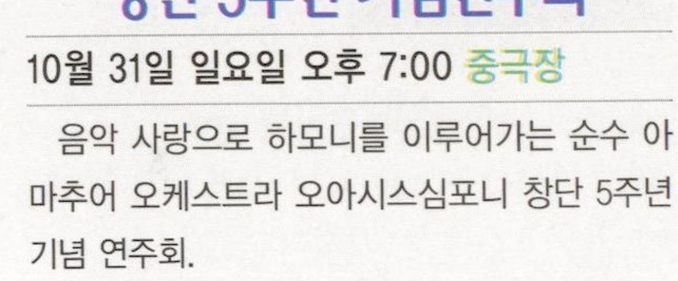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부산대학교 동아리 합창단의 동문합창단으로 출발한 뮤즈콘서트 콰이어 제 4회 정기연주회.

뮤즈콘서트콰이어는 2009년 6월 부산과 울산에서 모차르트 대관미사곡 전곡연주회로 아마추어 합창단의 수준을 한층 높여준 바 있다.

프로그램

마법의 성, 개구리와 올챙이, 내가 만일, 살짜기 옵서예, 새야새야 파랑새야, 그대는 내 사랑의



시(초연곡), 춤추는 춘향이 등 수곡
· 지휘/조현수 · 반주/박재나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추인수(019-503-9693)

오아시스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 5주년 기념연주회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음악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오아시스심포니 창단 5주년 기념 연주회.

직장인들로 구성된 오아시스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취미활동과 정서함양에서 나아가 봉사연주로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프로그램

비제/서곡 파랑돌
하이든/첼로 콘체르토 다 장조 1악장
베토벤/피아노 콘체르토 3번 다단조 1악장
슈베르트/미완성 교향곡 전악장

· 지휘/김상철
· 협연/전태경(첼로), 박홍준(피아노)

■ 관람료 무료
■ 문 의 진두찬(010-5165-5363)



MUSIC

해외 피아노 거장 초청 시리즈
시월愛 피아노
– 히로코 나카무라, 존 오코너 –

10월 1일 금요일, 13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1일 히로코 나카무라 초청연주회

음악평론가 헤롤드 숀버그의 저서 '위대한 피아니스트'에 언급된 아시아 유일의 피아니스트인 히로코 나카무라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스카를라티/파스토랄과 카프리치오
베토벤/소나타 제 8번 다단조 작품 13 '열정' 등

▶13일 존 오코너 초청연주회

뛰어난 기교와 독특한 음색으로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존 오코너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8번 다단조 작품 13 '비창'
쇼팽/자장가 내림라장조 작품 57 등

- 관람료 VIP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3)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성민주 귀국 피아노 독주회

10월 3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이화여자대학교와 Mozarteum Internationale Sommerakademie,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수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성민주 독주회.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8:00 가톨릭센터 소극장

▶5일 4인의 피아니스트들이 선사하는 금빛선율

피아니스트 김승희, 최혜련, 김병기, 민강은이 초가을 서정에 어울리는 리스트,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의 아름다운 피아노곡을 들려준다.

▶12일 Trio RAZEM 순회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이미미, 첼리스트 김효진, 피아니스트 최지혜로 결성된 트리오 'RAZEM' 순회연주회. 'RAZEM'은 폴란드어로 '함께'라는 뜻이다.

▶19일 피아노 듀오의 밤

부산대학교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한 박재명과 부산대학교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 음대를 졸업한 장효진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26일 화요음악회 200회 특집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초청연주회'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초청연주회로 마련되는 화요음악회 200회 특집무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5일 이경애 가야금독주회

부산대학교 국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이수자로 있는 이경애의 가야금 독주회.

▶12일 박숙영의 춤



부산대학교 무용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으로 있는 박숙영의 춤.

박숙영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 처용무 전수자로 우리춤의 맥을 잇고 있다.

▶19일 신희재 세 번째 대금독주회 '관악영상회상'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대금앙상블 '자연+스러퓸' 동인으로 있는 신희재 대금독주회.

▶26일 GM의 '자연스러韻'

우리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창작, 드라마틱하면서도 색채감 넘치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GM의 무대.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38)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테마 콘서트 Ⅳ
브람스를 만나다

10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신포니에타 수석으로 활동주인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테마콘서트. 가을과 잘 어울리는 브람스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진성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예솔기획(0505-700-9798)

제 47회 향신회 정기발표회
젊은 작곡가의 밤

10월 5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지역 음악학과 졸업생과 재학생 중 부산 창작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작곡가 8명의 창작곡을 선보인다.

· 작곡/이지희, 윤지현, 황선영, 문현주, 박경민, 김정진, 윤은혜, 박두진

- 관람료 초대
- 문 의 Design Aone(010-2338-5800)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6일 '3人 3色' 성악음악회

울산시립합창단 단원인 테너 정필윤과 동의대학교 교수인 바리톤 함도관, 경남 이마에스트리 대표 장재석이 들려주는 '3인 3색' 무대.

· 특별출연/함정미(바이올린)

▶13일 조혜운 바이올린 독주회

창원시립교향악단과 '조이 오브 스트링' 수석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독주회.

· 피아노/신지아 · 클래식기타/고충진

▶20일 부산은파앙상블 연주회

플루티스트 이상창을 주축으로 음악전공자들로 결성된 부산은파앙상블 무대.

▶27일 조미혜의 소중한 음악이야기 1st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동대학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혜미 초청독주회.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일파가야금합주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10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1996년 창단 후 전통음악 계승과 새로운 창작곡 발표, 악기개량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일파가야금합주단(단장 장혜숙)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대학교 황의종교수의 해설로 가야금선율과 마술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 해금/정은경 · 마술/고재영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장혜숙(582-9119, 017-544-5505)

창단 15주년 기념 비르투오조 앙상블 연주회

10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일본 사가현 연주,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비르투오조 앙상블 창단 15주년 기념무대.

· 연주/백재진(바이올린), 김도경(바이올린), 김은진(비올라), 정준수(첼로)
· 특별출연/이임수(클라리넷), 윤정아(피아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 의 백재진(010-2884-8729)

주윤정 거문고 독주회

10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한양대학교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 단원, 한국거문고앙상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윤정 거문고 독주회.

· 여창/이아미
▪ 관람료 초대
▪ 문 의 주윤정(811-0041)

부산신포니에타 제 71회 정기연주회

10월 9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김영희 심어라

1986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 탄탄한 연주실력을 선보여온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라장조
하이든/첼로협주곡 라장조 등

· 리더/김영희 · 협연/심어라(첼로)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 문 의 김영희(010-8519-0448)

토요해피콘서트

10월 9일 토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9일 타악앙상블 연주회

마림바, 실로폰, 그린켄슈필, 라틴퍼쿠션 등 다양한 타악기가 빚어내는 흥겨운 앙상블 무대.

▶23일 4크라베이스 연주회

4대의 클라리넷과 더블베이스가 어우러지는

창업 55 주년
(1955년 2월 1일)
문우당서점 지도센터
에서 연구 개발하여 획득한 세계지도 발명특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 나온 세계지도입니다
이 세계지도는 문우당서점에서만 판매하나, 서점, 문구점에서 판매를 원하시면 도매합니다
(소매가격 ₩7,000)
전화 241-5555(대표)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센터!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Since 1955
문우당서점
각층일부안내
3층 해사도서 기술전문서적 국정교과서
4층 경제경영일반,
5층 서고, 컴퓨터 관리실
지하1층 문학, 청소년, 만화, 여성도서
각층일부안내
2층 각종지도 각종외국어서적 각종사전
6층 국산지구본 수입지구본 소·중·대형
1층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몰 건너편]
각 종 공 연 예 매 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서정적인 무대로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OST와 팝송 등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2010 제 3회 김해국제음악제
쇼팽과 슈만의 음악세계

10월 9일(토)-16일(토)
김해문화의 전당,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탄생 200주년을 맞은 쇼팽과 슈만, 두 작곡가의 음악세계로 마련되는 제 3회 김해국제음악제.

▶9일(토) 오후 5:00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
오프닝콘서트 'Severin von Eckardstein 독주회'

2009년 김해국제음악제를 통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Severin von Eckardstein 초청무대.

▶12일(화) 오후 7:30 김해문화의 전당 누리홀
우수신인음악회

▶14일(목) 오후 7:30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슈만 가곡의 밤

슈만콩쿠르 우승자 바리톤 정록기가 가을의 정취와 어울리는 슈만의 아름다운 가곡 '시인의 사랑', '케르너에 의한 가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미주

▶15일(금) 오후 7:30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슈만 피아노 소나타의 밤

슈만콩쿠르 우승자인 Kiai Nara(도쿄 쿠니타치 음대 교수)와 피아니스트 최경아가 슈만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들려준다.

▶16일(토) 오후 5:00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
피날레 콘서트

독일 베를린음대 교수인 피아니스트 Klaus Hellwig와 피아니스트 이미주의 듀오무대와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복수, 이리나, 비올리스트 김가영, 첼리스트 양욱진, 피아니스트 노경원의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 문 의 김해국제음악제(055-320-3861, homepage.inje.ac.kr/~gimf)

제 10회 글로빌전국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 초청연주회

10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글로빌아트홀

제 10회 글로빌전국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차세대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입상자 초청연주회.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테마가 있는 브런치 콘서트 2nd.
베토벤씨, 커피 한잔 할까요?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브런치 콘서트 10월 무대.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펠리체 콘서트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중인 성악가들로 결성된 'vita FELICE'의 무대. '펠리체(FELICE)'는 이태리어로 '행복'을 뜻하며,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무대를 열어왔다.

· 출연/소프라노 김현주, 구현진, 엄말영,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우원석, 황성학, 바리톤 김대성, 베이스 정용욱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김대성(010-3218-6804)

제 6회 창작관악곡연주회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대강당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예원여자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등 부산지역 4개 고등학교와 일본 나가사키현립 가미쓰시마고등학교 관악단, 동성Dream윈드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6회 창작관악곡연주회.

해운대 장산의 봄풍경을 담은 작곡가 김종태



동성드림윈드오케스트라

의 '브라스밴드를 위한 장산의 봄'과 지나온 삶의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 김태훈의 '내 삶의 초상화들' 등 창작관악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3,000원
- 문 의 전이동(010-2705-0366)

제 4회 소프라노 최선희 독창회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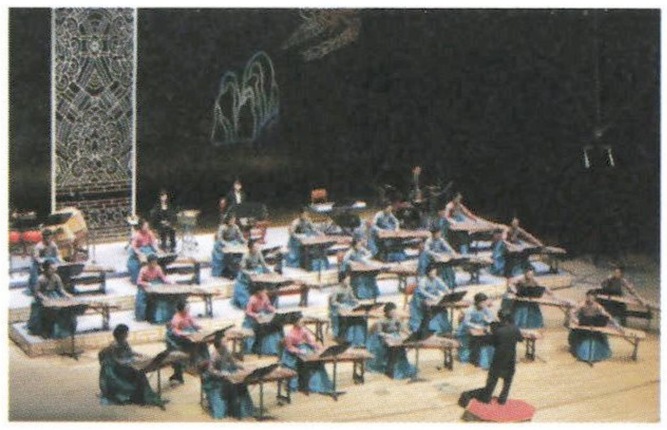
경성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All Together 중창단 리더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최선희 독창회.

· 해설/오동주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우리아트(010-5555-3925)

제 6회 부산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부산이야기 靑 興 動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주축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악기인 가야금의 매력을 전해주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의 6번째 정기연주회.

· 특별출연/통잉(童瑩, 비파), 웅산(재즈가수), 윤중강(국악평론가)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부산가야금연주단(010-6575-7968)

제 1113회 MBC목요음악회 김영미 러브 콘서트
-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오페라 '춘희' '리골레토' '라보엠'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소프라노 김영미와 부산의 중견 성악가들이 함께 들려주는 제 1113회 MBC목요음악회.

· 출연/소프라노 김영미(고신대학교 교수), 김유진, 김나영, 김현주, 박연경, 테너 김지호, 조윤환, 우원석, 송승민, 바리톤 조현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 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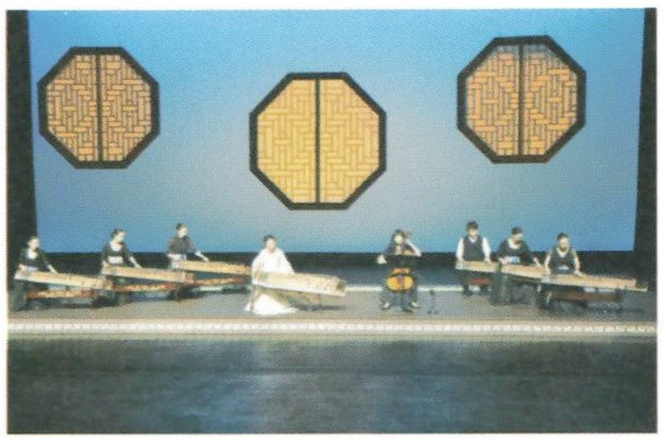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과 영화OST, 가요, 팝송 등을 국악연주로 들려주는 퓨전무대.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부산거문고악회 제 2회 정기연주회 거문고, 학을 부르다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대학교 권은영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거문고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거문고악회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 특별출연/장선희(학춤), 정선희(판소리), 신호수(고수)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권은영(510-2941, 010-7507-9385)

제 7회 렉쳐 콘서트 미메시스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하서경, 이지선, 김소희, 김일주, 이성애, 홍은아가 들려주는 렉쳐콘서트 7번째 무대.

프로그램
멘델스존/'새의 카탈로그' 중 '노랑머리 꾀꼬리'
림스키 코르사코프/왕벌의 비행 등

· 해설/하해경 · 특별출연/장예지(플루트)
- 관람료 초대
- 문 의 하서경(010-7309-4904)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지난 1998년 부산지역 청소년들로 결성된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11번째 정기연주회.
- 관람료 무료
- 문 의 이재숙(010-6552-2989)

부산작곡마당 2010년 특별기획공연 우리의 민요, 세계와 만나다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우리나라 토속민요를 클래식과 재즈, 국악앙상블, 합창곡 등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해온 부산작곡마당의 창작곡 발표무대.

프로그램
오세일/가야금독주 'Monologue'
백현주/늴리리 타령, 바다에서 은빛꿈을 꾸다
신동일/홍성 논둑가래질소리에 의한 환상곡 등

· 작곡/오세일, 백현주, 이용주, 신동일, 이종찬, 김정희, 정보형
· 연주/작곡마당 국악연주팀 '오랍뜰', 해피앙상블, 경원대 현악4중주
- 관람료 무료
- 문 의 백현주(010-4585-2052)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 오디션에서 합격 사례) 피아노:송정민(이스트만음대전액장학생), 엄유정 (택사스 어스틴 음대) 첼로:김미나(줄리어드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부산CBS 창립 51주년 기념공연
3 Diva 뮤지컬 갈라콘서트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1989년 데뷔 후 한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디바로 자리매김 해온 최정원과 뮤지컬 '맘마미아'의 헤로인 박해미, TV와 영화까지 활동영역을 넓혀가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홍지민 등 한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스타 3인방의 뮤지컬 갈라무대.

- 관람료 초대
- 문 의 부산CBS(636-0050)

부산신포니에타 청소년 협주곡의 밤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신포니에타와 차세대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지휘/백진현
- 출연/백나경(부산대 3년), 진건혜(부산예고 2년), 최경아(부산예고 2년), 박서영(백양중 2년), 백진주(부산예중 1년), 김보민(해송초등 6년), 이수현(분포초등 6년)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영희(010-8519-044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제 34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0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연주기량이 우수한 청소년들을 발굴, 연주기회를 제공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4회 청소년 협연의 밤.

프로그램

김희조(편곡)/서용석류 대금산조와 관현악을 위한 산조

정대석/거문고협주곡 '달무리'

정동희/가야금협주곡 '찬기파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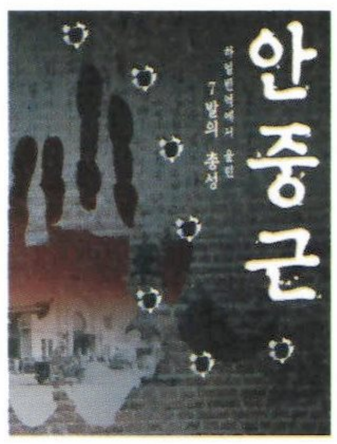
강상구/해금협주곡 '세상풍경' 등

- 지휘/김철호(수석지휘자)
- 협연/이현경(대금, 부산대학교 3년), 김아람(거문고, 부산대학교 4년), 정진(가야금, 경북대학교 4년), 최유리(해금, 부산대학교 대학원 재학), 김태현(꽹과리, 원광디지털대 3년), 권보름(장구, 동국대학교 4년), 이경희(징, 경상대학교 4년), 권두솔(북, 부산대학교 2년)

- 관람료 초대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창극 안중근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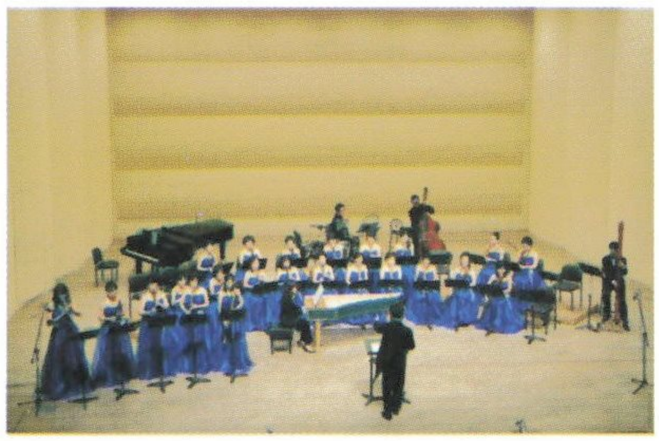
민족독립을 위해 순국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재조명한 광주시립국극단 창극 '안중근'.

- 예술총감독/송순섭

- 관람료 초대
- 문 의 광주시립국극단(062-526-0363)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제 21회 정기연주회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89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코더 음악의 저변 확대에 힘써온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정기연주회.

- 특별출연/양욱진(첼로)

- 관람료 초대
- 문 의 박화순(010-7235-7572)

김기자의 동초제 심청가
완창 발표회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1:00 시민회관 소극장



현재 부산, 경남 동초제판소리연구회 이사로 있는 김기자는 부산국악대전, 진주개천예술제 전국국악대전, 진해국악대전에서 입상한 바 있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현(010-2044-6236)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국립 타타르스탄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10월 24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1966년 창단 이후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순회연주회를 통해 러시아를 대표하는 악단으로 자리매김한 국립 타타르스탄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무대.

현재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노태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심포니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지와 소프라노 정윤주가 협연한다.

- 지휘/노태철
- 협연/김유지(바이올린), 정윤주(소프라노)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문 의 경향신문 부산지사(462-7071)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2010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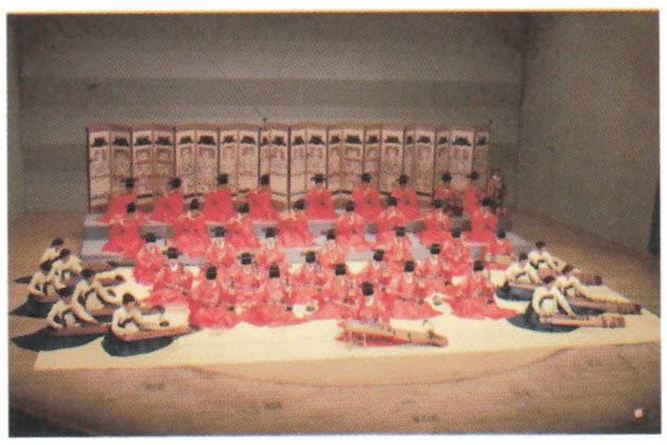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무대를 통해 우리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예타래의 2010년도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정세윤/아카펠라 '밀양아리랑' '군밤타령'(초연)
조익래(편곡)/프론티어
이경섭/해금협주곡 '추상'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최지환(010-7676-9124)

창립 24주년 제 16회 어울림 정기연주회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1986년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결성된 어울림국악연구회의 16번째 정기연주회.

관현악합주, 독주, 세악, 제주 등으로 들려주는 정악연주를 통해 정악의 이해를 돕는다.

- 찬조출연/한국소년소녀정가단

- 관람료 무료
- 문 의 조수용(010-4544-4991)

부산반주연주회 창단연주회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국내외에서 반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반주 전공 피아니스트 20명으로 결성된 부산반주연주회(회장 박미은) 창단연주회.

- 출연/공소현, 정금련, 김성희, 박미은, 김성희, 윤민화, 최민경, 류승은(피아노), 바이올린(김성은), 박현영, 이명진(첼로), 손기영(클라리넷), 윤태준(바순), 이윤정, 허미경(소프라노), 한현미(메조소프라노), 강경원(바리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박미은(019-583-4141)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 초청공연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지난 1989년 창단 후 유려한 선율과 깊이있는 음색으로 세계무대에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아온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 초청무대.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란' 서곡 라장조
하이든/교향곡 제 45번 올림바단조 '고별' 등

- 지휘/게오르게 무스테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주)프로아트(02-585-2934~6)

제 13회 MiOT 정기연주회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현대음악 연구모임인 MiOT(Music in Our Time, 우리시대음악)의 13번째 정기연주회.

'여성작곡가 포럼' 두 번째 무대로, 작곡가 양성남, 김정욱, 조인선, 홍신주, 강영화, 서경선의 창작 실내악곡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양성남/침묵으로
조인선/첼로 독주를 위한 '연'
강영화/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공존' 등

- 관람료 무료
- 문 의 강순희(701-1584, 018-566-1584)

부산교사오케스트라 제 15회 정기연주회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5년 부산지역 교사들로 결성된 부산교사오케스트라의 15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김진연(부산대학교 교수)

- 관람료 무료
- 문 의 박주칠(010-5800-7646)

창립 65주년 기념 YMCA 생명평화음악회 재즈와 클래식의 만남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생명, 평화, 하나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활동을 펼쳐온 부산YMCA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마련한 생명평화음악회.

YMCA 부산오페라합창단과 YMCA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준재즈밴드가 출연해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무료
- 문 의 부산YMCA(440-3357)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를 주축으로 부산의 정상급 현악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체임버오케스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임병원 김가영

트라 초청연주회.

- 리더, 협연/임병원(바이올린)
- 협연/김가영(비올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관람료 균일 10,000원(누리회원 1,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하재원(하지행) 해금독주회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활동중인 해금주자 하재원이 동래줄풍류와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하재원(010-7230-1123)

제 34회 글로빌 행복음악회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글로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복음악회.

- 출연/송미향, 박미경(성악), 정창현(피아노), 구자봉(톱연주), Sola Fide 남성중창단, 스킷 드라마, 샬롬여성중창단

▪ 관람료 자율(청소년 장학기금으로 사용)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제 3회 여음회 정기연주회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의대학교 박선혜 교수를 중심으로 그동안 학구적인 자세로 고전 레퍼토리에서부터 현대 창작곡, 탱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선보여 온 여음회 정기연주회.

- 찬조출연/하소연(바이올린), 김유미(첼로)
- 연주/정연희, 김소연, 최은실, 안진숙, 박선혜, 서숙지, 이소영, 김경표, 김남숙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최은실(010-3304-5154)

문금자의 정가 여섯 번째 공연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가사 이수자, 한국소년소녀정가단 단장 문금자의 정가 무대.

12가사 전곡 연주회 마지막 무대로 어부사와 죽지사, 권주가를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문금자(019-559-6119)

PLAY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

7월 15일(목)-10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수녀들의 포복절도 이색공연이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 관람료 균일 35,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호민의 모노드라마 닭잡아 먹고 오리발

7월 16일(금)-10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오늘을 살아가는 나약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려낸 극단 아센 대표 호민의 모노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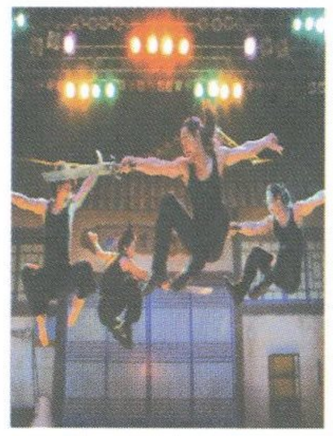
- 작/김문홍 · 연출/구민주, 최성우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미리내소극장(1600-1716)

2010 점프 부산

9월 1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해운대 그랜드호텔 B1)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744-4885)

유순웅 1인극 염쟁이 유씨

9월 16일(목)-10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23일 오후 3:00, 6:00, 21일-22일.월요일 공연없음)



우리전통의 장례문화를 소재로,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성과 소중함을 감동적으로 풀어낸 유순웅 1인극 '염쟁이 유씨'.

- 작/김인경
- 연출/위성신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연극 싸움터의 산책

9월 24일(금)–10월 9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월요일, 9/22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전쟁의 공포와 한 가족의 즐거운 소풍을 대비시킨 반전적 내용의 풍자극 '싸움터의 산책'.

· 작/페르난도 아라발 · 연출/김만중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30% 할인, 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9월 30일(목)–10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사랑과 혁명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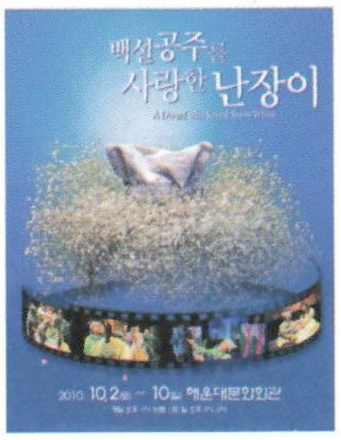


몸으로 만들어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대사로, 아카펠라와 탭댄스로 음악을 완성하는 카툰뮤지컬.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 (1600–1602)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0월 2일(토)–1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 해운대문화회관



백설공주를 사랑했던 일곱 번째 난장이 반달이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 원작/서광현

· 작, 연출/박승걸

- 관람료 R석 33,000원 A석 22,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5)

보잉보잉 2탄

10월 1일(금)–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솜사탕아트홀

결혼을 하고도 정신을 못차린 주인공의 인생 최대 위기를 더욱 강력해진 웃음코드로 그려낸 코미디극 '보잉보잉 2탄'.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솜사탕아트홀(922–4545)

어린이뮤지컬 공주님의 달

10월 5일–6일 목–금요일 오전 10:10, 11:2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이야기꾼 요정들의 춤과 연주로 들려주는 동화 속 여행.

- 관람료 균일 12,000원 (예매 필수, 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DUBU기획(02–2654–6854)

유럽 전통 마리오네트 목각인형콘서트

10월 7일–8일 목–금요일 오전 10:10, 11:2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1일–22일 목–금요일 오전 10:10, 11:2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연극대학 인형극학과에서 마리오네트를 공부하고 귀국한 인형극 연출가 김종구의 정통 마리오네트 공연.

· 작, 연출/김종구

- 관람료 균일 15,000원 (예매 필수, 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DUBU기획(02–2654–6854)

가족뮤지컬 못말리는 베토벤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9일 토요일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21세기 미래에 나타난 어린 베토벤의 좌충우돌 모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그려낸 가족뮤지컬.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문 의 (주)러브아트ENT(1661–1476)

햄버거 마왕과 깍두기 왕자

10월 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시민회관 대극장

어린이들에게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와 바른 먹거리문화를 알리는 어린이 창작뮤지컬.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10월 14일–15일 목–금요일 오전 10:30, 11:40, 16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어린이들의 성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과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라일락향기(1661–0577)

동물뮤지컬 원숭이와 동물 친구들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7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원숭이, 패럿, 기니피그, 앵무새 등 살아있는 동물들의 묘기가 펼쳐지는 동물 뮤지컬.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7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죽음을 앞둔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는 작품. 배우 정애리, 송옥숙이 죽음을 눈앞에 둔 엄마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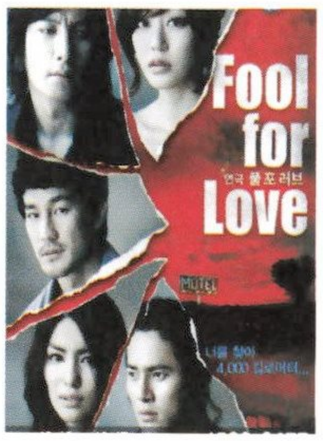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문 의 뉴페이스컴(1644–4868)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풀 포 러브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7일 일요일 오후 3:00, 6:00 MBC롯데아트홀



이복남매라는 치명적 사랑의 굴레에서 발버둥치는 두 남녀의 치열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박건형, 한정수, 조동혁, 김효진, 김정화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문 의 에스제이 이엔티(1588-8477)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00, 4:30,
17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홀

지구를 지키는 다섯 명의 용사 파워레인저들의 용감한 활약상을 그린 액션라이브쇼.

-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A석 25,000원
- 문 의 ㈜WSM(1600-1716)

2010 젊은 공연 예술축제
이번 生은 감당하기 힘들어

10월 20일(수)-3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대학 기생충학 연구실을 배경으로, 인생과 생명, 사회문제를 은유적으로 풀어낸 창작극.

· 연출/김한내
· 출연/홍우진, 한선영, 백길성, 이정비, 조재호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가족뮤지컬 장화신은 고양이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31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꾀많은 고양이의 도움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 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0월 30일(토)-11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병원에서 흔적없이 사라진 하반신 마비 환자 최병호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추리극과 같은 흥미로운 구성 속에 감동을 전해주는 창작 뮤지컬.

· 작, 연출/장유정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DANCE

2010 제 1회 댄스콜래보레이션

10월 4일(월), 6일(수), 8일(금) 오후 8:00
소극장 지하철 6번출구
10일(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한국을 대표하는 명무들의 전통춤과 그 춤을 모티브로 한 창작춤을 함께 선보이는 제 1회 댄스콜래보레이션.

▶4일(월), 6일(수), 8일(금) 젊은 춤길 솔리스트전
· 4일 신지현, 임선희, 조유섭, 안주현
· 6일 허종원, 한지은, 신승민, 김현정
· 8일 박지숙, 임병우, 안태영, 한수정
▶10일(일) 콜래보레이션

프로그램

태평무(춤/이현자 ·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후보)
춘앵무(춤/이흥구 ·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창작무 '롱(弄)-효명세자를 위한 샤콘느'(춤/강미리할무용단)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 문 의 (사)부산문화예술진흥회(818-0942)

김진홍의 男風流 '心香'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6: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인간문화재 이매방 선생의 뒤를 잇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춤꾼 김진홍 선생과 동시대 함께 활동한 남성 명인, 명무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프로그램

승무(춤/채상묵), 허튼살풀이춤(춤/임이조), 아쟁산조(아쟁/박대성), 정인방류 대감놀이(춤/최선), 한량무(춤/조홍동), 지전춤(춤/김진홍), 대금산조(대금/이생강), 훈련대장무(춤/송준영), 살풀이(춤/정재만)

· 사회/최종민(동국대학교 교수)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갑용(010-8912-4881)

제 21회 대학무용제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신라대학교 등 부산지역 4개 대학 무용학과가 출연, 전통춤과 창작춤, 발레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인다.

작품

蓮亭 살 · 푸리-열세번째-(안무, 연출/이윤자 · 부산대학교 교수)
공간(안무/한은주 · 경성대학교 교수)
장미꽃의 왈츠(재안무/김복선 · 동아대학교 교수)
3개의 에피소드(안무/하정애 · 신라대학교 교수)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대학교 무용학과(510-1740)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제 3회 정기 기획공연

10월 28일–29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3번째 정기공연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부산, 경남지역의 민속춤을 선보인다.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CONCERT

목요미니콘서트 끌림 토크가 있는 추억여행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매주 셋째주 목요일 저녁 7080 가수들과 함께 하는 토크가 있는 추억여행.

10월에는 남성듀오가수 소리새가 출연한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재즈, 와인에 빠지다 21번째 콘서트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향긋한 와인과 달콤한 재즈가 함께하는 재즈 콘서트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월에는 일본 아코디언 트리오 'MADOKA playboys'가 관객들과 만난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무대공감(623–0678)

50회 특집 한낮의 유U;콘서트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7080세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유익종, 고병희, 소리새의 무대로 마련되는 한낮의 유콘서트 50회 특집무대.

-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500–5222)

EVENT

제 97회 시울림 시낭송회

10월 6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강미정, 김종미, 권애숙, 권정일, 노준옥, 김서련(소설가)
· 특별출연/테너 장진규 · 사회/한창옥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예강(010–5516–1867)

GALLERY

최광호 사진전 사진적 사색

8월 14일(토)–10월 31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윤송이 개인전 Mobius strip

9월 4일(토)–10월 31일(일) 크리스티나 갤러리

- 문 의 크리스티나 갤러리(744–1200)

부산–호치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베트남, 홍강에서 메콩강까지

9월 11일(토)–11월 14일(일) 부산박물관

- 문 의 부산박물관(610–7142)

박진성&권효민 초대전

9월 11일(토)–10월 3일(월) 갤러리예가

-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영국 현대미술전

9월 11일(토)–10월 31일(일) 조현화랑 부산

- 문 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쇼

9월 18일(토)–10월 31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표현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세계적인 천재 팝 아티스트 키스 해링 특별전.

-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2)

ARTIST★R 展

9월 24일(금)–10월 7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선의영 개인전

10월 1일(금)–10월 29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영광문화예술원 포트폴리오반 '징후적 풍경전'

10월 4일(월)–10월 10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허철 개인전

10월 15일(금)–10월 21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PPLC '인연'

10월 19일(화)–10월 24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김애경 개인전 섬진강 사계절과 하동의 참 멋

10월 26일(화)–10월 31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NEW MUSIC

문희정 _ 지엠뮤직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안젤라 휴이트

연주/안젤라 휴이트(피아노)

▶ 수록곡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Vol.3 – 12번 '장송', 6번, 27번, 14번 '월광'

안젤라 휴이트가 명품 피아노 파찌올리와 함께 창조적 행보를 계속해오고 있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의 3번째. 1집과 2집에서 작품번호나 연대순이 아닌 '열정'과 '비창' 등의 명작과 초기 수작들을 밸런스 있게 조합시키는 등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깊은 정성을 보여온 휴이트는 이번 3집 프로그램에서는 4곡이 각자 가지는 특징적 대비가 악성의 피아노 소나타의 진수를 잘 전달해 준다. 명쾌하면서도 지적이고, 우아하면서도 시적인 표현과 열정을 가진 휴이트의 베토벤은 마치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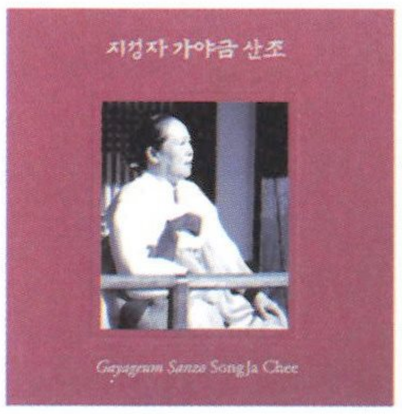
마이클 래빈의 잊혀진 유산을 찾아서

연주/마이클 래빈(바이올린)

▶ 수록곡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4번, 글라주노프: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고도프스키–하이페츠:옛 빈, 엥겔–짐발리스트:조가비, 멘델스존–하이페츠:무언가 작품 19–1, 프로코피에프–이자이:행진곡, 생상스–이자이:카프리스 비에냐프스키:폴로네이즈 브릴란테, 생상스: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파가니니:카프리스 9, 11, 16, 21번 외(2CDs)

비운의 천재, 마이클 래빈의 숨겨진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도레미 시리즈 3탄! 래빈의 디스코그래피에서 대단히 희귀한 모차르트 협주곡 4번, 쇨티와 함께 한 세계 초연 실황 연주인 크레스턴 협주곡 2번(1960년) 등 귀중한 연주가 다양하게 담겨 있다. 래빈 특유의 빛나는 테크닉과 모차르트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협주곡은 특히 강한 인상을 주며, 글라주노프 협주곡은 스튜디오 녹음과는 또 다른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감돈다. 벨텔레폰 아워 콘서트에서 연주한 다양한 소품은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연주로, 하이페츠를 연상케 하는 폭발적인 힘과 추진력이 훌륭하다. 16살 때의 소중한 실황 연주 기록도 담겨 있다.



지성자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가야금/지성자, 북/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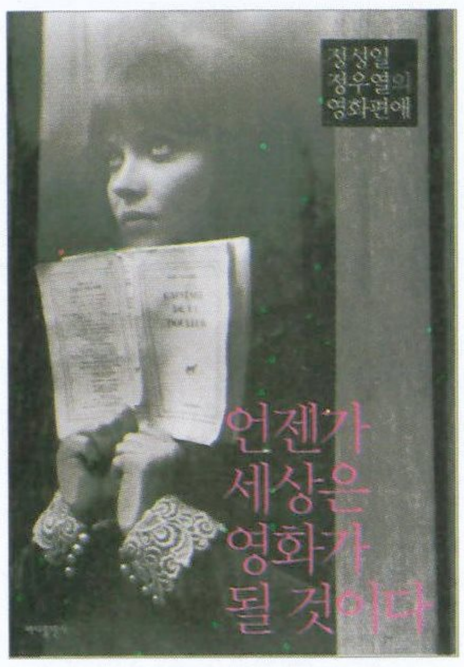
▶ 수록곡

다스름(01:49), 진양(35:41), 중모리(12:46), 중중모리(02:55), 굿거리(04:23), 자진모리(09:51), 휘모리(04:15), 엇모리(00:27)

악당이반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담은 슈퍼오디오 CD(Super Audio Compact Disc)를 국내최초로 제작하였다. 이번에 발매된 〈지성자 가야금산조〉 음반은 악당이반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SACD 다섯 타이틀(가야금/지성자, 가야금/추정현, 거문고/김준영, 북한단소/이동신, 아쟁/서영호) 중 하나의 음반이다. 연주는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전통한옥인 아름지기 함양한옥 안채에서 퓨어 레코딩(Pure Recording)이라 불리는 순수녹음 방식으로 아무런 기계적 변형없이 이루어졌다. 예순이 넘은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힘이 넘치는 연주로 명주실의 긴장감을 때로는 여리고, 때로는 강인한 성음으로 단 한번에 연주해 내려간 의미 깊은 음반이다.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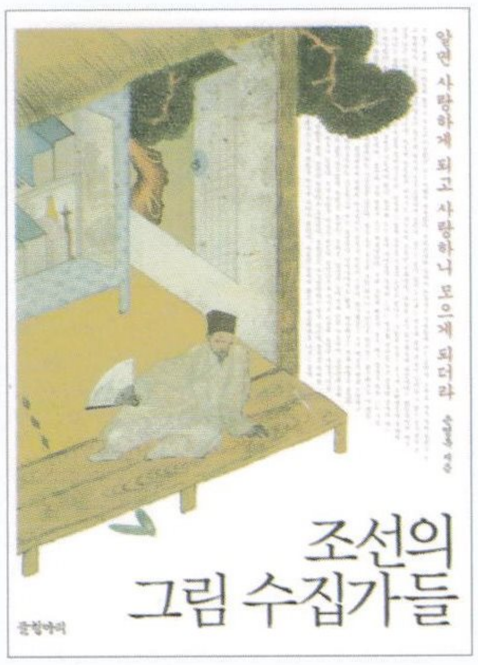
박현주 _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정성일 글, 정우열 카툰 · 일러스트
바다출판사 / 526p / 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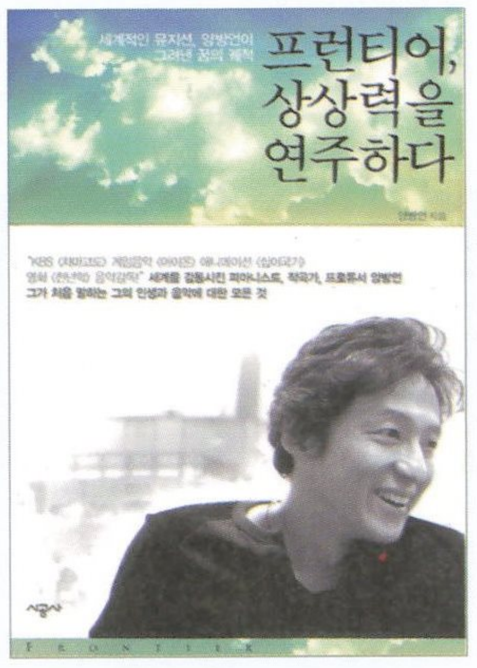
〈로드쇼〉와 〈키노〉의 편집장으로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시네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의 영화평론집. 정성일 씨를 일러 불치병과도 같은 영화 열병을 앓는 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책은 그 영화광의 사랑고백이다. 그는 초등 2학년 때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본 후 두 달 내리 낙타만 그렸고, 호금전의 '용문객잔'을 보곤 일주일 내내 극장에서 살았으며, 장철의 '심야의 결투'를 보고나선 수업을 몰래 빼먹고 영화를 보러 갔다. 고교 1학년 시절 프랑스문화원에서 장 뤽 고다르의 '기관총 부대'와 만난 게 영화와의 진정한 첫 만남이었다며 '1975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에 본' 이 작품을 그는 '내 청춘의 영화'라고 부른다. 이 책은 영화를 생각하는 '좌표', 세상을 경험하는 '감각', 영화로부터 구하는 '배움'에 관한 글 38편과 정성일이 올드독 정우열에게 보내는 '우정의 프롤로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의 제목인 '언제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란 문구는 철학자인 들뢰즈가 쓴 글에서 빌려 온 것이다. 정성일은 들뢰즈의 글과 생각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었고, 세상과 영화 사이의 배움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표했다.



조선의 그림 수집가들

손영옥 지음
글항아리 / 383p / 19,800원

그림 수집은 최근에 들어서야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분야인데, 조선시대에 이미 그림 컬렉터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과 미술에 대한 열정, 미술품 수집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조선의 그림 수집가들을 '서화 수장에 빠졌던 왕과 왕자들'과 '탐욕과 자족의 기로에 선 양반 컬렉터들' 그리고 '조선 후기를 뒤흔든 중인 컬렉터들'의 세 부류로 나누었다. 이들은 신분만큼이나 다양한 방법과 이유로 미술 수집과 미술 사랑을 실천했다. '몽유도원도'의 화가 안견을 발굴한 안평대군, 파격적 스타일의 서화를 즐긴 연산군, 자기 분수에 맞는 서화 모으기를 할 것을 강조했던 연암 박지원, 컬렉션으로 가산을 탕진한 양반 김광수, 중인 신분으로 당대 최고의 선비화가 윤두서의 감식안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광국 등 그림에 미쳤던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만날 수 있다. 조선시대 각계각층의 각별한 그림 사랑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과 미술에 대한 열정과 미술품 수집문화, 더불어 조선시대에 판쳤던 가짜 그림 논쟁, 조선시대 그림값에 대한 정보, 그림 감상을 할 때 빼놓지 말고 봐야 할 사항까지 다루었다.



프런티어 상상력을 연주하다

양방언 지음
시공사 / 360p / 12,000원(CD포함)

재일 한국인, 의사 출신 피아니스트, 크로스오버 뮤지션 등 다양한 수식어로 소개된 양방언 씨가 자기 자신의 삶과 창작활동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통해 예술가의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책. 양방언에게는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했던 그가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재일한국인이지만 냉대와 차별에 괴로워하기 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하길 원했던 어린 시절과 가족의 뜻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뤄야 할 의사의 길에서 결국 음악을 선택하기까지의 방황과 고민,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회한까지도 담담하면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음악 인생 30년, 한국 활동 10년을 맞은 그가 처음 책으로 펴내는 이 책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양방언이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의 한 인간으로서의 경쾌하지만 내밀한 성장과정을 담았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현재진행형이며, 쉰 살이 넘은 지금도 그의 꿈을 향한 동력은 여전히 부지런히 가동되고 있다.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수식어는 '멈추지 않은 꿈의 탐험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 고양, 대전 2010 전국순회연주회

10월 4일 대구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10월 5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10월 6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10월 4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이후 처음으로 대구, 고양, 대전 연주길에 오른다.

4월에 열린 2010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피날레 무대에서 전국의 음악애호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순회연주회를 통해 세계적인 지휘자 리 신차오와 함께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순회연주회에서는 세계 음악계에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피아니스트 애니 황이 협연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애니황이 협연하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을 비롯해 슈베르트다운 쾌활함과 명랑함이 느껴지는 슈베르트 '로자문데' 서곡, 브람스의 전원교향곡으로 불리는 브람스 교향곡 제 2번을 선곡, 아름다운 가을의 향연을 펼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순회연주회를 마치고 8일 같은 프로그램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개관 기념 첫 무대에 선다.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10월 공연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공연이 10월에도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10월에는 문화의 달을 맞아 열리는 사상 강변축제 등 지역축제에서 펼치는 내사랑 부산공연과 구덕초등학교, 가야고등학교 등에서 펼치는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농심 사상공장에서 펼치는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등 19개의 공연이 펼쳐진다.

10월 01일 (금) 10:40	구덕초등학교-꿈나무소망심기공연 '구덕초등학교와 함께'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0월 02일 (토) 18:00	삼락강변공원-내사랑부산공연 '사상강변축제 축하공연'	(출연/시립무용단)
10월 07일 (목) 10:00	강서실내체육관-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노인의 날 축하공연'	(출연/시립무용단)
10월 08일 (금) 15:30	벡스코-내사랑부산공연 '전국시장박람회 축하공연'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0월 09일 (토) 10:30	시청대강당-내사랑부산공연 '564돌 한글날 축하공연'	(출연/시립합창단)
10월 12일 (화) 16:00	성일여고-꿈나무소망심기공연 '성일여고와 함께'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13일 (수) 11:30	부산시민회관-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결혼이민자합동결혼식'	(출연/시립합창단)
10월 13일 (수) 12:30	부산시청 로비-내사랑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출연/시립합창단)
10월 13일 (수) 13:00	가야고-꿈나무소망심기공연 '가야고와 함께'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17일 (일) 18:00	코모도호텔-내사랑부산공연 'IAMU총회 축하공연'	(출연/국악관현악단, 무용단)
10월 20일 (수) 12:30	법원로비-내사랑부산공연 '법원로비콘서트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20일 (수) 15:00	농심사상공장-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농심근로자와 함께'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20일 (수) 18:00	사하삼성어린이집-꿈나무소망심기공연 '어린이들과 함께'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22일 (금) 15:00	유니온스틸-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유니온스틸 근로자들과 함께'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25일 (월) 15:00	광복기념관-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우리가락'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0월 26일 (화) 17:30	그랜드호텔-내사랑부산공연 '제 3회 여자 매치 레이스 요트대회 축하공연'	(출연/시립무용단)
10월 27일 (수) 12:30	부산시청 로비-내사랑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출연/시립무용단)
10월 28일 (목) 15:00	시민회관 소극장-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다문화가정과 함께'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0월 30일 (토) 19:00	화명도서관-내사랑부산공연 '북구토요놀이마당'	(출연/시립교향악단)

한낮의 유콘서트 '세빌리아의 결혼식'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식', 이 두 오페라가 같은 스토리에 작곡연대로 보면 앞뒤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너무 흥미로웠다. 게다가 소프라노 김유섬의 멋진 아리아에 전율까지 느껴졌다. 마지막 무대에 연주된 탱고음악인 '유칼리'는 처음 듣는 음악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에 연주회 마지막까지 행복했다.

– 이창희(수영구 망미동)

제 1회 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 1회 국제 음악제의 오프닝 연주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이번 연주회에 부산시향과 첼로의 엠마뉴엘 베르트랑과 클라리넷의 로망 귀요의 멋진 협연으로 가을의 길목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연주였다.다만 음악회보다는 개막 행사에 초점을 맞춘듯 한 진행이 너무 아쉬웠다. 제 1회이고 의미있는 개막연주회였다면 여타 정치인이나 부시장 등의 인사보다는 음악감독인 강동석의 무대인사와 음악회의 소개가 있었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 이영일(중구 영주동 1가)

유순웅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씨'

기대이상!! 유씨의 농담에 웃기도 하고 뼈있는 훈계의 말에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의 슬픔에 같이 울기도 하며 극 안에 희로애락을 다 담아낸 연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배우분이 연기를 어찌나 잘하시던지…실수로 쌀안가져 왔다는 부분에서 진짜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뒤로 들어가기 위한 훼이크였음을ㅋㅋ… 소품과 조명의 효과도 극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았다.

– 임유정(사하구 당리동)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가족오페라 '콩쥐팥쥐'

공연장으로 향하기 전부터 '콩쥐팥쥐'가 오페라로 어떻게 옷을 입었을지 무척 궁금했다. 그동안 우리아이가 본 '콩쥐팥쥐'는 순간 보기는 편한 가족뮤지컬 정도였으니 오페라 공연이라 걱정이 앞섰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가족오페라로 작곡된 아름다운 선율과 익살스러운 몇몇 장면들, 서툰 연기가 눈에 띄긴 했지만 방학동안 준비한 단원들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무대였다. 뮤지컬만 봐온 아들에게 오페라를 가르쳐준 귀한 시간이었다.

– 임은희(사하구 괴정4동)

2010 가을독서문화축제 열린BOOK콘서트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큰 기대 없이 나간 열린BOOK콘서트에서 가을의 선물을 한 아름 안고 돌아왔다. 국악연주와 시낭송, 바위섬의 가수 김원중의 무대, 연희단거리패의 '피가로 베이커리'까지 드넓게 펼쳐진 책속의 바다를 항해했다. 오랜만에 듣는 가수 김원중의 무대, 그의 노래로 다시 살아난 정호승 시인의 시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 정윤혜(북구 화명동)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오광대의 발상지

합천으로 떠난 9월 테마여행

이른 초가을의 서정을 느끼기 위해 떠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9월 테마여행지는 '푸른 숲 맑은 물 아름다운 고장' 합천. 그동안 54차례 테마여행이 진행됐지만 합천으로 떠나는 여행은 처음인지라 이번 여행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이른 아침, 테마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정기회원은 모두 42명. 일상을 뒤로 하고 떠나는 여행에 설렌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두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오광대'의 발상지인 합천 밤마리 마을. 아직도 '오광대'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고성이나, 통영, 가산 등을 먼저 떠올리지만 '오광대'의 기원은 엄연히 여기 밤마리이다. 예부터 밤나무가 많아 '밤마리'라 불렸던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마을 담벼락에 그려진 '오광대' 벽화가 이 곳이 '오광대' 마을임을 알려준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 이우열 씨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조선시대 중엽 이 곳 밤마리에 큰 홍수가 났을 때, 강을 따라 떠내려온 상자를 건져보니 그 안에 다섯 개의 탈과 광대의 옷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탈을 쓰고 광대옷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오광대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복원이 늦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합천밤마리오광대'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합천밤마리오광대축제'를 열어오고 있다.

이우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옛 밤마리 포구와 합천오광대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문화체험관 등 마을 곳곳을 돌아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다음 여행지인 합천박물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야시대 소국(小國)인 다라국의 지배자 묘역으로 알려진 옥전고분군의 출토유물을 만날 수 있는 합천박물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용봉문양고리자루큰칼과 금제귀걸이를 비롯한 각종 장신구 등 다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 35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을 둘러본 회원들은 바로 박물관 위쪽에 자리한 옥전고분군에도 들러 크고 작은 고분들이 줄지어 선 고분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른 출발로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간 곳은 이름도 재미나는 '합천하남양떡메마을'. 마을의 특산품인 양파, 떡가래, 메주에서 한글자씩 따온 '양떡메'마을은 떡가래와 메주, 손두부 만들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이다. 마을 어르신들이 손수 차린 된장국과 두부김치, 그리고 쫄깃한 절편까지 배불리 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식사 후 간단히 두부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기도 했다.









오후 일정은 합천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대야성에서 시작했다. 신라가 백제의 침공을 막기 위해 축성된 대야성은 지금은 거의 훼손되고 30m의 성벽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우열 해설사와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대야성 동쪽 산기슭에 세워진 '신라충신죽죽비(新羅忠臣竹竹碑)'. 선덕여왕 11년 백제가 침공 했을 때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한 신라 장수 죽죽(竹竹)을 기리는 유적비이다.

'죽죽'의 충절을 생각하며 도착한 다음 유적지는 '죽죽비'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함벽루'. 황강을 내려다보며 서있는 '함벽루'는 예전에는 함벽루 처마의 물이 황강으로 떨어졌다고 했으나 지금은 그저 그 정취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누각 뒤 석벽에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涵碧樓(함벽루)' 세 글자가 크고 또렷하게 새겨져 있으며, 누각 내부에도 퇴계 이황 선생과 남명 조식 선생의 글이 마주보며 나란히 걸려 있다.

9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여행지는 영화, 드라마 촬영장으로 유명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지난 2003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세트장으로 제작된 후 영화흥행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자 합천군에서 본격적으로 영상테마파크로 조성한 곳이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모던보이' 외에도 드라마 '서울 1945' '경성스캔들' '에덴의 동쪽' '제중원' 등이 이 곳에서 촬영됐다. 합천영상테마파크에는 폐허가 된 평양시가지를 비롯해 전차가 오가는 거리, 조선총독부, 경성역,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반도호텔, 파고다극장 등 1930~40년대 일제강점기의 경성시가지 모습과 1960~80년대 서울 소공동거리가 재현되어 있다.

합천영상테마파크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들이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회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 최윤희, 김현주 씨가 먼길을 달려와 준 것. 우선 음악회에 앞서 회원들은 영상테마파크를 둘러보며 과거로 추억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음악회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자리한 옛 영화관에서 열렸다. 비록 겉모습은 낡디 낡은 1960~70년대 영화관이지만 내부는 최신시설로 꾸며진 공연장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흥겨운 연주에 어느덧 흥이 오른 회원들의 손장단 사이로 어느새 하루 여행의 피곤이 달아난다.

풍요로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함께한 테마여행. 풍성한 가을걷이처럼 정기회원들의 마음에도 풍성한 양식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글, 사진/정복엽)

2010년 11월에는 **통영**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10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0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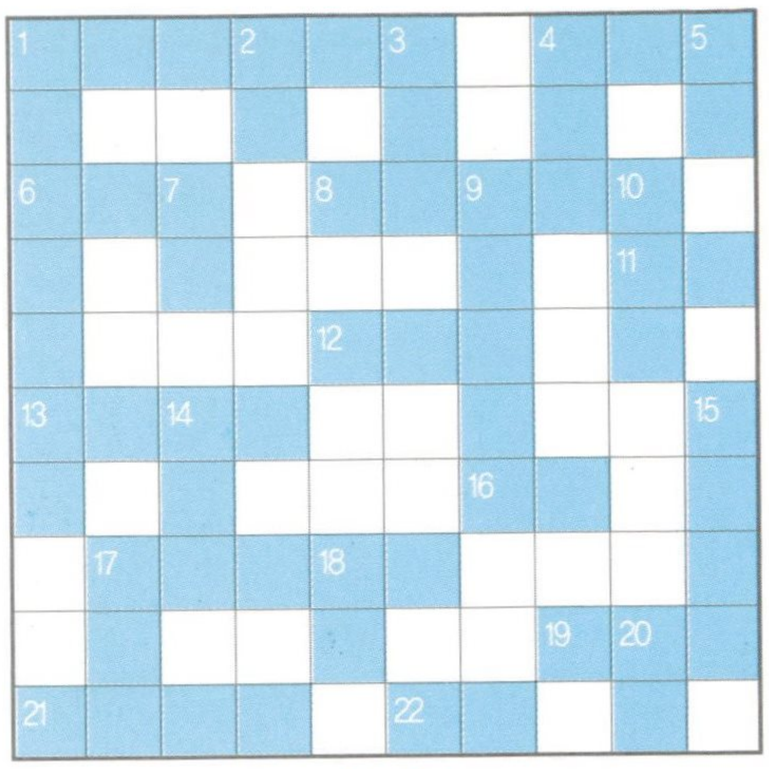
엽서당첨자

곽여진(북구 화명동)
김영란(연제구 연산9동)
김은경(남구 대연4동)
류기쁨(수영구 망미동)
민진팔(사하구 하단동)
박동희(연제구 거제동)
안혜정(북구 구포3동)
이호숙(사상구 모라1동)
장동원(연제구 연산5동)
정규나(금정구 장전동)

신규가입자

고시식(수영구 광안2동)
김강일(사하구 다대동)
김기남(부산진구 연지동)
김종근(영도구 신선동)
김호은(동래구 온천3동)
김희주(사하구 다대동)
신소희(남구 대연3동)
윤숙정(남구 문현3동)
장양애(서구 서대신동 3가)
정소영(해운대구 중2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1_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한 첨단멀티미디어 해상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회째 이어오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불꽃축제. 올해는 10월 21일부터 사흘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4_바로크 시대의 전형적인 독주 협주곡과 합주 협주곡의 형식을 확립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특히 합주 협주곡 '사계'는 표제음악의 표본으로 유명하다.

6_태권도를 관장하고 보급하기 위해 1972년 설립된 법인체.

8_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미군 병사와 베트남 여인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뮤지컬.

11_중앙 아메리카 카리브해 서부, 서인도 제도에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 수도는 아바나.

12_고대 중국에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장치.

13_섬진강 물길을 따라 모여든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 교류하던 장터. 해방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하나로 전국의 어느 시장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16_이만희의 희곡 '돌아서서 떠나라'가 원작으로, 여의사와 조직폭력배 두목의 가슴아픈 사랑이야기를 그린 김유진 감독, 박신양, 전도연 주연의 영화.

17_ 경상남도 고성지방에 전승되는 탈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로 총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9_1987년 소설 '상실의 시대'로 62만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일본의 소설가. 대표작으로 '슬픈 외국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해변의 카프카' '1Q84' 등이 있다.

21_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 부근에서 통영, 삼천포, 남해 등을 거쳐 전라남도 여수에 이르는 물길. 1968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2_작곡가 윤이상, 시인 유치환, 소설가 박경리, 화가 전혁림 등 곳곳에 예술가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도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1월 테마여행지.

세로열쇠

1_1996년 시작되어 올해로 15회를 맞는 국제영화제. 10월 7일 개막작인 장이모우 감독의 '산사나무 아래' 상영을 시작으로 15일까지 67개국 308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2_안면도에서 제일 큰 해수욕장. 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심, 맑고 깨끗한 바닷물, 알맞은 수온과 울창한 소나무숲으로 많은 피서객들로 붐빈다.

3_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천지의 모든 현상을 주재하고 인간 사회의 정치, 법률, 도덕을 지키는 존재이다.

4_힙합문화에 심취한, 그 중에서도 특히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는 남자를 일컫는다.

5_2007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중심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단체. 매년 순회연주회를 통해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_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아저씨'의 주연배우.

9_진정한 사랑의 비법을 전하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10월 15일과 16일 국립오페라단의 무대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0_19세기 프랑스의 형제 소설가로, 사후에 형인 에드몽의 유언에 따라 그들의 유산을 기금으로 사용해 프랑스의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인 'ㅇㅇㅇ상'이 설립됐다.

14_10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관객들과 만나는 대전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15_러시아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ㅇㅇㅇㅇ 발레단 초청 '백조의 호수'가 11월 5일과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7_동명왕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세운 나라. 광개토대왕 때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요동 지방까지 영유했으나, 668년 신라와 중국 당나라의 연합군에게 패해 멸망했다.

18_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조선 세조와 정희왕후의 능. 부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크낙새가 살고 있다. 사적 제197호.

20_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쓰이는 화폐 단위. '은'을 나타내는 산스크리트 '루피아'에서 유래됐다.

지난호 정답

부	산	마	루	국	제	음	악	제	
산		드		보		계		인	천
비	나	리			오			에	
엔		드	보	르	작		도	어	스
날	개		사		교	방			크
레		하	노	이			박	칼	린
	문		바			뤼			쿼
도	화	서			터	미	네	이	터
	대		팡			에		끼	
곡	학	아	세		베	르	디		촉

퍼즐당첨자 명단

▪ 부산은행 조은극장
강초롱(사상구 덕포 1동)
신은경(북구 만덕 1동)
안진영(사상구 학장동)
김민옥(수영구 망미동)
조은숙(양산시 평산동)

▪ 공간 소극장
안혜경(북구 구포 3동)
이서연(금정구 금사동)
이승범(금정구 서 2동)
정화애(연제구 거제 1동)
최복자(동래구 안락 2동)

▪ 나랏소
김나혜(수영구 망미 1동)
백종순(연제구 연산 6동)
성순복(남구 대연 6동)
이재혁(부산진구 양정동)
정은경(동래구 온천 1동)

▪ 큰집
백민재(동래구 낙민동)
조남규(부산진구 연지동)
최경연(수영구 광안 2동)
최성숙(금정구 부곡 4동)
하윤자(서구 동대신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나랏소 한우
한우 숯불구이 공방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0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정신혜무용단 '춤, 世代共感'



2010 정신혜무용단의 두 번째 기획 공연 '춤, 世代共感'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아우르는 춤의 향기를 담고 있다. 10대의 풋풋한 풀내음으로부터 인생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춤의 대가(大加)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어서는 공감의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굿거리 춤(춤/김유경)
소고춤(춤/유은미)
화선무(춤/박미향)
검무(춤/정신혜)
살풀이춤(춤/이민아)
승무(특별출연/정말숙)
태평무(특별출연/이명자)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함녕지곡(집박/유경조·대금/강영진, 엄익준, 강은주·소금/손한별·피리/김용우, 강영현, 김현주·해금/성기만, 최윤정, 이은주·아쟁/권혜정, 홍영혜·장구/이장우·좌고/송강수) 궁중의 경사스러운 날 연주하던 음악으로 본래의 곡명 표정만장지곡을 축소하여 만든 장엄한 곡이다.

가야금산조(가야금/김혜진·장구/이장우)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세련되고 깊이가 있는 산조로서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판소리(판소리/정선희·고수/신문범) 소리(창), 아니리(독백), 발림(몸짓)으로 구성되는 극적음악이다.

대풍류(대금/최재호·피리/박영은, 진형준·해금/방병원·장구/송강수·좌고/최오성) 승무나, 무속무용, 탈춤 등에 쓰이는 반주음악들을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시나위(대금/채수만·피리/정주아·해금/방병원·아쟁/박일·가야금/송영남·거문고/오상훈·장구/전학수·징/이주헌) 무속음악에서 나온 즉흥성이 강한 기악곡으로 제각기 다른 선율진행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 악장/유경조 · 해설/백규진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남성성악앙상블 4+1 연주회



테너 서명보, 김지호, 김동국, 오동주와 베이스 권영준이 활동하고 있는 남성성악앙상블 4+1 연주회.

프로그램

Ten. 김동국 Opera TOSCA 중 E lucevan le stelle
Ten. 오동주 Tu ca nun chiagne
앙상블 Nella Fantasia, You raise me up, Con te partiro
Ten. 김지호 박연폭포
Ten. 서명보 거문도 뱃노래
앙상블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향수, 경복궁 타령
Bass. 권영준 IL BARBIERE 야 SIVIGLIA 중 La Calunia
앙상블 Torna Sorento, O sole mio, Funiculli Funiculla
· 트럼펫/한상훈 · 피아노/최혜련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5중주 '펠리체앙상블' 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중 제 1악장
가르델 간발의 차(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
엘가 사랑의 인사
슈트라우스 형제(요한 2세 & 요제프) 피치카토 폴카 작품 234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 8 중 '가을', 제1악장 & 제 3악장
비숍 즐거운 나의 집
하이드리히 생일 축하 변주곡
맥린 차르다시
· 연주/Violin I. 이상진, Violin II. 우소라, Viola. 홍영선, Cello. 서송은, Doublebass. 윤강희

• 관람료 : 선착순 무료 입장(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윤이상 기념관

▶ 11월 12일 (금) 통영문화 예술기행

가을 빛으로 물든 한려수도의 심장 통영으로 떠나는 문화예술기행.
작곡가 윤이상, 시인 유치환, 김상옥, 김춘수, 극작가 유치진, 소설가 박경리, 화가 전혁림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통영도착, 청마문학관, 동피랑 벽화골목,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 12:00 중식
▷ 13:00 박경리 생가, 김상옥생가, 윤이상 생가 등 탐방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포로수용소

▶ 12월 10일 (금) 한려수도의 중심 거제도 겨울여행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완공으로 부산과 한층 더 가까워진 아름다운 섬 거제도로 떠나는 겨울여행. 영화와 드라마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거제도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거제도 도착 도착, 옥포대첩 기념공원, 조선해양문화관
▷ 12:30 중식
▷ 14:00 거제도 포로수용소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 거가 대교 완공일 변동시 거제도 여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윤순옹의 '염쟁이 유씨' 20% 할인



2010. 9. 16(목) ~ 10. 24(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21일~22일,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 · 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해운대 그랜드호텔 B1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능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051-611-196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4회 정기연주회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051) 607-3111~3

첼리스트 지안 왕 초청 연주회

2010. 11. 20(토)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예매 및 문의
051)804-2252

THEATER
서면 구.은아극장

사랑한 비보이를 발레리나

20%할인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화~금 20시/ 토 16,20시/ 일 및 공휴일 15,18시(월 휴관)
* 쿠폰제시 시 1인 4매까지 할인/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타 할인과 중복 불가능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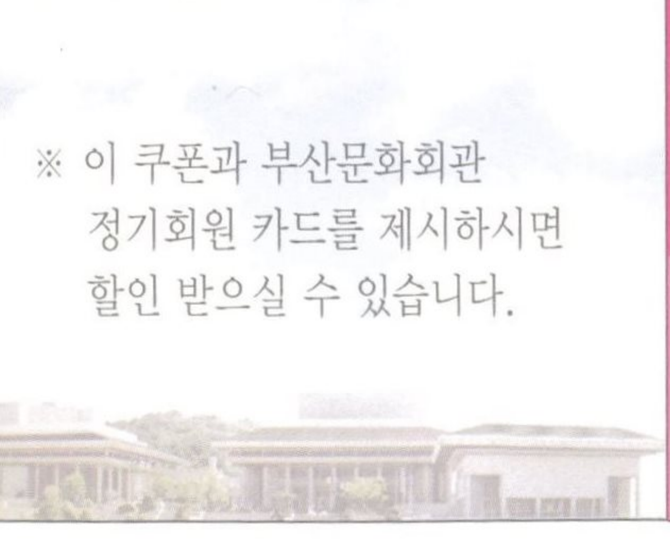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2010년 11월 응모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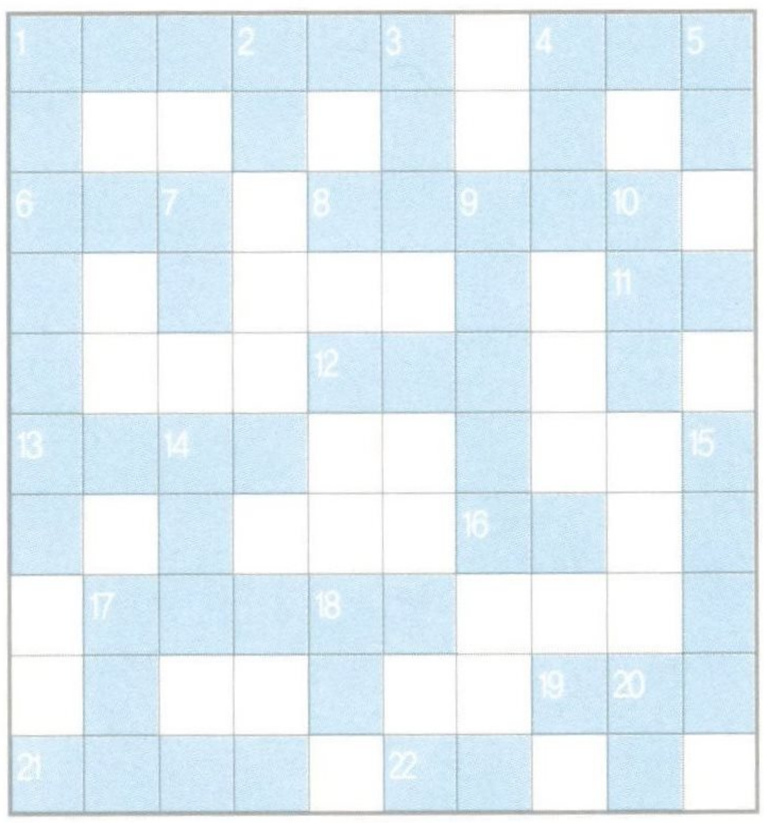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YES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http://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예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 할인	

▫ 회원기간 _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_ 기획공연 5~30%, 시립예술단공연 5~30%
▫ 좌석선택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할인횟수 _ 제한없음
▫ 가입신청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가입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탈 퇴 _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_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혜 택
·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무료우송, 조기예매 기회제공, 문화강좌할인, 테마여행
·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및 관람시설, 할인쿠폰제공 등

■ 정기회원 가입이벤트 ■

매달 4명 추첨 ▸ 점프전용극장과 비비씨어터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051) 051-607-3100 Fax 051) 607-3109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2010 한·러수교 20주년
1990 - 2010



MARIINSKY THEATRE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MARIINSKY THEATRE BALLET'S

Swan Lake



Odette-Odille 5일 Victoria Tereshkina



6일 Ulyana Lopatkina



2010. 11.5금 – 6토

공연시간 : 금요일 pm 7:30 / 토요일 pm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러시아연방문화부 부산광역시 부산MBC 주관 | 부산문화회관 고양문화재단

후원 | 주한러시아대사관 *Global Partner of the Mariinsky Theatre:* VTB Principal Partner of the Mariinsky Theatre SBERBANK By your side Yoko Ceschina GAZPROM

티켓 | VIP 150,000 / R 130,000 / S 100,000 / A 80,000 / B 50,000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홍보마케팅부(607-3100)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부산은행 전지점